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 예술의 초대

2006. **3** Vol. 171

[www.bsculture.busan.kr](http://www.bsculture.busan.kr)

## 반갑습니다

—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 김윤곤이사장

## 작품 속의 부산, 부산이야기

— 오륙도 환상곡

## 어화둥둥 이야기 국악

득음(得音)과 덕음(德音) 그리고 익음(溺音)

## 부산, 영화를 꿈꾸는 사람들

— 봄을 노래하자



# 2006년 신춘음악회

# 春來音

싱그러운 새봄을 여는 관현악  
관현악과 춤으로 그리는 봄의 정경

- 전통악기와 개량악기, 북한과 중국 연변음악의 이색적 만남
- 기악과 춤의 만남



박호성

- 지휘 : 박호성(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 협연 : 이용구(단소 · 국립국악관현악단 악장, 중앙대학교 겸임교수)  
김성민(피리, 태평소 · 안산시립국악단 수석)  
최명화(생황 · KBS국악관현악단 부수석)  
부산시립무용단

### ■ 프로그램

- 백대웅/새 봄을 여는 창작관현악 '연변목가' (부산초연)
- 공연송/단소 협주곡 '초소의 봄' (부산초연)-단소/이용구
- 오 혁/피리와 태평소를 위한 협주곡 '코-사무이' (부산초연)
  - 피리, 태평소/김성민
- 원 일/봄 춤이 있는 창작관현악 '춤, 바람, 난장' (부산초연)
  - 춤/부산시립무용단 단원
- 이준호/생황협주곡 '바람의 섬(The Island of Wind)' (부산초연)
  - 생황/최명화



김성민



최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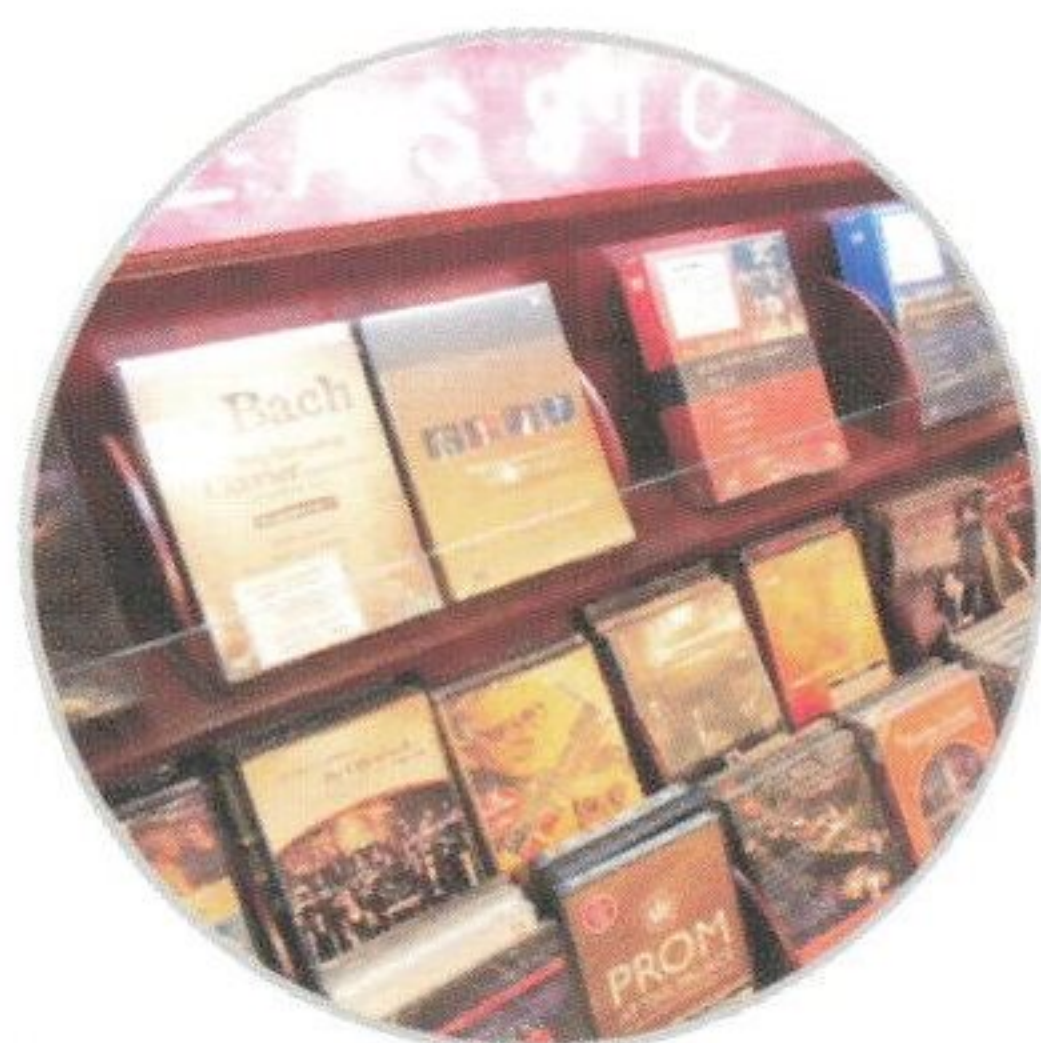
## 2006년 3월 30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입 장 권/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 공연문의/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www.bsculture.busan.kr](http://www.bsculture.busan.kr))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www.bmtmo.com](http://www.bmtmo.com))



## 부산에도 문화가 있습니다!

클래식음악애호가 바라던 클래식음반전문매장  
부산에도 있습니다.



비/바/체/클/래/식

국내 최정상급 성악가들과 함께하는  
2006 신춘음악회



바리톤 | 김동규



소프라노 | 김영미



테너 | 김남두



소프라노 | 박정원



테너 | 하석배



지휘 | 장윤성



소프라노 | 김경희



테너 | 이철성



소프라노 | 박현정



바리톤 | 조현수



베이스 | 김태경

오케스트라 |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3월 26일(일)\_27일(월) PM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 부산 MBC Sol'Opera 솔오페라단

주관 | PAM 프리모 아트 매니지먼트 PRIMO ART MANAGEMENT

특별협찬 | HYUNDAI DEPARTMENT STORE

PARADISE HOTEL BUSAN

후원 | 부산은행

우남건설주식회사

입 장 권 | VIP 100,000원 R석 80,000원 S석 50,000원 A석 30,000원 B석 20,000원 학생 10,000원 (\*전화 예매시 10% 할인)  
예 매 처 | ☎1644-5012 / 인터파크 www.interpark.com ☎1544-1555 / 티켓365 www.ticket365.co.kr ☎(051) 632-8628  
공연문의 | ☎ 1644-5012, 016-861-6105, 010-6268-3667



# 토요상설무대

매주 토요일 오후 4:00 문화회관 소극장

## ● 3월 4일(토)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합병저곡(집박/유경조·대금/이만형, 엄익준, 황무호·피리/박춘석, 권미정, 정주아·해금/조남순, 정수경, 이은주·아쟁/최영훈 외)  
 신태동류 거문고 산조(거문고/전혜정·장구/신문범)  
 시나위(대금/채수만·피리/박순자·해금/김민정·아쟁/홍영혜·가야금/송영남·거문고/강상호·장구/신문범·징/전학수)  
 흥겨운 민요(민요/박성희, 정선희·대금/채수만, 피리/박순자, 해금/김민정, 아쟁/홍영혜·가야금/윤경선, 거문고/강상호 외)  
 사물놀이(꽝과리/이주현·장구/최오성·징/전학수·북/신문범)

## ● 3월 11일(토) - '신상준과 Friends' - 청소년을 위한 즐거운 음악여행

비발디/바이올린 협주곡 마장조 작품 8 '사계', 제1번 '봄' 중 제1악장  
 바흐/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제3번 사장조 중 제3악장  
 모차르트/현악4중주 작품 525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무지크' 중 제1악장  
 브람스/현악6중주 제1번 내림나장조 작품 18 중 제2악장 등 수곡  
 출연  
 바이올린/신상준(리더), 이장호, 이광식  
 비올라/김가영, 박소영, 첼로/유대연  
 더블베이스/박희철, 하프/김영립

## ● 3월 18일(토)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수요남곡(가야금/이명일, 김혜진, 정미자, 오은영·거문고/이대하, 엄애리, 박하혜, 전혜정·장구/이장우·양금/장미진)  
 대금독주 '청성곡' (대금/최재호)  
 중광지곡 중 '염불' 및 '타령' (대금/강영진·피리/박영은·해금/최윤정·양금/장미진·단소/김영민·가야금/육경화 외)  
 판소리(관소리/박성희·고수/신문범)  
 산조합주(대금/한영길·피리/박순자·해금/방병원·아쟁/권혜정·가야금/윤경선·거문고/강상호·장구/신문범)

## ● 3월 25일(토) - 부산무용협회 공연

민속무용/진쇠춤(춤/심지영, 신치련), 승무(춤/윤여숙), 입춤(춤/박순희, 김정애, 박선홍), 동래학춤(춤/이도근),  
 진주교방굿거리(춤/김정원, 김선희, 엄선미)  
 창작무용/장고춤(춤/강미선, 구영희, 전선애)  
 현대무용/논픽션 게임(안무/김영란·춤/김영란, 조숙녀, 정현주, 윤성훈)

• 입장권 : 무료 (7세 이하 어린이는 공연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0)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기념  
유쾌한 가족 오페라!!

# LE NOZZE DI FIGARO

## "피가로의 결혼"

"남자의 바람기를 잠재워라!!"



### 2006. 4월 6일 ~ 9일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PUSAN CULTURAL CENTER MAIN HALL

- 제작진 예술총감독 박영국 지휘 박영휘 연출 김성경 합창지휘 강성출 ■ 반주 동아대학교 오케스트라 ■ 합창 단비올 & BLS
- 출연진 수잔나 김방술 남순천 황윤정 임지아 이정희 / 피가로 김도형 박원한 최대우 박용민 이정민 / 백작부인 허미경 백선아 윤현숙 신정순 이한나김  
백작 고영호 신화수 최인철 최기천 오세민 / 바질리오 정종철 황성학 구원모 김정권 / 케루비노 이지영 성미진 / 바르톨로 문동환 이지훈 박재현  
마르첼리나 양기애 황승규 / 바르바리나 권유진 김 현 손유경 / 안토니오 이진희 지태영 / 돈쿠르쥬 박호민 신대현

주최 KBS부산방송국 주관 아지무스오페라단

협찬 화승그룹 K 주식회사 원진월드와이드 성신신소재 Sung Ho 성호포리컴주식회사 벵쿠시장 부산벼룩시장 신우종합스포츠포럼

후원 국제와이즈맨 부산프론티어클럽 동아대학교총동문회 대청교회 음악포털 사이트(www.musicmoa.net)

■ 입장권 R석 7만원 / S석 3만원 / S석 5만원 / A석 3만원 / B석 2만원 ■ 공연문의 011-9520-4649 / 인터넷주소 www.agimus.co.kr

■ 예매처 부산은행전지점 · 영광도서 · 동보서적 · 남포문고 · 면학서점 · 향학서점 · 서면까르푸

- 08 부산문화회관 3월 공연 일정
- 10 부산시민회관, 금정문화회관 3월 공연 일정
- 12 마음을 여는 글 | 비인기(?) 악기의 멸종(?) 위기 · 박성완
- 14 반갑습니다 |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신임 이사장 김윤곤
- 16 작품 속의 부산 부산이야기 | 오륙도 환상곡 · 김종태
- 20 어화둥둥 이야기 국악 | 득음(得音)과 덕음(德音) 그리고 익음(溺音) · 강성일
- 22 김형술의 그림에세이 | 물고기의 눈 - 신옥진의 그림 〈산을 닮은 고기〉 · 김형술
- 24 부산, 영화를 꿈꾸는 사람들 | 봄을 노래하자 · 김희진
- 26 연극속으로 | 신의 시선으로 바라보기-〈사람의 아들〉 · 변미선
- 28 그곳에 가면 | 문화공간 백양산
- 30 우리는 문화 가족 | 아르모니 플룻앙상블
- 32 캠페인 1인 1기를 배웁시다 | 단소불어보기 3 · 채수만
- 34 쉽게 듣는 클래식 | 미제레레 메이(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 곽근수
- 35 이 사람 | 오페라 연출가 김성경
- 36 공연 화제 | 봄과 함께 찾아온 오페라의 향연
- 38 전시 화제 | 부산시립미술관 2006년 첫 기획전
- 40 부산시립예술단 3월 공연관람 가이드
- 46 3월 프로그램 가이드
- 60 새로 나온 음반
- 61 새로 나온 책
- 63 부산문화회관 소식
- 64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표지사진]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지휘자 알렉산더 아니시모프



- 발행처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회관길1 (대연 4동 848-4번지)  
TEL. 625-8130, FAX. 607-6204
- 발행인 조병규 | 편집인 공영훈 | 편집장 백경옥
- 발행일 2006년 2월 25일
- 인쇄처 부산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601-836 부산시 동구 초량 3동 1156-11번지)  
TEL. 468-2468, 2757, FAX. 468-2515

※ 예술에의 초대는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게 무료로 우송해드립니다.

자세한 공연안내는 <http://www.bsculture.busan.kr>을 Click하세요.  
(부산시립예술단을 비롯한 부산문화회관 공연은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 부산문화회관

# 3

## 월 공연일정

### 전시실

#### ■ 부산미술협회 · 고양시 미술협회 작품 교류전-대전시실

2월 26일(일)~3월 3일(금)

문의 박인관(016-567-3647)

#### ■ 대한민국 서예 대전 및 미술 대상전-대 · 중전시실

3월 5일(일)~3월 7일(화)

문의 박정현(011-9302-8865)

#### ■ 한국서예발전협회 APEC 성공개최기념 전국 서예 올림픽 -대 · 중전시실

3월 13일(월)~3월 17일(금)

문의 정길수(747-0320, 017-540-6777)

#### ■ 한 · 일 서화 문화교류전 및 학해서림회전-대 · 중전시실

3월 18일(토)~3월 20일(월)

문의 학해서림회(628-0718)

#### ■ 2006 IAF 한국미술특별전-대 · 중전시실

3월 25일(토)~3월 30일(목)

문의 국제예술문화원(636-5575)

● 표 공연은 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예약하십시오. (안내 : 11쪽)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극장

## MAIN THEATER

1	wed	
2	thu	
3	fri	
4	sat	영화 왕의 남자 원작 연극 '이(爾)' 15:00, 19:00 5만원 · 4만원 · 3만원/인터스테이지(1588-8477)
5	sun	영화 왕의 남자 원작 연극 '이(爾)' 15:00, 19:00 5만원 · 4만원 · 3만원/인터스테이지(1588-8477)
6	mon	부산스트링스챔버오케스트라 창단 10주년 기념 특별연주회 19:30 1만원 · 5천원/정금희(628-8088)
7	tue	미래와 음악 신춘 음악회 '희망의 소리' 19:30 5만원 · 3만원 · 2만원/미래와음악(1544-3439, 242-5231)
8	wed	
9	thu	
10	fri	꼬레아 오페라단 베르디 걸작 오페라 '가면무도회' 19:00 15만원 · 10만원 · 7만원 · 5만원 · 3만원/LMC(747-9767)
11	sat	꼬레아 오페라단 베르디 걸작 오페라 '가면무도회' 19:00 15만원 · 10만원 · 7만원 · 5만원 · 3만원/LMC(747-9767)
12	sun	꼬레아 오페라단 베르디 걸작 오페라 '가면무도회' 19:00 15만원 · 10만원 · 7만원 · 5만원 · 3만원/LMC(747-9767)
13	mon	꼬레아 오페라단 베르디 걸작 오페라 '가면무도회' 19:00 15만원 · 10만원 · 7만원 · 5만원 · 3만원/꼬레아오페라단(940-6582)
14	tue	보리스 베레조프스키 피아노 독주회 19:30 7만원 · 6만원 · 4만원 · 3만원/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15	wed	금성고등학교 동문음악회 19:30 정치선(636-2200, 010-9745-2200)
16	thu	부산가야금연주단 제 2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옥경화(017-556-7543), 최미란(017-568-3766)
17	fri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세르게이 마르카로프 초청 연주회'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18	sat	
19	sun	
20	mon	3Tenor & 3Soprano Concert 19:30 균일 1만원/부산문화(635-9081)
21	tue	광대들의 들놀이 19:30 균일 1만원/부산문화(633-8990)
22	wed	
23	thu	부산시립합창단 제 118회 정기연주회 '세상의 모든 음악 I'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24	fri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사계(四季)'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25	sat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 116회 정기연주회 '프렌들리 콘서트' 17:00 균일 2천원/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26	sun	솔오페라단 갈라콘서트 '2006 신춘음악회' 19:30 10만원 · 8만원 · 5만원 · 3만원 · 2만원 · 1만원/프리모 아트매니지먼트(622-5529)
27	mon	솔오페라단 갈라콘서트 '2006 신춘음악회' 19:30 10만원 · 8만원 · 5만원 · 3만원 · 2만원 · 1만원/프리모 아트매니지먼트(622-5529)
28	tue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기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봄에 듣는 세레나데' 19:30 균일 2천원/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607-6108)
29	wed	
30	thu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29회 정기연주회 '春來音'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31	fri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18회 정기연주회 '러시아 음악의 밤'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



# 중극장

## MEDIUM THEATER

- 1 **wed**
- 2 **thu** E.M.B 트리오 창단연주회 19:30  
초대/E.M.B 트리오(011-9559-0415)
- 3 **fri** 청소년 협연의 밤 19:30  
초대/선기획(758-6410)
- 4 **sat** 바리톤 민정식 독창회 18:30  
초대/민정식(301-9701, 011-562-9701)
- 5 **sun** 나의 고백 테너 문대진 찬양 독창회 19:00  
문대진(512-8929, 011-9526-8929)
- 6 **mon** 유영욱 피아노 독주회 19:30  
초대/유영욱(010-3198-1035)
- 7 **tue** 크로노스 앙상블 소년소녀가장돕기 자선음악회 19:30  
균일 1만원/이장호(011-830-4770)
- 8 **wed**
- 9 **thu** 효산가야금연주단 제 2회 정기연주회 19:30  
1만원 · 5천원/김지영(011-9234-9638)
- 10 **fri**
- 11 **sat**
- 12 **sun** 빈국립음대교수 볼프강 다비드 바이올린 독주회 17:00  
7만7천원 · 5만5천원 · 3만3천원/(주)TTC(525-2599)
- 13 **mon** 한명희, 권혜령 피아노 듀오연주회 19:30  
균일 2만원/예은예술기획(627-2572)
- 14 **tue**
- 15 **wed**
- 16 **thu** 소프라노 장은녕 귀국 독창회 19:30  
초대/그랜드오페라단(809-8445)
- 17 **fri**
- 18 **sat** 오페라 갈라콘서트 '유럽 오페라무대를 감동시킨 한국 성악가들' 19:30  
7만원 · 5만원 · 3만원 · 2만원/이솔리스트(334-5211, 010-3380-7191)
- 19 **sun** SDA플룻앙상블 전국 순회연주회 19:00  
초대/김진복(010-3131-2913)
- 20 **mon**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기념 독일가곡연구회 제 29회 정기  
연주회 19:30 1만원 · 5천원/김현식(011-566-4172)
- 21 **tue**
- 22 **wed**
- 23 **thu**
- 24 **fri** 부산시립극단 제 25회 정기공연 '십이야' 19:30  
1만5천원 · 1만원/부산시립극단(607-6136)
- 25 **sat** 부산시립극단 제 25회 정기공연 '십이야' 16:00  
1만5천원 · 1만원/부산시립극단(607-6136)
- 26 **sun** 부산시립극단 제 25회 정기공연 '십이야' 16:00  
1만5천원 · 1만원/부산시립극단(607-6136)
- 27 **mon** 부산 카머 심포니 오케스트라 제 14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5천원/정성희(011-579-3019)
- 28 **tue** 제 29회 독우회 정기연주회 19:30  
1만원 · 5천원/예은예술기획(627-2572)
- 29 **wed**
- 30 **thu** 임가진 바이올린 독주회 19:30  
2만원 · 1만원/아트뱅크 코리아(761-3598, 011-597-6808)
- 31 **fri**

# 소극장

## SMALL THEATER

- 1 **wed** 정연희 피아노 클래스 은혜연주회 19:30  
무료/정연희(751-9893, 010-9587-8737)
- 2 **thu**
- 3 **fri**
- 4 **sat**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5 **sun**
- 6 **mon**
- 7 **tue**
- 8 **wed**
- 9 **thu**
- 10 **fri** 최성호 문하생 발표회 19:00  
초대/최성호(635-8760, 011-564-7749)
- 11 **sat** 토요일상설무대-신상준과 Friends '청소년을 위한 즐거운  
음악여행'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12 **sun** 박순영 발레 아카데미 정기공연 16:00  
무료/박순영(704-7373, 011-9512-8854)
- 13 **mon**
- 14 **tue**
- 15 **wed**
- 16 **thu**
- 17 **fri**
- 18 **sat**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19 **sun**
- 20 **mon**
- 21 **tue**
- 22 **wed**
- 23 **thu**
- 24 **fri** 인형극단 까치-팡팡동화 나라 '장화신은 고양이' 10:20, 11:30  
1만원 · 7천원 · 4천원/인형극단 까치(633-2114, 645-2110)
- 25 **sat** 토요일상설무대-부산무용협회 공연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26 **sun** 피리부는 사람들 '제 9회 정기연주회 15:00  
초대/김진복(291-8119, 010-3131-2913)
- 27 **mon**
- 28 **tue**
- 29 **wed**
- 30 **thu**
- 31 **fri**

부산시내 기타공연 ③월 달력

부산시민회관

문의 : 시민회관(630-5221~5)

- 1 **wed** 월요일영화 '투브라더스' 14:00, 19:30 -대극장 시민회관(630-5200)  
중앙음악신문 전국 콩쿠르 09:00 -소극장 중앙음악신문사(645-6828)
- 2 **thu** 피아니스트 권상무 찬불가 연주회 19:30 -대극장  
초대/권상무(011-342-8215)
- 3 **fri**
- 4 **sat** 가족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12:00, 14:00, 16:00 -소극장  
균일 1만원/극단 동행(02-984-0251)
- 5 **sun** 노영심 '뉴에이지 피아노' 16:00 -대극장 인터파크(1544-1555)  
가족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12:00, 14:00, 16:00 -소극장
- 6 **mon** 월요일영화 '작업의 정석' 14:00, 19:30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 7 **tue**
- 8 **wed** 중국 국립 심포니오케스트라 내한공연 19:30 -대극장  
10만원 · 8만원 · 6만원 · 4만원/아트인부산(442-6500)
- 9 **thu** 영화 '킹콩' 12:30, 16:00, 19:30 -대극장  
균일 6천원/정상길(016-480-6278)
- 10 **fri** 제 6회 신춘음악회 19:30 -소극장 초대/부산음악협회(634-1295)  
영화 '킹콩' 12:30, 16:00, 19:30 -대극장 정상길(016-480-6278)
- 11 **sat** 2006 아름다운 콘서트 17:00 -소극장 균일 1만2천원/부산민예총(635-5370)  
영화 '킹콩' 12:30, 16:00, 19:30 -대극장 정상길(016-480-6278)
- 12 **sun** 2006 아름다운 콘서트 17:00 -소극장 균일 1만2천원/부산민예총(635-5370)  
영화 '킹콩' 12:30, 16:00, 19:30 -대극장 정상길(016-480-6278)
- 13 **mon** 월요일영화 '파이어 월' 14:00, 19:30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 14 **tue**
- 15 **wed**
- 16 **thu**
- 17 **fri**
- 18 **sat** 하이리빙 신춘음악회 15:00, 19:30 -대극장 (주)감미엔티(02-535-8624)  
개구리 왕눈이 12:00, 14:00, 16:00 -소극장 제일기획(557-4277)
- 19 **sun** 일동후디스 태교축제 -대극장 초대/일동후디스(02-2049-2114)  
개구리 왕눈이 12:00, 14:00, 16:00 -소극장 제일기획(557-4277)
- 20 **mon** 월요일영화 '윈헨' 14:00, 19:30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 21 **tue**
- 22 **wed**
- 23 **thu**
- 24 **fri**
- 25 **sat** 하늘을 나는 피터팬 11:00, 14:00, 16:00 국민극단(011-655-5128)  
연극극 '히로시마 메시지' 19:00, 18:00 -소극장 극단 새벽(245-5919)
- 26 **sun** 하늘을 나는 피터팬 11:00, 14:00, 16:00 국민극단(011-655-5128)  
사랑의 콘서트 15:00 -소극장 균일 1만원/이태이(011-838-5119)
- 27 **mon** 월요일영화 '투사부일체' 14:00, 19:30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 28 **tue**
- 29 **wed** 연극 '그린벤치' 19:30 -소극장  
초대/시민회관(630-5200)
- 30 **thu** 연극 '그린벤치' 19:30 -소극장  
초대/시민회관(630-5220)
- 31 **fri** 시끄러운 음악회 14:00, 16:00 -대극장  
2만5천원 · 2만원/웹스테이지(1588-0881)

금정문화회관

문의 : 금정문화회관(519-5651~2)

- 1 **wed** 헨젤과 그레텔의 마법 과자집 12:00, 14:00, 16:00  
-소공연장 균일 1만원/가람뮤지컬(031-769-4863)
- 2 **thu** 부산아버지합창단 제 2회 정기공연 19:30 -대공연장  
무료/이흥길(517-6091)
- 3 **fri**
- 4 **sat**
- 5 **sun**
- 6 **mon** 김우진&오윤주 듀오연주회 '러시아 첼로 소나타의 밤' 19:30  
-소공연장 균일 1만원/프로인트(521-5729)
- 7 **tue**
- 8 **wed** 수요일음악회 '소프라노 정태미 독창회' 19:30 -소공연장  
1만원 · 5천원/금정문화회관(519-5651~2)
- 9 **thu** 오페라 '비밀결혼' 19:30 -대공연장  
7만원 · 5만원 · 3만원/오페라단 가야(636-3139)
- 10 **fri** 오페라 '비밀결혼' 19:30 -대공연장  
7만원 · 5만원 · 3만원/오페라단 가야(636-3139)
- 11 **sat** 오페라 '비밀결혼' 19:30 -대공연장  
7만원 · 5만원 · 3만원/오페라단 가야(636-3139)
- 12 **sun** 오페라 '비밀결혼' 19:30 -대공연장  
7만원 · 5만원 · 3만원/오페라단 가야(636-3139)
- 13 **mon** 오페라 '비밀결혼' 19:30 -대공연장  
7만원 · 5만원 · 3만원/오페라단 가야(636-3139)
- 14 **tue** 오페라 '비밀결혼' 19:30 -대공연장  
7만원 · 5만원 · 3만원/오페라단 가야(636-3139)
- 15 **wed** 오페라 '비밀결혼' 19:30 -대공연장 오페라단 가야(636-3139)  
수요일음악회 '유망신예연주자들의 밤' 19:30 -소공연장 금정문화회관(519-5651)
- 16 **thu** 오페라 '비밀결혼' 19:30 -대공연장 오페라단 가야(636-3139)  
For the First Time 19:00 -소공연장 장희진(011-1766-1213)
- 17 **fri**
- 18 **sat** 메트로 발레단 정기공연 19:30 -대공연장 메트로발레단(515-8181)  
곽승웅 클래식기타 독주회 19:00 -소공연장 곽승웅(756-5865)
- 19 **sun**
- 20 **mon** 오페라 '버섯피자' 19:00, 21:00 -대공연장 문화기획 LMC(747-9767)  
황지원의 테마콘서트 19:30 -소공연장 예술기획(0505-700-9798)
- 21 **tue** 오페라 '버섯피자' 19:00, 21:00 -대공연장  
5만원 · 3만원 · 2만원 · 1만원/문화기획 LMC(747-9767)
- 22 **wed** 오페라 '버섯피자' 19:00, 21:00 -대공연장 문화기획 LMC(747-9767)  
수요일음악회 '부산우드윈드앙상블 연주회' 19:30 -소공연장 금정문화회관(519-5651)
- 23 **thu** 오페라 '버섯피자' 19:00, 21:00 -대공연장 문화기획 LMC(747-9767)  
노경원 피아노 독주회 19:30 -소공연장 균일 1만원/프로인트(521-5729)
- 24 **fri** 오페라 '버섯피자' 19:00, 21:00 -대공연장  
5만원 · 3만원 · 2만원 · 1만원/문화기획 LMC(747-9767)
- 25 **sat** 오페라 '버섯피자' 19:00, 21:00 -대공연장 문화기획 LMC(747-9767)  
김수현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18:00 -소공연장 김수현(011-9912-2984)
- 26 **sun** 배진의 귀국 작곡발표회 17:00 -대공연장  
초대/예술기획(0505-700-9798)
- 27 **mon** 배미정 귀국 피아노 독주회 19:30 -대공연장  
초대/예술기획(0505-700-9798)
- 28 **tue** 장애인을 돕기위한 제 1회 음악사랑회 정기연주회 19:30  
-소공연장 1만원 · 5천원/김성보(011-559-4919)
- 29 **wed** 연정 CHM '춤맥 이어가기' 19:30 -대공연장 부산대학교(510-2949)  
수요일음악회 '박정현 피아노 독주회' 19:30 -소공연장 금정문화회관(519-5651)
- 30 **thu** 아마추어 솔리스트들의 봄맞이 가곡의 밤 18:45 -대공연장  
초대/신용숙(010-7744-4317)
- 31 **fri** 뮤지컬 인형극 '일곱마리 아기염소와 늑대' 10:00, 11:20  
-소공연장 1만2천원/공연기획 DUBU(02-2654-6854)

❖ 예술단 정기회원이 할인에매할 수 있는 공연

장 소	일 시	공 연 명	관 람 료	할 인	문 의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3/4(토)-3/5(일) 15:00, 19:00	영화 왕의 남자 원작 연극 '이(爾)'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A석 30,000원	10%	인터스테이지 (1588-8477)
	3/7(화) 19:30	희망의 소리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10%	미래와 음악(1544-3439, 242-5231)
시민회관	3/5(일) 16:00	노영심 피아노 콘서트 뉴에이지 피아노	R석 55,000원 · S석 44,000원 A석 33,000원 · B석 22,000원	10% (전화예매시)	인터파크 (1544-1555)
	3/7(화) 19:30	중국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내한공연	VIP석 100,000원 · R석 80,000원 S석 60,000원 · A석 40,000원	20%	아트인부산 (442-6500)
	3/31(금) 14:00, 16:00 4/1(토) 11:00, 14:00, 16:00	어린이 클래식 콘서트 시끄러운 음악회	R석 25,000원 S석 20,000원	20%	원스테이지 (1588-0881)
을숙도 문화회관	3/24(금) 10:10, 11:20 3/25(토)-3/26(일) 12:00, 14:00, 16:00	뮤지컬 인형극 일곱마리 아기염소와 늑대	균일 12,000원	3,000원 할인 (대표소에서 카드제시)	공연기획DUBU (02-2654-6854)
금정문화회관	3/9(목)-3/16(목) 19:30	오페라 비밀결혼	VIP석 70,000원 · S석 50,000원 A석 30,000원	20%	오페라단 가야 (636-3139)
	3/31(금) 10:10, 11:20 4/1(토)-4/2(일) 12:00, 14:00, 16:00	뮤지컬 인형극 일곱마리 아기염소와 늑대	균일 12,000원	3,000원 할인 (대표소에서 카드제시)	공연기획DUBU (02-2654-6854)
KBS 부산홀	3/4(토) 16:00, 20:00	장윤정 부산 첫 콘서트 콩깍지	R석 60,000원 S석 45,000원	10%	아마데우스 (1588-9088)
	3/19(일) 17:00	엘파 재즈&팝 싱어즈 부산공연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A석 30,000원	20%	아트인부산 (442-6500)
가마골 소극장	3/17(금)-4/9(일) 평일 19:30, 토 요일 16:30, 19:30, 일요일 15:00, 18:00(월요일 공연없음)	바보 각시	일반 20,000원 학생 15,000원	10%	가마골소극장 (245-0042)

예 / 매 / 창 / 구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0)

예 / 매 / 방 / 법

직접 또는 전화 신청

예 / 금 / 계 / 좌

부산은행 036-01-034848-7  
예금주 :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예술단 지정 예매처

- 부산은행 전 지점, 티켓 365(www.ticket365.co.kr) · 중구/남포문고(245-8911), 문우당서점(245-3843), 국도레코드(로얄호텔 옆 247-4240)
- 부산진구/동보서적(서면 제일은행 옆 803-8000), 영광도서(롯데백화점 건너편 816-9500), 유니트매장(까르푸 내 462-0833)
- 금정구/신나라레코드 부산대점(부산대 앞 518-0686), 골든악기사(부산예고 앞 512-4295)
- 남구/면학도서(경성대 앞 623-9404) · 해운대구/해운대약국(해운대시장 입구 752-0100), 비바체 클래식(선프라자 1층 743-0003)
- 사하구/향학서점(동아대 하단 캠퍼스 앞 203-9381)



감동을 · 함께 · 만드는

선택은 한번, 감동은 영원히...

야마하 공식 A/S점

가족처럼 늘 가까이 야마하가 함께 합니다

부산 야마하

피아노  
악기

- 양정 본점 : 051) 863-0900
- 롯데백화점 부산점 6층 : 051) 816-0089
- 사직동 홈플러스 : 051) 506-7332



## 비인기(?) 악기의 멸종(?) 위기

박성완 ·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포항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이미 부산은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문화도시로 그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수많은 각종 문화행사와 연주회, 공연 등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많은 예술가들이 각자의 전공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오케스트라 분야 또한 그러하다. 부산의 관현악기 전문 연주자들이 다양한 오케스트라에 몸담고 있으면서 모두가 부산의 음악 발전에 주역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동적인 부산의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의 뒤를 이어 나갈 차세대, 즉 중·고등학교에서 관현악기를 전공하는 학생의 상황을 본다면 다소 걱정이 되는 점이 있다.

다름 아닌 비인기(?) 악기들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최근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위 인기 악기들, 즉 화려한 솔리스트의 위치를 차지하는 바이올린과 첼로, 그리고 한두 개의 목관 악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악기를 전공하고자 공부하는 학생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최근 들어 부산시내 대학 입시에서는 일부 악기는 미달현상을 보이거나 아예 응시자가 없는 학교도 있다.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전공하는 학생이 급격하게 감소되면서 더불어 실기수준이 동반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원인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고 따라서 부산지역 대학과 프로 오케스트라 발전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연주를 잘하는 좋은 오케스트라가 갖추어야 하는 첫째는 전체 단원 모두 연주기량이 고른 수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면 지휘자와 단원 모두가 힘들다. 또한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 때로는 심각한 갈등까지도 일어난다.

마찬가지로 관현악기를 공부하는 학생의 현황들도 마찬가지이다. 인기 악기를 전공하는 학생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비인기 악기를 전공하는 학생의 양적, 질적 수준이 인기 악기에 비하여 너무 빈약하면 균형이 맞지 않아 첫째는 대학 오케스트라의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회의 프로 오케스트라에까지 불균형의 영향이 미치게 된다.

그러면 과거에는 비인기 악기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제법 있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위축되어 전공자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오늘날 어려운 경제사정과 오래전부터 시행되어온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에 구성되어 있었던 악대부와 관현악반이 점차 소멸된 것이 가장 대표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자연히 다양한 종류의 악기들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고 주위에서 자주 듣고 볼 수 있는



몇 개의 인기 악기 이외에는 전공하고 싶은 매력을 못 느낀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 멸종 위기(?)에 있는 비인기 악기들의 부흥을 어떻게 창출해 내어야 할 것인가...

한마디로 정답은 없다고 본다.

그러나 필자의 좁은 생각으로 몇가지 제언을 한다면 앞서 말한 근원적인 문제의 현실을 이유로만 하지 말고 비인기 악기를 전공한 기성 연주자들이 더욱더 왕성한 활동을 펼쳐야 할 것이다. 즉 개인 독주회나 실내악 연주 활동, 제자발표회는 물론 비인기 악기들이 모두 연합하여 페스티벌 콘서트, 마스터클래스, 뮤직캠프 등등 창의적이며 홍보적인 활동을 펼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클 것이라고 본다. 또 예술중학교나 예술고등학교 및 대학에서는 과감하게 입학 인원을 배려하고 특혜를 부여해야 한다.

그외 더 훌륭한 방법을 찾는데 우리 모두가 헌신해 나간다면 인기 악기와 비인기 악기의 양적, 질적 균형을 조화시켜 부산 지역 오케스트라 발전에 튼튼한 저변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어찌하겠냐는 체념보다 우리 힘으로 멸종(?)을 막아보자는 뜻과 실천이 있다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 환경과 문화가 어우러진 경영환경 조성

##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신임 이사장 김윤곤



“환경은 앞으로 인류 생존을 위해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이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책임지는 환경전문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월 15일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제3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김윤곤 이사장. 21세기 환경의 시대를 맞아 신임이사장으로 어깨가 무겁다.

부산광역시 환경국장으로서 재임하면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절실히 느껴온 김윤곤 이사장은 앞으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친환경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은 환경기초시설 관리운영과 위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000년 1월 1일 설립된 시민들의 공기업이다. 특

히, 환경경영체제에 대한 국제규격인 ISO14001 인증을 획득하고, 경영혁신과 노사화합으로 지방공기업 평가에 4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해 공기업의 모범이 되어 왔다.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은 현재 수영, 장림, 남부, 녹산, 해운대 서부, 중앙사업소 등 6개소의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운영사업소와 다대, 명지, 해운대사업소 등 3개소의 쓰레기 소각장 관리운영사업소, 분뇨처리장 위생사업소 등 총 10개의 사업소를 부산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관리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은 환경과 체육, 문화를 접목하여 시민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나가고 있다. 특히 공단내 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해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다대소각장, 명지소각장에는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 사우나실, 50M 6레인의 대형 수영장, 최신 설비의 헬스장 및 에어로빅실, 연회실 및 예식장을 갖춘 주민편의시설을 갖추

고 있어 1일 3백명, 월 9천명 이상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강서구의 대표적인 주민편의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해운대 신시가지에 위치한 해운대 사업소는 일일 400톤 규모의 생활쓰레기 소각처리설비와 1일 65,000㎥의 관리동 지하내 하수 처리설비를 동시에 갖추고 있는 국내 유일의 종합처리장입니다.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은 신시가지 아파트 전역에 난방용 열원으로 무상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윤곤이사장은 해운대사업소 환경공원에 대한 자량이 대단하다. 시민들의 여가활용, 휴식을 위해

3,000평 규모로 조성된 해운대 사업소 환경공원은 음수대, 동물농장, 연못, 파고라 등이 조성되어 있어 시민들의 인기가 높다. 특히 해운대 지역주민들을 위해 개방하고 있는 사업소 홍보관은 매주 토요일 해운대 청소년오케스트라의 연습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또 견학기회를 제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는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은 방학기간에는 부산지역 대학 중 환경관련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00년 공단설립 이후 7개 대학에서 109명의 학생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학교에서 습득한 학문을 현장에서 체험을 통해 재정립 할 수 있었다.

그외에도 부산지역 체육진흥을 위해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은 2006년 1월 환경시설공단 세팍타크로팀을 창단했다.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에 금메달 1개와 동메달 3개를 안겨준 세팍타크로 종목의 발전을 위해 전국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최강의 선수들로 팀을 구성, 많은 땀을 흘리고 있다.

시민회관장으로 재임한 바 있는 김윤곤이사장은 문화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김윤곤이사장은 개인적으로 뮤지컬을 좋아한다. 뮤지컬은 개개의 노래와 춤이 그 자체로써 매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매우 역동적이어서 뮤지컬 공연장을 자주 찾는다.

“환경과 문화는 삶의 질에 대한 컨텐츠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친환경적인 문화 공간속에 환경과 문화가 어우러진 실속 있는 행사를 갖도록 경영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와 환경이 접목한 부대 행사를 우리공단에서 추진하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은 올해 ‘공단의 매력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자’ 라는 목표 아래 어린이 환경캠프, 환경사랑 글짓기, 환경사진전 등을 개최 할 계획으로 있다. 문화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도 높아 2월 24일 부산시립교향악단 신춘음악회를 함께 관람한 직원들을 중심으로 공연관람동회 결성이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책임지는 환경전문 공기업으로 시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함께 호흡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김윤곤이사장은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이 우리의 환경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한다.



해운대 사업소에 조성된 환경공원은 음수대, 동물농장, 연못, 파고라 등이 조성되어 있어 시민들의 인기가 높다.



## 청소년들을 위한 쉽고 재미있는 관현악곡 오륙도 환상곡

김종태 · 작곡가

‘오륙도 환상곡’은 2001년 영도구청소년오케스트라의 위촉으로 작곡되어 7월 13일 오후 4시 한국테크노과학고등학교(구, 영도여상) 강당에서 고신대학교 오충근 교수의 지휘로 초연되었다.

영도구청이 청소년 정서 함양을 위하여 창단한 영도구청소년오케스트라가 지역작곡가 단체인 향사회 회원들을 주축으로 한 작곡가들에게 청소년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연주할 수 있는 곡을 위촉하면서 ‘오륙도 환상곡’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당시 지휘자 오충근 교수는 청소년들에게 클래식을 보급하기 위해서 연주곡을 선곡하던 중 청소년들이 연주하기 어려운 곡들이 많아 학생들이 연주하기 쉽고 재미있는 곡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창작곡 위촉을 기획했다.

그 이후 2001년 8월 12일에는 일본 후쿠오카 이이쯔까지 코스모스홀에서 가진 한·일 합동 연주회



에서 村上英輔 지휘로 부산아트심포니오케스트라와 일본 筑豊交響樂團이 합동으로 재연하였다. 아쉽게도 지휘자 村上英輔는 이 곡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해석이 제대로 안되었을 뿐 만 아니라 연습도 불충분하여 작곡가의 의도한 바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악기 중 장고가 준비되지 않아 S,Drum이 대신하게 되었고 피아노는 지휘자의 딸인 Yuki Murakami가 맡았는데 역시 의도한 대로 표출이 되지 않아 안타까움이 있었다. 언어의 장벽이 큰 원인이었다. 또 이곡은 그해 12월 4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부산관현악단 제 43회 정기연주회에서 유호석 교수의 지휘로도 재연되었다.

2001년도에 작곡된 '오륙도 환상곡'이 그 해에 일본과 한국에서 연달아 세 번이나 연주된 것이 나에게도 큰 행운이었다. 언젠가는 작곡자의 지휘로 한 번 제대로 연주해 보고픈 마음이다.

곡은 오륙도를 둘러싼 부산 앞바다의 풍경을 다섯 개의 악장으로 표현한 모음곡 형식이다. 오륙도는 부산이 자랑하는 상징적인 섬이다. 부산의 역사와 함께 아니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유구한 세월을 지켜 온 수문장 오륙도. 이를 둘러싼 주변은 너무나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이다. 오륙도를 주제로 한 문학, 그림 등 예술 작품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관현악으로 된 작품은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1악장 '여명(黎明)'은 밝아오는 조용한 새벽 바다의 꿈틀거리는 생명력을 그리고 있다. 바이올린과 비올라가 고음에서 pp로 조용한 여명의 새벽 바다를 그리기 시작한다. 어두운 바다, 간혹 들리는 잔잔한 해조음, 갈매기 소리, 멀리 고기잡이배들의 환한 불빛, 잠자고 있으나 꿈틀거리는 바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신비의 바다, 태초의 그 바다. 한 반도의 끝자락, 민족의 애환과 함께한 오륙도 부산 앞바다가 서서히 용틀임하며 기지개를 켜다.

2악장 '출어(出魚)'에서는 서서히 동녘은 밝아 오고 조용하던 바다는 이내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어부들은 삶의 현장으로 배를 띄운다. 만선의 꿈을 안고 '어기영차 노 저어라' 희망찬 뱃노래도 요란하다. 우직한 부산 사나이들의 역센 사투리도 간혹 들리는 듯. 그러나 즐거운 뱃노래도 잠깐, 트럼펫과 호른의 불길한 신호, 이어 피아노 저음의 cluster, 목관 금관군의 단말마적 리듬 등이 뒤엉켜 바다가 일순간 요동치는 가운데 현해탄의 거친 파도는 뱃전을 강타하고 시커먼 먹구름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풍은 순식간에 이수라장을 만든다. 피아노의 glissando, cluster, 팀파니의 tremolo가 천지를 진동한다. 현해탄의 소용돌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시때때로 넘나든 무리들의 괴롭힘. 일본에서 일본인의 지휘로 연주할 때 작곡자 이외 그 어느 누구도 그러한 것을 느낀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연달아 만선의 꿈이 부풀어 오른다.

3악장은 '만선(滿船)의 기쁨'을 표현했다. 배는 만선이였다. 원래가 부지런한 민족이 아니던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았는가. 본래가 선하고 부지런하고 명석한 이 민족이기에 모진 고난 이겨내고 살아와 걸쭉한 노랫가락, 막걸리 한 사발에 자갈치는 이내 만선의 기쁨으로 가득하다. 이어 '돌아와요 부산항에' 선율에 의한 환타지가 향수를 자아낸다. 부산의 관문 민족의 관문 부산항. 민족의 역사와 함께 영욕을 넘나든 부산항, 각



청소년들을 위해 작곡된 '오륙도 환상곡'은 2001년 영도구 청소년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초연무대를 가졌다.(사진은 오충근 교수가 지휘하는 영도구 청소년오케스트라)

자의 삶을 찾아 부모 형제를 떠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부산항 오륙도. 부산 시민에겐 민요처럼 되어버린 대중가요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클래식하게 구성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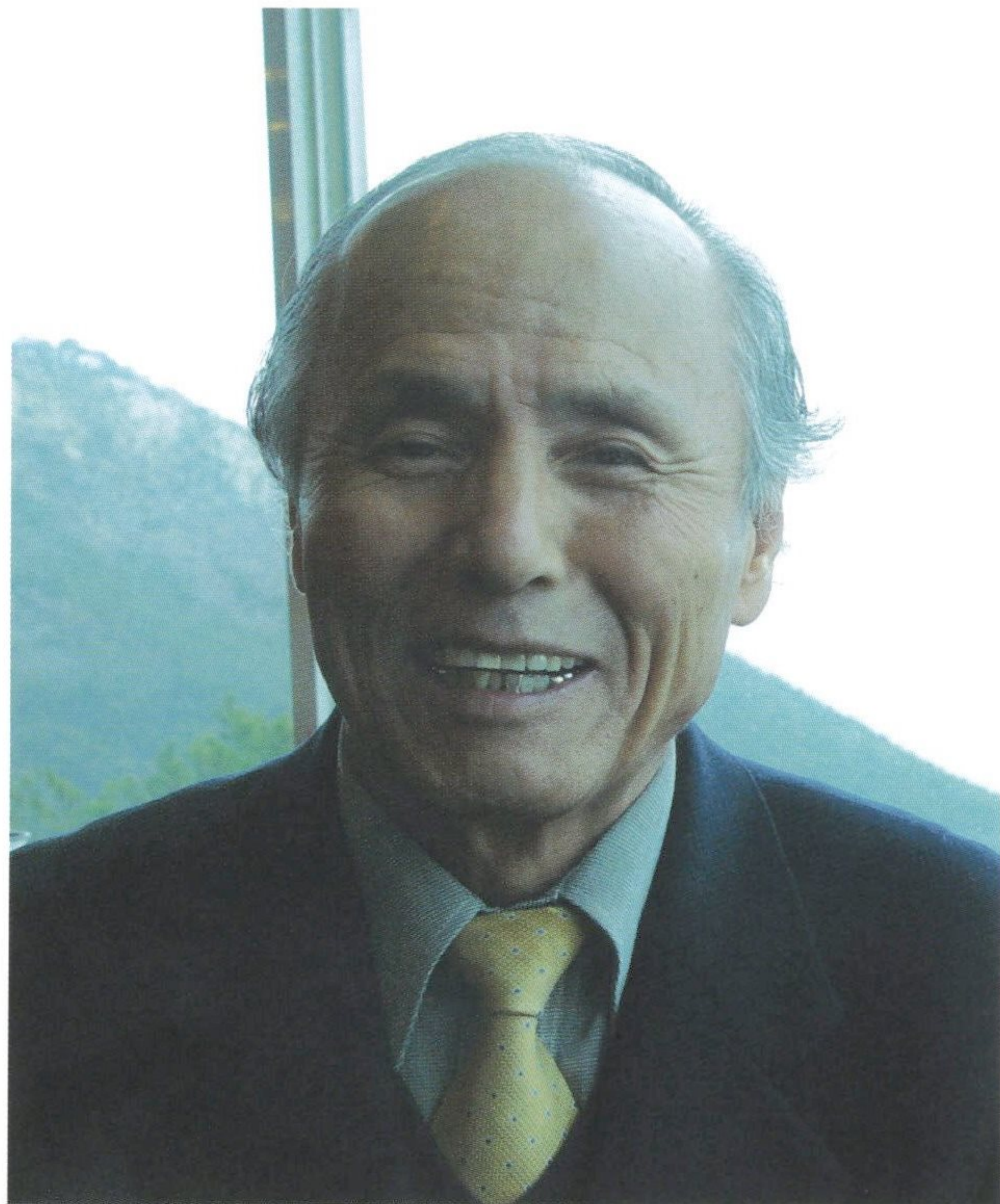
4장은 '죽은 선원을 위한 애가(哀歌)'이다. 오늘의 이 풍요는 누구의 덕분인가. 가족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만선의 작업에 동참한 가신님들의 혼을 달래야 하지 않을까, 현과 관이 어울려 한 동안 흐느낀다. 비단 죽은 선원만이 아니라 조국의 근대화를 이룩한 선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곡이기도 하다. 목관, 금관, 현이 각각 대위적으로 흐느끼며 혼을 달라고 있다.

5장은 '희망의 바다'이다. 그러나 흐느낌도 잠깐,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가지고 조국의 근대화를 향한 우리의 행진은 더욱 활기차다. 오늘도 태양은 오륙도 넘어 수평선에서 찬란히 떠오른다. 새로운 만선, 우리의 미래, 희망찬 미래, 팀파니의 힘찬 연타 위에 장엄한 선율이 찬란한 아침바다처럼 희망을 노래한다. 이제 우리 앞에는 오직 전진뿐이다. 찬란한 희망 아름다운 미래 아! 오륙도여! 부산이여!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여! 영광있으라.

이 5개의 악장은 악장 구분 없이 연달아 연주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쉽게 연주할 수 있도록 쉽게 작곡되어 있다. 앞으로 이렇게 부산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많이 작곡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관현악 합창곡들이 많이 작곡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 작곡가들은 자기 예술의 상아탑에서 눈을 떠 청소년들을 위한 쉬운 음악 창작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청소년들의 관심을 요란한 팝의 세계에서 클래식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클래식과 팝을 아우르는 새로운 건전한 청소년 음악을 창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황혼의 열정으로 새로운 작곡 인생 시작하는 작곡가 김 종 태



음악교육현장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창작곡 작곡에 많은 열정을 쏟아온 작곡가 김종태 씨(66). 2003년 정년 퇴임후 교단을 떠난 그는 요즘 작곡과 기도 생활을 병행하며 청소년을 위한 작품 구상과 성가 작곡에 전념하고 있다.

“퇴임을 해서 작곡가로서 본연의 활동에 전념한다고 다짐을 하건만 결실은 미미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본 오까자끼 주니어심포니오케스트라가 위촉한 작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영남악파의 거목인 고 이상근교수의 제자인 김종태 씨는 1974년 이상근 선생의 제자들로 결성된 향사회 창단멤버로 지역 음악계에서 꾸준히 작품을 발표해왔다. 그동안 두 차례 향사회 회장을 지내기도 한 그는 많은 음악활동 중 1982년 이상근선생의 화갑기념으로 열린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주회에서 발표한 오케스트라를 위한 ‘울 82-6’과 2001년 영도구청소년오케

스트라 위촉곡 ‘오륙도 환상곡’을 잇을 수 없다. ‘울’은 당시 지휘자 박종혁의 배려로 직접 김종태 씨가 시립교향악단을 지휘하며 초연되어 감회가 남다르고 ‘오륙도 환상곡’은 청소년들을 생각하며 작곡한 곡이라 애착이 간다.

정년퇴임전 신도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한 그는 재임중 학교에 오케스트라를 창단해 학생들에게 음악의 즐거움을 일깨워 주었다. 중학교 오케스트라로는 드물게 KBS 부산홀에서 공연을 가질 정도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신도중학교 오케스트라는 일본의 失作北中學校와도 교류를 하며 한일간의 우정을 쌓고 있다.

김종태씨는 3월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베토벤 탄생 236주년을 맞아 두 음악가의 혼이 깃들어있는 빈 여행길에 오를 계획이라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다. 짧은 생애 동안 어떻게 그렇게 많은 위대한 명작들을 남겼는지 세삼 놀랍다는 그는 위대한 예술가들의 삶이 있는 음악의 도시에서 위대한 예술가들의 숨결을 느끼고 새로운 음악의 기운을 느끼고 싶다.

# 득음(得音)과 덕음(德音) 그리고 익음(溺音)

강성일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우리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큰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득음(得音)이다. 그러나 득음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대개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 혹시 말하더라도 판소리를 하는 소리꾼이 쓰는 말 정도로 설명하거나, 또는 음악을 마음껏 구사하는 능력으로 표현하곤 한다. 그렇다면 국어사전에는 무엇이냐 말할까? ‘노래의 곡조가 썩 잘되어 아름다움’이라 쓰여 있다. 이와 같은 대답이 틀린말은 아니나, 그 이상도 이하도 다른 답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득음에 대하여 위와 같이 말하는 이유는 아마 신재효(1812-1884)의 광대가 때문이 아닌가 싶다. 신재효는 조선 말기 고종 때 사람으로 가뭄에 닥친 어려운 백성을 도와 통성대부, 가선대부, 절충장군이란 명예 관직을 받았을 뿐 아니라, 판소리 여섯마당을 수집 정리한 분으로 유명하다. 그는 광대가에서 소리꾼이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으로 인물·사설·득음·너름새로 네 가지를 꼽고 있는데, 이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광대라 하는 거시, 제일은 인물(人物)치레, 둘째는 사설(辭說)치레, 그직차(之次) 득음(得音)이요, 그 직차(之次) 너름새라.

너름새라 하는 거시 귀성 지고 몹시 잇고, 경각(頃刻)의 천태만상(千態萬象), 위선위귀(爲仙爲鬼) 천변만화(千變萬化), 좌상(座上)의 풍류호걸(風流豪傑) 귀경하는 노쇼 남녀(老少男女), 울게 하고 웃게 하는, 이 귀성 이 몹시가, 엇지 아니 어려우며,

득음(得音)이라 하는 거슨, 오음(五音)을 분별(分別)하고, 육률(六律)을 변화하여, 오장(五臟)에서 나는 소리, 농락(弄樂)하여 조아닐제, 그도 또한 어렵구나.

사설(辭說)이라 하는 거슨, 정금미옥(精金美玉) 조흔 말노, 문명하고 완연(宛然)하게, 식색(色色)이 금상첨화(錦上添花), 칠보단장(七寶丹粧) 미부인(美婦人)이, 병풍 뒤의 나셔난듯, 삼오야(三五夜) 발근 달이, 구름 박긔 나오난 듯, 시눈 뜨고 웃게 하기, 더단니 어렵구나.

인물(人物)은 천성(天生)이라 변통(變通)할 슈 업건이와, 원원(元元)한 이 속판니, 소리흔는 법례(法例)로다.(이하 생략)

광대가에 보듯 신재효는 득음을 ‘오음(五音)을 분별(分別)하고 육률(六律)을 변화시켜 오장(五臟)에서 나는 소리로 농락(弄樂)하여 죄어내는 듯 음악에서 묘한 경지에 이르는 것’이라 하였다.



득음(得音)은 우리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바람이다.

그러나 득음은 덕음(德音)에서 나온 말이다. 덕음이란 악기의 첫 번째 편명인 악본(樂本)에서 '예악개득(禮樂皆得) 위지유덕(謂之有德)이니 덕자(德者)는 득야(得也)'라 하였다. 덕은 스스로 얻는 것으로 터득을 말하는데, 득을 사전(字典)에서 찾아보면 득(得)과 덕(德)으로 나누어지고, 득은 '덕과 통한다' 하였다. 또 덕(德)의 고자(古字)는 덕(惠)으로 곧은 마음, 올바른 마음이란 뜻을 갖고 있다.

그런데 악기의 덕음은 <시경> '대아(大雅)'의 '황의(皇矣)' 중 '맥기덕음(貊其德音)'에서 비롯되었는데, 그 요체는 청정(淸靜)과 옳고 그름을 가려(克明克類) 실행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유가에서는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을 내걸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덕이라 했고, 도가에서는 무지(無知), 무욕(無慾), 무위(無爲)에 처신하는 것을 덕으로 여겼다. 다시 말하면 어짐, 의로움, 예절, 지혜, 믿음이 유가의 덕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하는 무지와 사심 없이 하는 무욕과 겉으로 포장하지 않는 무위가 도가의 덕이다.

그런데 덕음과 반대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익음(溺音)'이다. 익은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는 모습으로, 익음이란 음악에 빠져서 본래의 참된 뜻을 잊고 덕을 해치는 것을 말한다.

악기의 위문후 편에는 익음을 4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첫째는 '음지(淫志)로 마음을 음란하게 하는 것'이요, 둘째는 '익지(溺志)로 마음을 흘러 빠뜨리게 하는 것'이요, 셋째는 '번지(煩志)로 마음을 번잡하게 하는 것'이요, 넷째는 '교지(喬志)로 마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라 하였다. 그래서 전통사회에서는 이런 익음의 음악은 제사는 물론 치도(治道)에서 철저히 제외시켰다.

그러므로 옛 사람들이 말하길 "악에 종사하는 사람은 악인(樂人)과 집사(執事) 그리고 악사(樂師)로 위계가 나누어지며, 또한 품계로서 악공(樂工), 악인(樂人), 악사(樂士), 악성(樂聖)으로 구분되는데, 악성(樂聖)은 익음이 아니라 득음을 행하는 자라, 곧 성인(聖人)을 말하니, 득음한 이를 어찌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 물고기의 눈

## - 신옥진의 그림 <산을 닮은 고기>

김형술 · 시인

새벽녘에 빗소리에 잠을 깨었다. '봄비다' 속으로 중얼거리며 잠깐 빗소리를 듣다가 다시 잠이 드는가 했더니 어느 새 나는 들관 한가운데, 구불구불한 논두렁을 따라 돌아 흐르는 실개천가에 앉아 있다. 산을 내려와 겨우내 잠 들었던 것들을 깨우며 흘러온 봄물은 개울 바닥이 다 비치도록 맑지만 손이 시리지는 않다. 오히려 상쾌한 온기를 개울물에 담긴 손등으로 전하며 조잘대는 봄 시내의 목소리가 귀를 간질인다. 개울가엔 어느 새 싹을 튀워 물 위로 반쯤 몸을 내민 온갖 수초들이 자리를 잡았고 물 속엔 물의 흐름에 몸을 맡긴 채 부드럽게 흔들리는 수초의 흰 실뿌리들이 가득하다. 그 수초들의 실뿌리 사이로 어린 물고기들이 논다. 버들치, 각시붕어, 피래미, 누치... 실핏줄이며 어린 뼈가 다 보일만큼 투명한 어린 물고기의 몸 속을 화안하게 밝히는 봄 햇살이 눈부시다. 누가 물 속에 황금빛 작은 등불 하나를 켜놓은 듯 하다. 미동도 없이 멈춰 서서 잠들었나 싶으면 또 어느 새 빠른 몸짓으로 움직이기를 반복하는 어린 꼬리며 이제 막 자라나는 얇은 비단같은 지느러미를 가진 어린 생명들은 지상의 순리에 순응하며 흐르는 물 그 자체이다. 아름답다.

2년 전에 <물고기가 온다>라는 제목을 가진 시집을 내었다. 왜 물고기냐고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지만 스스로에게 가끔 자문해보곤 했다. 세상의 하고많은 생명들 중에 왜 물고기냐고. 캔버스에 아크릴로 그린 화가 신옥진의 그림 <산을 닮은 고기>를 만나자 한동안 잊었던 그 질문이 되살아났다. 하지만 또한 왜 물고기냐고 묻고 싶지는 않았다. 물은 물, 고기는 고기, 그러니 어쩐지 어리석은 질문일 것같은 생각이 들어서였다. 잘 스며들거나 밀착하지 않는 아크릴 물감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난 캔버스 속 물고기의 몸 속엔 다양한 무늬들이 숨겨져 있다. 화가의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나는 그 도돌도돌한 요철을 가진 무늬가 물고기의 비늘같다고 느낀다. 일정한 방향을 가진 채 물고기의 몸을 덮고 있는 비늘은 한 마리의 물고기가 살아온 시간과 공간을 단적으로 설명해주는 지표이다. 늪을 지나왔으면 늪의 빛깔을, 심해의 거친 해류를 거쳐왔다면 소용돌이치는 물굽이의 무늬를, 속이 다 드러나 보이게 맑고 푸른 물결 속에서만 살았다면 순하디 순한 물빛의 비늘들을 물고기는 제 것으로 가질 터. 그러니 비늘은 물고기의 나이며 얼굴이며 영혼인 것. 그래서 울퉁불퉁 자유롭고 불규칙하게 굽히고 파인 캔버스 속 밑그림의 흔적들이 현실의 물고기가 가진 비늘이 아니라 물고기를 그린 사람이 제 살아온 시간의 이력만큼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흔적들, 존재의 비늘들일 것이라고 생각해버린다. 결코 쉽게 지워지거나 잊혀지지 않는 상처들, 추억들, 기억의 파편같은 것일 터라고. 그건 한 마리의 물고기, 혹은 한 사람의 인간 그 자신 밖에 감지할 수 없는 흔적들일 것이고 또한 그것들은 쉽사리 몸 밖으로 드러낼 수도, 드러내어지지도 않는 것 일 수 있다. 그래서

그림 속의 물고기는 제 몸의 절반, 제 영혼의 절반만 드러낸 것이지 않을까. 세상 모든 물고기의 몸이 산의 능선을 닮아있었다는 것을 그림에서 깨닫는다. 물고기의 몸이 물의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 그렇게 부드러운 선을 가졌듯 산의 몸 또한 바람과 구름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도록 만들어진 것이었구나. 어떤 물고기는 물의 흐름에 의지한 채 한 생애를 보내고 또 어떤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싸우며 평생을 보



신옥진 작 '산을 닮은 고기'

낸다. 어떤 산은 바람을 세상으로 내보내기 위해 낮게 엎드려 있고 또 어떤 산은 거친 바람을 막아서기 위해 세상 위에 높게 우뚝 서 있다. 물고기의 몸 속엔 세상의 모든 바다가 숨어있고 산의 몸 속엔 세상의 모든 바람의 길들이 깃들어 있으니 물고기의 형상이 산을 닮고 산의 능선이 물고기의 등을 닮아 있는 건 당연한 일이로구나. 죽어서도 눈을 감지 않는 물고기, 겨울에도 잠들지 않는 산은 동의어인 것 또한.

아무런 기억상처도 없는 투명한 몸을 가진 봄시냇물 속의 어린 물고기들에게 빼앗긴 마음을 깨우는 건 요란한 알람시계의 굉음. 눈을 부비며 일어난 아침에도 봄비는 여전히 소녀의 발걸음으로 창 밖을 지나가고 있다. 이 순한 봄비는 겨우내 몸을 웅크렸던 어린 물고기들을 알에서 깨어나게 할 것이다. 어린 물고기의 향기로운 몸내음이 느껴지는 봄비내리는 아침이 다정하다.



## 봄을 노래하자

김희진 · 영화감독

봄이 오면 만물이 기지개를 킨다. 겨우내 사용하지 않았던 근육을 푼다. 손끝으로 머리끝으로 상쾌함이 돌아난다. 콧소리가 진하고 긴 울음소리를 내뿜는다. 세상은 기지개 마다 한번씩 정지된다. 짧은 명상의 순간이 봄을 맞은 곳곳에 산들산들 바람을 만든다. 바람을 따라 전해지는 소식은 늘 그렇듯이 놀람과 흥분의 여지를 담고 있다. 자연은 잠시나마 활력과 충만의 기운으로 요동친다.

봄이 가져와 주는 놀라운 기운을 우린 희망이란 단어와 일치시킨다. 이전과는 다른 생활의 변화를 꿈꾸며, 사람들은 저마다 가볍게 흥분하고 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따뜻한 전갈을 보내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행복을 기원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이 가장 충만한 이 봄에 우린 저절로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스스로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가을부터 겨울을 넘기며 부산에서 촬영 되고 있는 영화가 일곱 편에 이른다. 물론 모두 로케이션 작품이다. 그 중 부산 작품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쉽지만 부산의 겨울을 견디고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봄을 맞이하게 되는 영화 제작진들이 부산의 봄을 따뜻하게 기억하길 바란다. 유달리 추웠던 이번 겨울은 부산이 남쪽 지방이라는 생각에 의구심을 갖게 했을 것이다.

긴 시간 부산에서 올 로케를 진행한 <사생결단>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 막바지 촬영 중이니 이 글이 읽힐 때쯤엔 모든 촬영이 끝났을 것이다. 야간 촬영이 많고 야외 촬영이 많아서 고생이 많았을 것이다. 부산이 배경으로 확연히 드러나는 작품이라 부산의 연기자들을 많이 필요로 했던 작품이기도 하다. <사생결단> 속에 등장하는 부산 배우들의 활약이 기대된다. 그리고 좋은 평가와 함께 이후에 연기자로서 좋은 기회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현재 6편 가량의 작품이 봄 시기에 부산 촬영을 준비 중에 있다 한다. 이중 100% 부산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도 몇 편이 되는 것 같다. 이제 길거리에서 심심찮게 촬영 팀을 만나는 일이 더 흔해지고 있다. 부산에서 촬영을 많이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부산의 연기자들과 영화인들에게 활동 기회가 생긴다. 물론 그 역할이나 기회의 폭이 한정적이긴 하지만 꾸준히 이런 관계가 유지된다면 희망을 가져 볼만도 하다.

어떻게 결론이 지어졌을지 모를 스크린쿼터 축소는 봄이 오기 직전에 마지막 들이닥친 한파였다. 결국 축소로 귀



결된다면 이 봄은 진짜 봄이 아니요, 우리의 봄이 아닐 것이다. 주체적 결정이라고는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는 쌀에 이어 우리의 문화까지 저당물로 내어 놓았다. 문화가 상업 논리 속에 위치지어졌을 때 맞이하게 될 위기를 이제 몸으로 체험해야 한다. 아마 다음 겨울은 더 추워지지 않을 까 싶다.



현재 6편 가량의 작품이 봄 시기에 부산 촬영을 준비하고 있다.(사진은 부산에서 올 로케를 진행한 영화 '사생결단')

피프 광장에서 부산 영화인들이 작게나마 스크린쿼터의 축소를 반대하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했었다. 그 면면엔 올 한 해 부산에 뭔가 변화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이들이 있었다. 드러난 것이 없는 상황에서 계획만을 말한다는 것은 소모적이다. 한 달에 한 번 새 소식을 전하기에도 무리일거다. 뭔가 제대로 부각되고 그 결과가 확실한 일들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에 아직은 미약하다고 느낀다. 봄을 앞두고 찬바람을 맞으며 광장에 모인 이들이 올해는 대형 사고를 쳐주길 기대해 본다.

센텀시티에 위치한 영상벤처센터의 5층과 6층은 영화 관련 회사들의 사무실들이 모여 있다. 겨울을 보내는 이곳에도 많은 움직임이 있었다. 시나리오를 쓰고, 기획안을 작성하고, 연구와 조사를 하며, 촬영 준비와 후반 작업 등 각각의 사무실들은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넉넉한 살림을 유지하는 곳은 한 곳도 보이지 않았지만 서로가 도우며 겨울을 넘기고 있었다. 모이고 나누면 힘이 되고 의지가 된다. 흠어짐과 모임을 반복하며 부산에서 제대로 된 부산 영화를 만들어 내고 스스로 자신 있게 부산 영화인이라 얘기할 수 있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의 결과는 언젠가 이 봄처럼 문득 찾아 올 것이라고 믿는다.

봄이란 감사하다는 마음을 일깨운다. 힘들고 짜증나는 일의 끝에 맞이하는 포근함과 넉넉함은 분명 감사해야 할 대상이다. 게다가 봄이 파생시키는 수많은 생명의 가지들은 현실과 상상의 세계, 모두에서 영향력을 가진다. 가장 생동이 넘치고, 모든 일에 자신감이 붙는 시기가 봄인 것 같다. 머리 속에, 가슴 속에 움켜 두었던 생각과 마음을 이제 펼칠 때이다. 봄에 갖게 되는 모든 꿈과 이상은 다음 겨울을 잘 지내기 위한 과정의 첫 시작이다. 부산 영화의 미래를 잘 만들어 나가기 위해 모두들 이 봄에 넉넉한 희망과 건강한 계획을 가지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

# 신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 - 〈사람의 아들〉

변미선 · 연극배우, 부산대 강사

[조동팔] (얼굴을 민요섭의 다리에 부비며 환연히 울먹인다) 선생님, 다시 한번 엮드려 빕니다. 돌아가십시다. 많은 불행한 형제들이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지금까지의 모든 신들이 외면해 온 그 일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요섭] (잠시 조동팔을 내려다본다) (곤혹과 연민이 묘하게 얽힌 표정, 혼잣말처럼) 처음부터 너와의 결합을 피하려고 애쓴 것은 바로 이런 결과에 대한 예감 때문이었다. (잠시 침묵, 이미 단호하게)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나는 이미 아무것도 네게 줄 것이 없다. 조곤, 쓸쓸하겠지만 홀로 가라.

청소년 시절에 읽으면 머리가 쭈뼛해지고 가슴이 불끈해지는 소설들이 있다. 그중의 하나가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이다. 이문열은 대중적인 인지도를 갖춘 문학가 반열에서도 광범위한 사회현실과 역사인식을 담은 현대문학을 펴나가는 몇 안되는 작가 중 하나다. 특히 그의 알레고리적 성향의 소설들은 거대담론을 축약시켜 주제의식과 흥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보듬는 효과를 낸다. 이 때문에 그의 소설들은 연극에서 각색의 대상으로 우선순위에 오른다.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은 소설을 연극으로 공연하는 대표적인 경우이고, 그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선택〉 등이 연극작품으로 공연되어진다. 이외에도 황석영의 〈한씨 연대기〉, 〈손님〉, 공지영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봉순이 언니〉, 김형경의 〈새들은 제 이름을 부르며 운다〉 등의 한국작품이 있고,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소설을 모노드라마화한 〈콘트라베이스〉, 구리 료헤이의 〈우동 한 그릇〉, 조반니노 과레스끼의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 등의 외국작품이 있다.

소설을 연극으로 각색하여 공연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 먼저 연극은 시공간적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설에서 나오는 무한정한 장소와 인물을 축약해야 한다. 두 번째로 시점의 변화가 있다. 소설은 객관적인 3인칭 작가시점 혹은 작가의 인생관이나 사상이 직접 드러나는 주관적인 전지적 작가시점인 경우가 많다.

반면에 연극은 작가의 해설이나 등장인물의 심리상태 등의 디테일한 부분의 묘사가 연기자의 연기와 대사, 그리고 조명, 음향 등 시청각적 효과로 대체된다. 이로 인해 작품을 해석해야 하는 관객의 몫이 커진다. 관객은 3인칭 작가시점에 가까우나 이보다 더 능동적인 위치에서 작품을 감상하게 된다. 〈사람의 아들〉은 소설에서의 전지적 시점이 연극에서는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전환되어 민요섭 살인사건을 수사해나가는 형사의 시점이 주가 되고, 형사는 원작의 추리극 형식을 취하면서 작품을 축약하는 해설자의 위치를 담당한다.

이러한 차이점을 근간으로 했을 때, 소설을 연극화한 작품의 성공여부가 가려지는 결정적인 요소는 연극이라는

매체특성에 따른 시청각화에 있다. 연극에서 창조된 이미지가 소설을 읽을 때 독자의 상상 속에서 구성되는 이미지를 능가해야 한다. 이 경우 소설을 영화화했을 때나 요구되는 거창한 판타지나 미니멀한 극사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연극은 아날로그적이며 수공업적일 수밖에 없는 시공간 속에서 연극적 상징과 상상으로 재구성된다.

특히 이상에서 언급한 소설의 경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설의 연극화는 연극적 형식적 창조에 초점이 맞춰지기 보다는 서사나 심리묘사에 작품의 관심이 모아진다. <사람의 아들>의 경우에도 기독교적 종교개념을 주제로 한 이데올로기와 신념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무대장치 없이 배우의 연기가 주축이 되어 사건이 진행된다.

<사람의 아들>에서는 화자로서의 형사를 제외한다면 민요섭과 조동팔이 작품의 주인공이 된다. 이 작품은 그 핵심이 인간중심적 시각에서의 기독교적 반성임에도 불구하고, 종국에 민요섭이 기독교로 회개함으로써 작가의 종교적 입장은 다양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종교적 문제를 떠나서 이념적 차원의 두 인물유형을 생각해보자.

민요섭은 아하스 페르츠라는 기독교 이단자의 이념을 조동팔에게 전수하는 스승의 입장이다. 어느 시대건 다양한 이념은 존재한다. 그러나 그 실천의 방법이 항상 문제의 발단이 된다. 민요섭은 일본의 한 실천신학자에게서 이념을 전수받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사상의 재고와 실천의 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하는 심사숙고형 인물이다. 그러나 조동팔은 민요섭의 이념에 온전히 감화되어 현실사회에 적합한 이념실천의 방법모색도 없이 단순해석으로 성급하고 무분별한 실천을 감행하는 맹목적 인간형이다.

두 인물 바라보기를 뒤집어 보자. 민요섭은 이념의 실천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류를 인정하지도 못하고 수습하지도 못할 만큼 그의 이념은 확고부동하지 못했다. 그는 살얼음과도 같은 유약한 이념의 소유자이며 회의주의자다. 조동팔은 비록 오류를 범할지언정 사회적으로 고착된 규범마저 뛰어넘을 만큼 순수이념의 소유자이며 행동주의자이다.

인물유형에 있어서도 이 작품의 종교적 입장만큼이나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전자의 해석이건 후자의 해석이건 그 결정은 무대연출의 시청각적 강조와 연기자의 인물해석과 그 표현 선상에 놓인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결정은 능동적 관찰자로서 입장을 지니게 된 연극관객의 해석이다. 문학비평가 코울릿지의 개념을 빌리자면, 이러한 관객의 입장은 자신이 직접 겪을 수도 있는 인간경험에 대한 감정이입, 그리고 예술작품에 대한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는 심미적 거리, 이 두 가지의 이중감각에 의한 인간적인 '신의 눈'으로 작품을 바라보는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2006년 1월 22일까지 극단 사계가 오랫동안 부산무대에서 선보였다.



##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사랑방 문화공간 백양산

대도시 생활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생활문화공동체를 꿈꾸는 문화공간 백양산은 당감동, 부암동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 사랑방이다. ‘제대로 된 동네문화’를 한번 일으켜보겠다는 생각으로 지난 2004년 8월 문을 연 문화공간 백양산은 현재 대표인 노용명씨와 부인 김향진씨, 이상현씨, 박해경씨 등이 그 뜻을 모아 운영해오고 있다.

“우리 모두가 문화의 주체가 되어 작지만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생활속의 문화를 펼치기 위한 첫 출발점이 바로 이 곳 백양산”이라는 대표 노용명씨. 지역문화공동체의 싹을 틔울 적당한 지역을 찾다가 눈에 들어온 곳이 바로 이곳 백양산 산자락의 당감, 부암동 지역이었다는 그는 3년 전만 하더라도 낯설기만 하던 이 곳이 이제는 그에게도 없어서는 안될 삶의 터전이 되어버렸다.

문화공간 백양산에서는 지역주민과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강습회를 열고 있다. 풍물, 단소, 가야금, 소리 등 우리의 전통악기 강습 외에도 다양한 문화강좌가 열리고 있는데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당감동, 부암동 지역 어린이들은 전통악기를 배우고 전래놀이도 즐기는 방학특강 및 캠프를 통해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배워나가고 있다.

지난해까지 유아를 대상으로 한 놀이교실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방과후 교실도 함께 운영해온 백양산은 3월



자라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문화공간 백양산은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오는 3월 교육공동체 '캥마쿵쿵' 어린이집을 개관한다.



대도시 생활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생활문화공동체를 꿈꾸는 문화공간 백양산은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고 함께 즐기는 마을 축제를 꾸준히 열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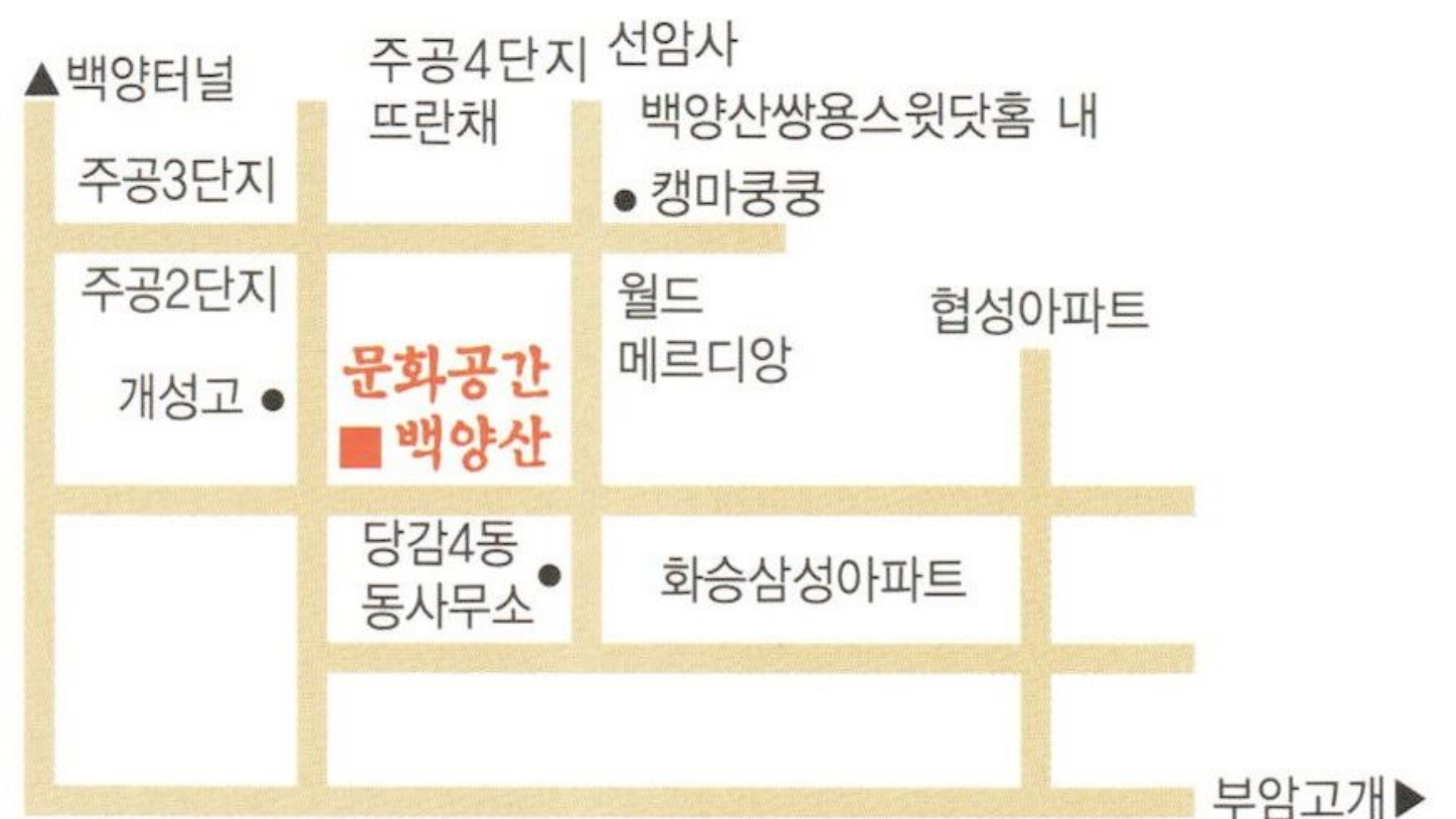
부터는 한걸음 더 나아가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공동체 '캥마쿵쿵'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지역주민 30여 명의 공동출자로 문을 연 '캥마쿵쿵' 어린이집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

캥마쿵쿵은 예천 통명민요의 한 구절에서 유래한 말이다. '캥마'라는 매구소리와 '쿵쿵'이라는 북소리가 합쳐진, 신명나는 그 어감이 좋아 '캥마쿵쿵'으로 정한 노용명씨는 앞으로 생활터전 주변 산책을 통해 우리동네 나무와 풀과 꽃을 알아가는 생태나들이, 땀흘리는 노동을 위한 텃밭가꾸기, 나를 다스리고 내면의 힘을 키우는 명상 등 일반 어린이집과는 차별화되는 '캥마쿵쿵'만의 생활속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일주일 3일에서 5일로 확대 운영되는 '방과후 교실'에서는 우리나라 절기와 세시풍속을 중심으로 몸짓놀이, 말놀이장단, 탈놀이 등을 단계별로 배워보는 '신나는 놀이교실'과 자연과 함께하는 '미술놀이', 신나는 상상과 몸짓으로 만들어가는 '연극놀이', 자기 생각과 세상보는 눈을 넓혀주는 '이야기놀이' 등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교육프로그램 외에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고 함께 즐기는 마을축제도 꾸준히 열어온 문화공간 백양산은 1월 백양산 정상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새해맞이 행사를 시작으로 2006년에도 가족과 함께하는 화전놀이(3월),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는 생명살림 단오굿 놀이(5월), 다함께 만드는 거리문화제(7월) 등 우리의 고유행사를 연계한 다양한 마을행사를 펼쳐나갈 예정이다. 최근에는 마을축제로 거듭난 학교운동회,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하는 아파트 문화제,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나눔의 알뜰장터 등 지역주민을 위한 판이 벌어지는 곳에서 문화공간 백양산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노용명씨는 앞으로는 지역의 문화단체와 학교, 지역주민들과 연계하여 지역주민 모두가 주체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당감동, 부암동만의 지역 문화 축제를 만들고 싶다.



## 삶의 활력을 가져다 준 플룻사랑 아르모니 플룻앙상블



티없이 맑은 음색으로 누구나 한번쯤은 배워보고 싶어하는 악기 플룻. 우아하면서도 영롱한, 그러면서도 화려한 음색으로 일반인들에게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플룻은 처음 배우기는 싶지만 일단 배우면 더 이상 늘지 않는 어려운 악기이기도 하다.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등 리드를 통해 소리를 내는 다른 악기에 비해 순전히 연주자의 호흡에 의해 소리를 내는 플룻은 그래서 '노래부르는 악기'라 불릴 만큼 연주자의 열정과 맞닿아 있다.

'하모니'의 불어로, 아름다운 앙상블

을 내고자 하는 회원들의 의지를 담은 플룻앙상블 '아르모니'는 아마추어 플룻연주단체이다. 지난 2001년 부산플루트페스티벌 무대에 오르면서 '아르모니' 이름으로 첫 발을 내딛었지만 실제적으로 모임을 만들어 활동한 지는 햇수로 10년이 넘는다.

태화백화점(현 주디스태화백화점) 문화센터 수강생으로 인연을 맺은 아르모니 회원들은 문화센터가 문을 닫은 후에도 꾸준한 모임을 통해 실력을 연마해오고 있다. 현재 아르모니 플룻앙상블은 플루티스트 정옥경을 지도교수로 이현정, 김경희, 류정주, 김미, 황미성, 윤형숙, 문성민, 이영주, 옥명자 등 회원 10명이 활동하고 있다.

학창시절 플룻의 고운 음색에 반해 덩싹 악기부터 구입했다는 이현정씨. 정작 세월이 흐른 후에야 문화센터 수강생으로 학창시절 못다이룬 꿈과 만난 그는 현재 아르모니 플룻앙상블의 악장을 맡고 있다. 플룻의 선율에 빠져 연주를 하다보면 모든 스트레스가 해소되면서 삶의 활력소를 느끼게 해준다는 그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처럼 플룻의 고운 음색에 빠져 보라며 플룻감상을 적극 권한다.

회원 황미성씨 역시 문화센터 수강생으로 아르모니와 인연을 맺었다. 한 때는 힘들어 포기

할까도 생각했지만 아르모니 활동을 통해 잘 이겨냈다는 그는 문화센터 시절부터 지도를 맡아준 플루티스트 전미경, 정옥경씨의 열정 또한 아르모니 활동에 큰 힘이 되어주었다고.

지인의 권유로 개인레슨을 받으면서 플룻과 인연을 맺은 이영주씨. 플룻을 처음 잡은 당시만 하더라도 하루에 서너시간씩 연습할 정도 플룻의 매력에 푹 빠졌다는 그도 지난 1998년 문화센터 수강생으로 등록하면서 아르모니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아르모니 플룻앙상블은 매주 토요일 레슨을 겸한 정기모임을 갖는다. 단원들 대부분이 직장인인데다 대부분이 기혼이라 다들 시간내기가 힘들지만 멀리 거제도, 양산에서도 찾을 만큼 플룻에 대한 열정은 대단하다. 앙상블 연주단체이니만큼 아르모니 플룻앙상블에서는 단원들과 더불어 앙상블을 낼 수 있는 연주실력을 갖춘 회원들을 오디션을 거쳐 뽑고 있다.

2003년부터는 데뷔무대를 가진 부산플루트페스티벌에 매년 참가해온 아르모니 플룻앙상블은 지난 2004년에는 아르모니 플룻앙상블의 이름을 걸고 창단연주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창단연주회 이후 단원들이 소속감을 느끼게 되면서 결속력과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는 아르모니는 단장과 악장을 선임하는 등 아마추어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연주단체로서 체계적인 틀을 갖추어나가고 있다.

아르모니 플룻앙상블은 정기연주회 외에도 삼랑진 화요음악회(2004년 8월), 부산거성교회 음악회(2004년 11월), 거제 신현교회 연주회(2005년 12월) 등에도 초대받아 꾸준히 무대에 서고 있다.

“플룻 인구의 숫자가 늘면서 앙상블 연주단체도 늘어나고 있지만 꾸준히 명맥을 이어가는 실력을 갖춘 연주단체는 열손가락을 꼽기 힘들다”는 이현정 악장. 지금은 정기연주회에 가까운 지인들만 찾고 있지만 앞으로는 음악매니아들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단원 모두 실력향상에 주력할 계획이다.



단원들 대부분이 직장인인데다 기혼이라 다들 시간내기가 힘들지만 매주 토요일 레슨을 겸한 정기모임에는 빠짐없이 참가해 화음을 맞춘다.

# 단소(短簫) 불어보기<3>

채수만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3월, 생명이 보이고 희망을 갖게 하고 내일이 보고 싶어지는 시작의 계절이다. 단소를 불어보고 첫 소리가 날 때 새로운 분야에 젖은 그 기분을 계속 간직하며 행복도 불행도 모두 마음 먹기 나름이라는 선각자의 깨달음처럼 선한 바람으로 새로움에 대한 기대를 가져보자.

정간보를 읽다 보면 여러 가지 부호를 만나게 되는데 이를 악상기호, 장식음, 부호라고 한다. 새로운 곡을 만날 때마다 하나씩 외우면 정간보가 더욱 쉬워질 것이다.

### ※ 악상기호와 장식음 및 부호

#### ★ 악상기호

- \* < (숨 표) 숨을 짧게 쉬라는 표.
- \* △ (쉽 표) 시가만큼 쉬라는 표.
- \* ▼ (꿇는 표) 소리를 짧게 끊어서 내는 표.
- \* } (요 성) 소리를 흔들어서 내는 표.
- \* ㅂ (늘임 표) 본래의 시가보다 두배정도 늘이는 표.
- \* ) (홀림 표) 소리를 홀려 내리는 표.
- \* \ (미는 표) 소리를 밀어 올리는 표.
- \* v (특강 표) 그 음만 특별히 강하게 내라는 표.
- \* l, • (덧길이, 반길이표) 시가를 가감(加減) 하는 표.
- \* zz, k (반복 표) zz표가 붙은 자리에서 k표가까지 반복 하라는 표.

#### ★ 장식음 (꾸밈음)

어느 한 음정 옆에다가 여러 가지 기호를 붙여서 앞 꾸밈음 역할을 하느것.

- \* ㅅ (니 레) 한음 위음 짧게, 본음을 길게 내는 표. 

潢ㅅ	→	汰潢
----	---	----
- \* ㅆ (니 라) 두음 위음 짧게, 본음을 길게 내는 표. 

林ㅆ	→	潢林
----	---	----
- \* ㅈ (노 네) 한음 아래음 짧게 본음을 길게 내는 표. 

汰ㅈ	→	潢汰
----	---	----
- \* ㅊ (너 네) 두음 아래음 짧게 본음을 길게 내는 표. 

神ㅊ	→	潢神
----	---	----
- \* ㅊ (노 니 르) 본음과 한음위를 짧게 본음을 길게 내는 표. 

潢ㅊ	→	潢汰潢
----	---	-----

- \* ㅊ (네 로 네) 본음과 한음아래를 짧게, 본음을 길게 내는 표. 

汰ㅊ	→	汰潢汰
----	---	-----
- \* ㅊ (나 니 르) 한음아래 한음위를 짧게, 본음을 길게 내는 표. 

汰ㅊ	→	潢神汰
----	---	-----
- \* ㅊ (노 니 르) 두음아래 한음위를 짧게, 본음을 길게 내는 표. 

潢ㅊ	→	林汰潢
----	---	-----
- \* ㅊ (느니 르) 한음아래 짧게, 본음 길게, 한음아래를 짧게. 

汰ㅊ	→	潢汰
----	---	----
- \* ㅊ (니루 니) 한음위 짧게, 본음 길게, 한음위를 짧게 내는 표. 

潢ㅊ	→	汰潢
----	---	----
- \* ㅊ (나 니 나) 본음 한음위 본음을 같은 시가로 내는 표. 

潢ㅊ	→	潢汰潢
----	---	-----
- \* ㅊ (나 느 나) 본음 한음아래 본음을 같은 시가로 내는 표. 

汰ㅊ	→	汰潢汰
----	---	-----
- \* ㅊ (느로니르) 본음 한음아래 한음위음을 짧게, 본음을 길게. 

汰ㅊ	→	汰潢神汰
----	---	------

#### ★ 부호 (符號)

단소의 복잡한 가락을 악보위에 전부 기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호를 집어넣어 그음을 대신하는 역할을 한다. 장식음과는 달리 제시가를 가지고 있다.

- \* ㄱ (노) 한음 아래음을 시가만큼 낸다. 

汰	→	汰
---	---	---
- \* ㅋ (로) 두음 아래음을 시가만큼 낸다. 

潢	→	潢
---	---	---
- \* ㄴ (니) 한음 위음을 시가만큼 낸다. 

潢	→	潢
---	---	---
- \* ㄷ (리) 두음 위음을 시가만큼 낸다. 

潢	→	潢
---	---	---
- \* ㄴ (니 나) 한음 위음과 본음을 같은 시가로 낸다. 

潢	→	潢
---	---	---
- \* ㄷ (느 나) 한음 아래음과 본음을 같은 시가로 낸다. 

汰	→	汰
---	---	---
- \* ㅅ (노 라) 한음 아래음과 두음 아래음을 같은 시가로 낸다. 

神	→	神
---	---	---
- \* ㅆ (니 르) 한음 위음과 두음 위음을 같은 시가로 낸다. 

潢	→	潢
---	---	---
- \* ㄴ (니레나) 두음위 한음위 본음을 같은 시가로 낸다. 

潢	→	潢
---	---	---
- \* ㄴ (니로나) 한음위 본음 한음 아래음을 같은 시가로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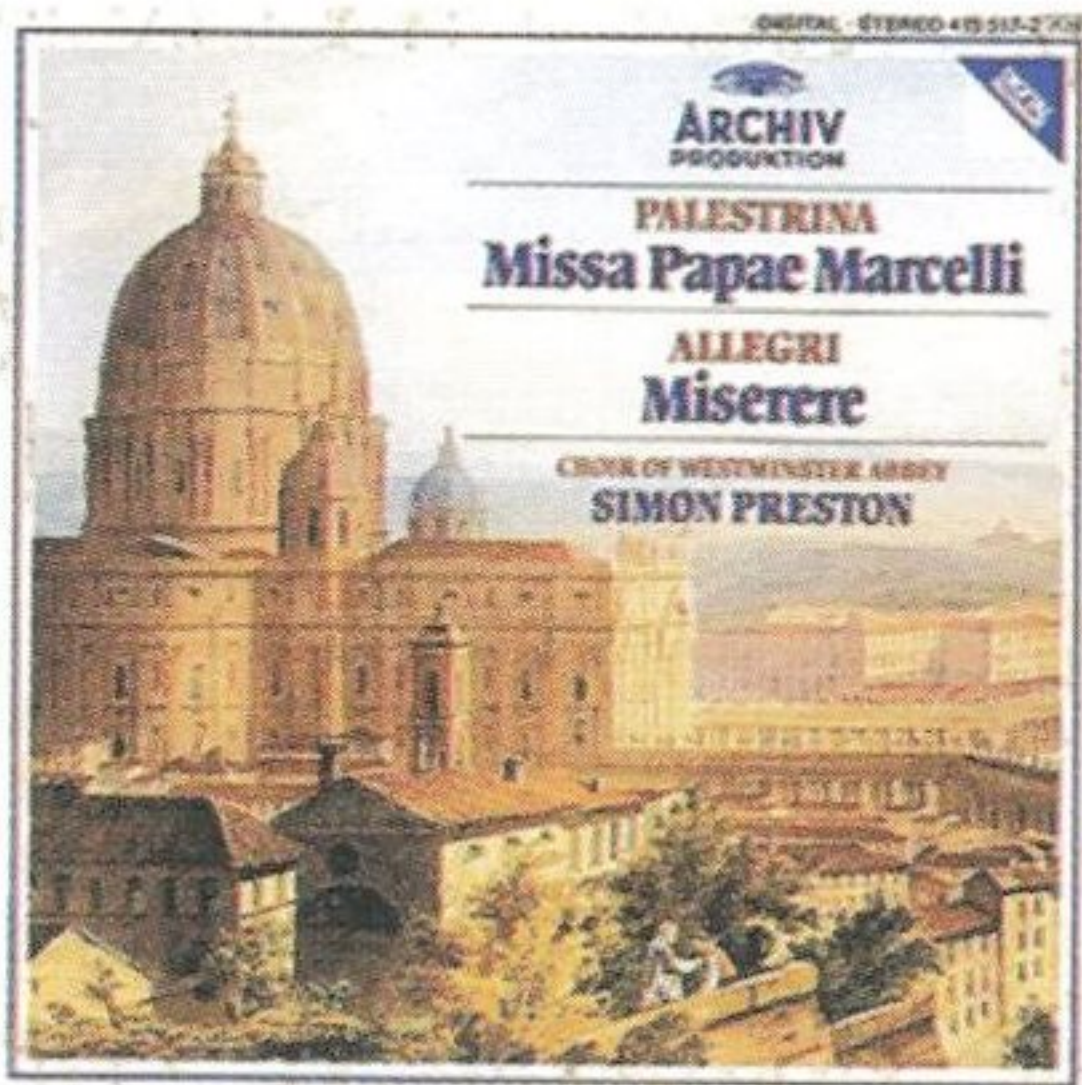
汰	→	汰
---	---	---





# 미제레레 메이 (Miserere Mei,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곽근수 · 음악평론가, 부산시립교향악단 해설자



17세기에 활약한 로마 태생의 작곡가 알레그리(Gregorio Allegri, 1582-1652)가 남긴 작품은 많지 않다.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의 영혼 깊숙한 곳을 파고들며 인간사의 잡티를 씻어주는 교회음악 ‘미제레레 메이(Miserere mei)’는 그를 저명한 교회음악 작곡가로 우뚝 세운 작품일 뿐 아니라 로마 교황청 성가대의 가장 신비로운 음악으로 비전(秘傳)된 작품이기도 하다.

이 곡은 수난주간인 성(聖)주간의 테네브레(Tenebre)의 끝에 불리던 음악으로 성 금요일을 위한 곡이다. 테네브레란 성주간의 저녁 예배로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 촛불을 하나씩 꺼나가며 나중에는 완전한 어둠 속에 마치는 형식이다. 미제레레 메이는 예배의 끝에 불리던 곡으로 이 곡이 노래될 때는 교황과 추기경들은 제단 앞에 꿇어 엎드린 채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하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알레그리가 이 곡을 쓴 것은 1638년이였다. 이후 매년 수난절마다 연주되었고 교회는 이 곡이 교황청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금하였다. 따라서 이 곡을 듣기 위해서는 오로지 씨스틴 성당에 가는 방법 밖에는 없었다. 미제레레 메이의 악보는 1770년 영국의 음악학자 찰스 버니를 통해 교황청의 다른 악보들과 함께 세상에 처음 소개되어 알려졌다. 그러나 이미 1700년대 중반에 여러 사본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사본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와 관련된 일화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1770년 4월 11일, 당시 이탈리아에 여행 온 13살의 소년 모차르트가 아버지와 함께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베풀어진 성주간의 테네브레에 참가해서 씨스틴 성당 성가대가 노래하는 이 곡을 듣고 암보해서 그대로 사보한 사건이다. 이를 뒤 다시 성당으로 가서 성가대가 노래하는 이 작품을 듣고 자기 필사를 일일이 확인했다고 한다. 소년 모차르트의 놀라운 기억력과 천재적인 음악적 감수성을 이야기할 때 흔히 등장하는 일화이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경이적일 만큼의 놀라운 것은 아니라고 한다. 실제로 이 곡은 똑같은 부분이 다섯 번이나 반복되고 5성합창과 솔로그룹은 화성적 찬트로 되어 있어서 진행이 비교적 단순하다. 따라서 찬트 부분은 간단히 해결될 것이고, 문제는 복잡한 장식음이 가미된 솔로그룹의 4성부인데 이 역시 화성적 찬트 형식과 다성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나뉘어 있는데다가, 화려한 선율로 된 부분은 길지가 않다. 이 부분에 특히 집중하면 음악적 특성을 꿰뚫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크게 어렵지 않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소년 모차르트의 그 정확한 필사는 여전히 경이로운 사건임에 틀림이 없다. 그게 어디 아무나 가능한 일인가?

## ■ 추천 음반

런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성가대(지휘/사이먼 프레스톤)

런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성가대(지휘/제임스 오도넬)

## 새봄 오페라의 향연에 초대합니다

오페라 연출가 **김성경**



부산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펼치고 있는 오페라 연출가 김성경(37) 씨. 3월 10일 막이 오르는 가면무도회를 비롯 현재 김성경씨가 진행중인 작품은 모두 네편. 김성경씨를 이야기 할때 항상 부산 유일의 전문 오페라 연출가 라는 수식어가 따른다.

김성경씨와 오페라와의 인연은 음악대학 재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태리 배낭여행중 이태리 스칼라극장에서 오페라를 감명깊게 본 그는 공연을 만드는 메카니즘에 매력을 느끼게 되어 연출 장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에 돌아와 음대 공부 외에 미술과 연극분야의 기초 공부를 한 뒤 대학 졸업후 이태리에 유학하여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였다. 그룹 활동을 통한 시나리오 분석과 무대장치, 조명공부는 무대 메카니즘을 알게 해주는 게 바탕이 되었고 퍼스먼

스와 연극, 전시회를 많이 보러 다니면서 얻은 다양한 경험이 지금도 많은 도움이 된다.

김성경씨는 지난해 오페라 제작소 밤비니를 창단해 부산 오페라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밤비니는 기존의 그랜드오페라가 주는 웅장함보다는 누구나 즐겨볼 수 있는 가족단위의 오페라를 만들자는 개념에서 출발했다.

“처음 시도한 가족오페라 마술피리 공연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과 공연장을 찾는 것을 보면서 관객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좋은 공연을 만들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요즘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돈키호테’ ‘로미오와 줄리엣’ 등을 이 시대의 분위기에 맞게 각색하고 있는 김성경씨는 앞으로 한국전래동화를 바탕으로 한 아동용 창작오페라물도 시도해 보고 싶다. 그는 부산이 국제 해양도시로 더욱 성장해 좋은 연출가와 가수, 전문인력이 지역에서 양성되어서 부산에서도 국제적인 공연물을 선보이고 싶은 것이 오페라 연출가로서 가지는 가장 큰 바람이다.

# 봄과 함께 찾아오는 오페라의 향연

— 비밀결혼, 가면무도회, 버섯피자, 피가로의 결혼 —



오페라 '비밀결혼'

음악 공연 비수기인 겨울을 지나 봄을 맞으며 지난 겨울 시즌동안 준비한 오페라들이 대거 무대에 오른다. 3월과 4월에만 네편의 오페라 작품이 무대에 올라 오페라를 자주 만날 수 없는 오페라 애호가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3월에 막이 오르는 작품은 오페라단 가야와 에코폴리스 오페라단이 함께 준비한 치마로자의 오페라 '비밀결혼'과 꼬레아 오페라단의 베르디 걸작 오페라 '가면무도회', 현대오페라의 대표적 작곡가인 세이무어 바랍의 '버섯피자' 세 작품. 특히 이 작품들은 부산에서 처음으로 제작된 오페라로 작품마다 오페라사에 획을 긋는 중요한 작품들이다.

3월 9일 금정문화회관에서 제일 먼저 막이 오르는 오페라단 가야와 에코폴리스 오페라단의 '비밀결혼'은 일반적인 오페라와 달리 연극적인 대사가 많아 극의 이해가 쉬운 뮤지컬 같은 오페라로 18세기에 크게 유행했던 오페라 부파의 대표작이다.

오페라를 처음 접하거나 친숙하지 않은 관객들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오페라로 오페라의 재미를 선사하기 위해 오페라단 가야와 에코폴리스 오페라단이 의욕적으로 준비한 이번 무대는 몰래 결혼한 한 쌍의 연인을 둘러싼 좌충우돌 해프닝을 유쾌하게 표현했다. 신분상승을 꿈꾸며 자신의 딸을 귀족과 결혼시키려는 상인 제로니모, 지참금에 흑해 상인 제로니모의 집을 찾은 백작 로빈슨, 이미 몰래 비밀결혼을 한 둘째딸 카롤리나, 카롤리나의 비밀결혼 상대이자 아버지의 서기인 파올리노, 백작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동생에게 관심을 보여 속상한 언니 엘리제타, 비밀결혼을 한 파올리노를 짝사랑하는 두 자매의 고모 피달마 등 출연진의 개성이 강한 희극적인 오페라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이재란, 김미정, 김민정, 김나영, 김한나, 황혜진, 임혜정, 서주연, 장은미, 이하정, 김나영,

곽성섭, 조승흠, 김철수, 황성학, 최성규, 고영호, 배재진 등이 출연, 16일까지 8일간 총 8회의 공연을 가진다.

꼬레아 오페라단은 오페라 연출가 김성경의 연출로 3월에 두편의 작품으로 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3월 10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막이 오르는 '가면무도회'는 베르디의 오페라 중에서도 더 극적인 대비가 뚜렷한 작품이다.

'테너의 오페라'라고 불리기도하는 가면무도회는 스페인 국왕 구스타프 3세 암살사건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오페라화한 것으로 유명 아리아의 절반 정도가 테너에 집중되어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테너 이철성, 윤정윤, 김화정, 김지호가 매력적이면서도 호소력 짙은 음성과 표현력이 뛰어난 리카르도로 출연하며 이외에도 전이순, 김란수, 우명화, 이윤정, 강희영, 강연희, 장은영, 노미숙, 김선미 등이 출연한다.

가면무도회에 이어 꼬레아 오페라단은 장소를 금정문화회관으로 옮겨 3월 20일부터 25일까지 현대오페라 '버섯피자'를 무대에 올린다. 19세기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한 '버섯피자'는 포르마쥬 백작과 부인 볼루피아, 볼루피아가 사랑하는 젊은 연인 스크피오, 백작을 흠모하는 하녀 포비아와의 사랑에 얽힌 이야기다.

볼루피아는 남편이 좋아하는 버섯피자에 독버섯을 넣어 남편 포르마쥬를 독살시키려는 계락을 세운다. 인간시대 벌어지는 만남, 사랑, 배신, 질투, 증오 그리고 죽음으로 이어지는 모든 해프닝을 코미디형식으로 표현한 '버섯피자'는 연극적인 요소와 아름다운 이태리 벨칸토 선율을 곁들여 오페라에 대한 흥미를 일으키게 하는 작품이다. 소프라노 김양자, 송윤경, 박은미, 장은영이 볼루피아를, 메조소프라노 박소년, 이지영, 성미진, 박소연이 포비아, 테너 김현식, 김정오, 김성현, 장진규가 스크피오, 바리톤 하병욱, 안영중, 김성복이 포르마쥬로 출연한다.

4월 6일부터 8일까지는 아지무스 오페라단이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을 맞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공연되고 있는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을 선보인다. 이번에 공연되는 '피가로의 결혼'은 10년만에 부산 무대에 올려지는 만큼 음악애호가들의 관심이 높다. 특히 '피가로의 결혼'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분석하여 코믹하게 재 각색했다는 손욱단장은 모든 아리아와 중창은 원어민 이태리어로 연주하며 한글대본은 자막 처리하여 관중들이 극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오페라 연출가 김성경이 연출을 맡고 박종휘가 지휘하는 이번 무대는 소프라노 허미경, 백선아, 신정순, 이한나킴이 백작부인을, 베이스 김도형, 박원한, 박용민, 최대우, 이정민이 피가로, 소프라노 김방술, 이정희, 황윤정, 임지아, 남순천 등 부산경남지역의 성악가 교수들이 합창단과 함께 대거 출연한다.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 부산시립미술관 2006년 첫 기획전



김덕기 작  
'사랑-당신은 나의 가장 큰 기쁨이요'



정건모 작 '두개의등'

## ■ 간이역-느리게 산다는 것

2월 28일(화)-4월 16일(일) 부산시립미술관 2층 대전시실

문장을 읽을 때 잠시 숨을 고르게 하는 쉼표처럼, 일상에서의 쉬어감을 의미하는 간이역과 같은 삶의 여유를 표현한 기획전 '간이역-느리게 산다는 것'은 김덕기, 박영균, 박영선, 서은애, 이영빈, 홍인숙 등 6인의 작가가 일상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성적인 휴(休)의 공간과 개인적인 休의 공간, 사회적 공간으로 자리잡은 休의 공간 등 물리적 감성적 공간을 작품을 통해 제시한다.

김덕기는 가족이라는 동질감에 대한 안도감이 가져다주는 가족주의 현상을 따사로운 시선으로 그려내며, 홍인숙은 가족 자화상을 통해 자신의 가족에 대한 기억을 담아낸다. 박영균은 상상적 일탈과 개인적 공간을 통해 샐러리맨의 일상탈출 욕구를 표현하며, 박영선은 경험한 일상이나 특정한 일상을 재조립하여 새로운 시간을 설정한다. 이영빈은 대중공간에서의 느낌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하며, 서은애는 가야금을 튕기며 트로트를 읊조리는 등 전통적 풍류에 현대적 감성을 연결시킨다.

## ■ 부산의 미술가들 2

2월 28일(화)-4월 16일(일) 부산시립미술관 2층 소전시실

부산의 근·현대미술을 일으키고 발전시켰던 대표적 미술가들의 작품을 작가별 독립공간으로 전시한 '부산의 미술가들' 두 번째 전시로 전혁림, 정건모, 정문규, 김종근의 작품이 전시된다.

김종식이 구상과 추상을 자유롭게 넘나들던 부산미술의 대부격이었다면 전혁림과 정문규는 부산근교에서 부산의 작가들과 교분을 쌓으며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정문규는 이후 서울로 거처를 옮겨 작품을 통한 부산과의 만남은 멀어졌으나 전혁림은 현재도 통영에 남아 영남지역 비구상회화의 전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건모와 김종근은 1960년대를 거치서

1980년대까지 부산비구상회화의 주요 흐름을 담당했던 작가들로이다. 정건모는 동아대학교에서 후진양성을 하며 색점과 색면으로 화면을 서정적 추상으로 이끌었으며, 김종근은 불의 움직임과 그늘음의 흔적을 실존적 이미지로 이끌어내며 당시 한국현대미술의 새로운 모습인 단색조 회화의 계열에 자연스럽게 동참했다.

## ■ 근대에 현대의 시간대기

3월 4일(토)-4월 23일(일) 부산시립미술관 3층 대전시실

‘오래된 밭에 새물을 대다’는 부제로 열리는 기획전 ‘근대에 현대의 시간대기’는 익숙한 우리 문화이면서도 이제 낯설게 보이는 옛 그림의 독특함을 재연하는 전시로 이희중, 김억, 김선두, 조병연의 작품이 소개된다.

이희중이 접한 현실과 정보, 그리고 일상에 얽힌 근대적 사유와 시각방법에 대한 현대적 이해로 민화에 새롭게 접근하고 있다면 김억은 전통 산수화의 공간구성을 그대로 이어내면서 판화로서 전이된 모습을 보인다. 김선두의 이야기가 있는 그림은 서사없는 서사를 읽어야하는 산수화의 전통과 서사만으로 읽히는 풍속화의 면면을 조합하며, 조병연은 전통적 그리기가 어떻게 현대적 세계관을 담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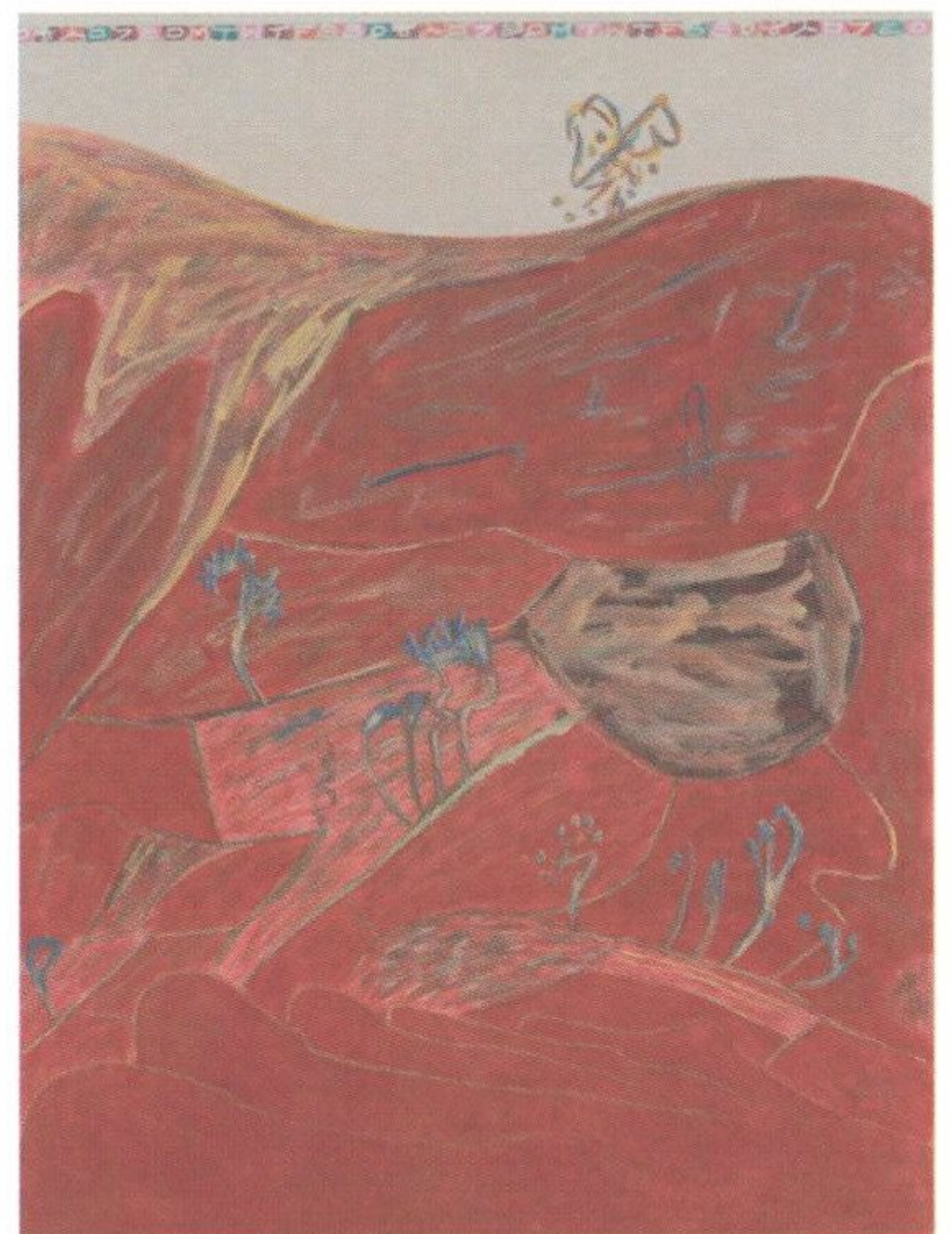
## ■ 소장품전 - 배열, 결합, 조립, 구축

3월 4일(토)-4월 23일(일) 부산시립미술관 3층 소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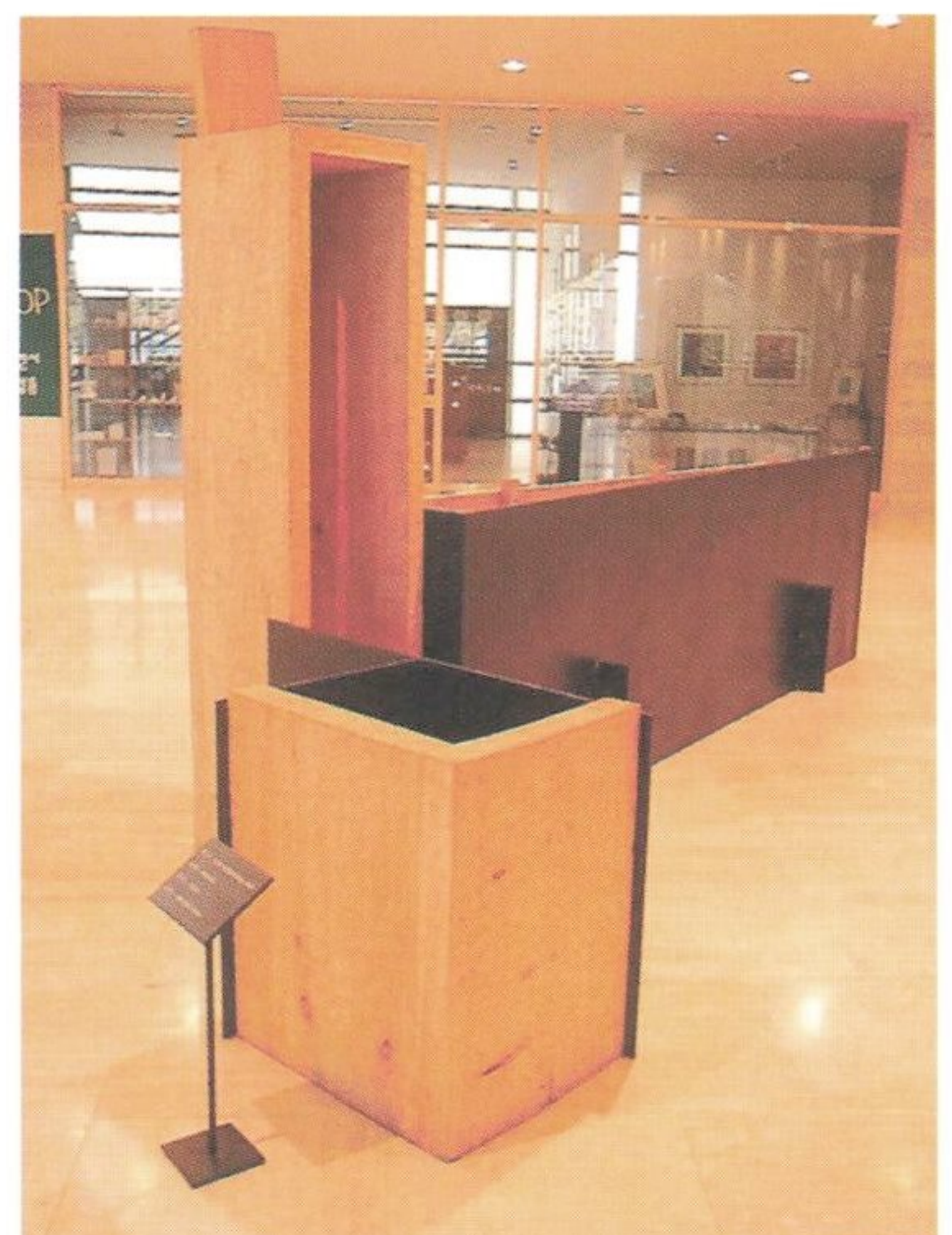
그동안 전시 과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선보이지 못했던 설치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소장품전’에서는 심문섭, 차계남, 김주현, 도흥록의 설치작품이 전시된다.

심문섭은 조각의 고정관념에 대하여 끊임없이 도전함으로써 한국 조각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온 대표적 조각가이며, 차계남은 일본 교토를 중심으로 활동해온 여성 섬유조각가로, 사이잘 삼이라는 천연재료를 접착시켜 거대한 조각을 만들어 왔다.

김주현은 기본 단위를 반복하고 최소한의 형태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서구 미니멀 아트의 양식적 특징과 유사하나 ‘순환과 확장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점을 보여주며, 도흥록은 젊지만 다양한 추상조각과 커네틱 아트, 설치작업에 이르기까지 왕성한 작품활동을 해온 조각가이다.



김선두 작 '붉은저녁'



심문섭 작 '메타포'

##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세르게이 마르카로프 초청연주회

3월 17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세르게이 마르카로프

유네스코가 선정한 평화예술인으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세르게이 마르카로프 초청무대로 마련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가 오는 3월 17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수석지휘자 알렉산더 아니시모프가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중 가장 걸작으로 꼽는 피아노 협주곡 제 5번 '황제'와 바르톡의 작품 중 가장 화려하고 색채적인 음악으로 평가받는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을 들려준다.

음악을 대하는 진지함과 예술적 의미를 놓치지 않으려는 집요한 열정을 가진 연주자라는 평가를 받는 피아니스트 세르게이 마르카로프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콘서바토리와 모스크바 콘서바토리를 졸업했다. 그동안 독주회를 비롯 러시아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키로프 오케스트라, 일 드 프랑스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 등과의 협연무대를 가진 세르게이 마르카로프는 이탈리아, 노르웨이, 헝가리, 스페인, 불가리아 등 유럽 및 미국, 일본 등 세계 무대에서 활약해왔다. 현재 파리 에콜 노르말 음악원 교수로 있는 세르게이 마르카로프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빅 필하모니홀(쇼스타코비치홀) 예술감독, 프로코피에프 국제피아노콩쿠르 심사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세르게이 마르카로프는 이번 무대에서 곡의 장대함과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피아노 협주곡 제 5번 '황제'로 부산시립교향악단과의 환상적인 조화를 들려준다. 로망 톨랑이 '걸작의 숲'이라고 부를 만큼 베토벤 제 2기의 정점을 이루는 명곡으로, 장대한 곡상과 호탕한 구성이 마치 왕의 품격을 연상시킨다 하여 부쳐진 '황제'는 베토벤의 5곡의 피아노 협주곡 중 여성적이고 우아한 제 4번과 함께 널리 연주되는 곡이다.

또다른 연주곡인 바르톡의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은 바르톡이 미국에 망명한 지 3년 후에 작곡된 곡으로,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을 지냈던 러시아 출신 지휘자 쿠세비츠키 탄생 70주년 및 보스턴 심포니 지휘자 취임 20주년을 기념해 작곡한 작품이다.

■ 입장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은 정기회원카드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좌석을 미리 예약하십시오.)

■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부산시립합창단 제118회 정기연주회

# 세상의 모든 음악1

3월 23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월 신춘음악회를 통해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는 무대를 가진 부산시립합창단이 오는 3월 23일 세계 각국의 합창음악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음악' 무대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수석 지휘자 김강규가 지휘하고 트럼펫 주자 강동식, 팝스 & 퍼커스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는 세네갈, 나이지리아, 영국, 아일랜드, 러시아 등 세계 각국의 음악과 영화 음악, 팝음악으로 친숙하고 편안한 합창무대를 열어준다.

첫 무대는 남아메리카의 정서를 담고있는 두 곡의 키리에(Kyrie)로 시작한다. 키리에는 가톨릭 미사의 첫 곡으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가사로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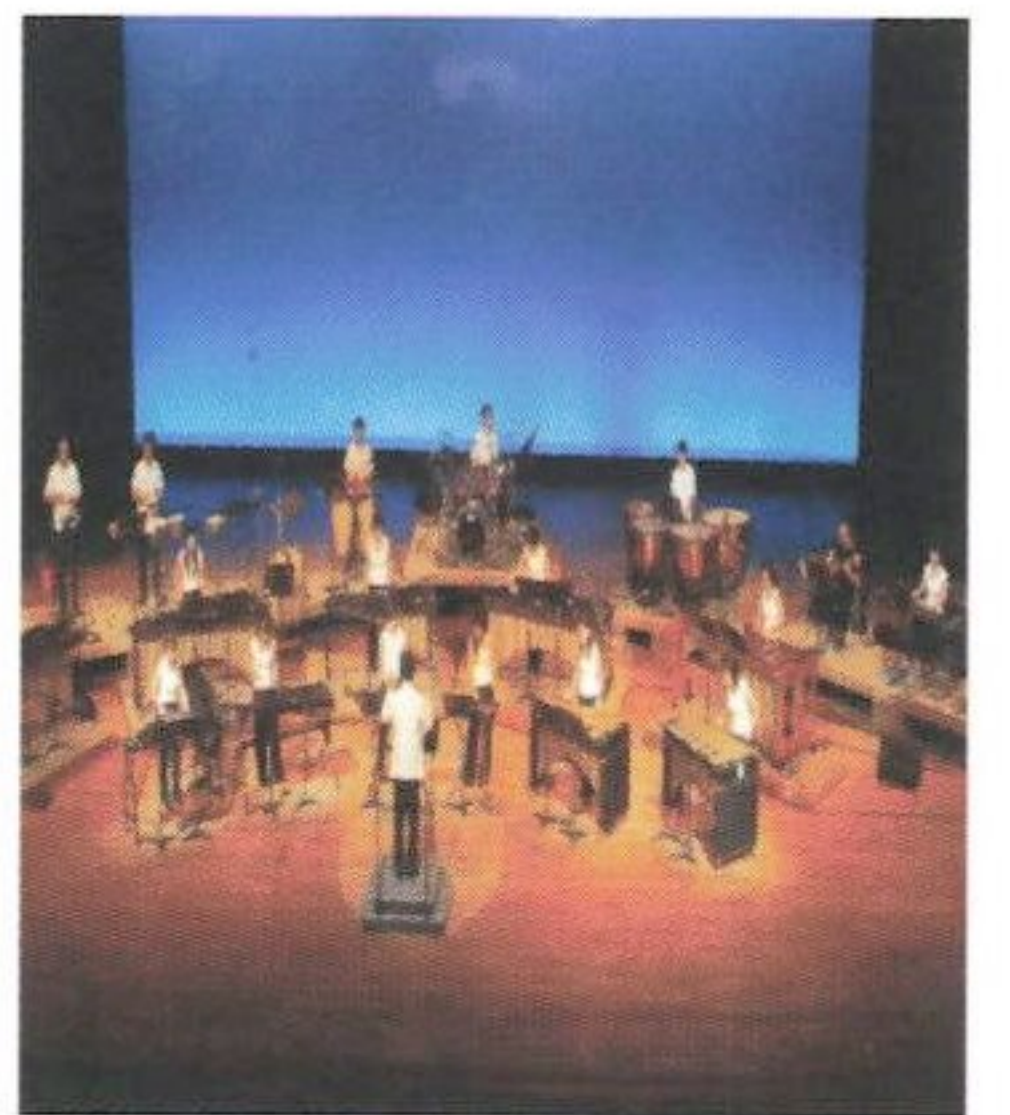
세계의 음악은 아프리카와 영국 아일랜드, 라틴음악을 들려준다. 부산시립합창단은 타악기와 함께 연주되는 세네갈민요 '카키 람베(운명의 아버지)', 나이지리아 민요 '디다이 타다이오(Dide ta Deo)' 등 아프리카 민요와 스코틀랜드의 맑은 물을 담은 호수 로몬드에서의 사랑을 노래한 영국 아일랜드민요 '호수 로몬드(J.Quick 편곡)' 등을 들려주고 부산시립교향악단 타악주자 전영수가 리더로 있는 팝스 & 퍼커스가 남국의 열정을 담은 흥겨운 라틴 음악 Lime Juice(라임 주스), Caribbean Festiva(카리브의 축제)를 연주한다.

트럼펫 주자 강동식은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를 들려준다. 부산청소년교향악단 단원과 울산시립교향악단 단원을 역임한 강동식은 현재 가브리엘 금관양상블 악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동식이 연주하는 보칼리제는 TV 드라마 '가을동화' '불새' 등에 삽입되어 대중들에게도 익숙한 곡으로 서정적이면서 애절한 선율이 특징이다. 보칼리제는 1915년에 작곡된 가곡으로 피아노와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등 다양한 악기로 편곡되어 연주되고 있는 데 이번 무대에서는 트럼펫으로 연주한다.

스웨덴 출신의 4인조 팝 그룹 '아바'의 음악을 합창으로 편곡한 '아바(ABBA)의 팝 합창들' 무대에서는 '음악에 감사(Thank You For the Music)', '맘마 미아(Mamma Mia)'를 새로운 분위기로 만날 수 있다.



김강규



팝스 & 퍼커스

■ 입장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은 정기회원카드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좌석을 미리 예약하십시오.)

■ 문 의 : 부산시립합창단(607-6126),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 四季

3월 24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김동욱

생동하는 봄의 기운을 화려한 앙상블로 들려줄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사계'가 오는 3월 24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특히 이번 무대는 그동안 호흡을 맞춰왔던 수석지휘자 알렉산더 아니시모프의 지휘와 악장 김동욱의 협연으로 오케스트라와의 완벽한 앙상블을 선사한다.

아름다운 멜로디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사계'로 협연무대에 서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동욱은 경원대학교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대학원, 미국 맨하탄음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김동욱은 부산시립교향악단을 비롯 LA 챔버 카메라타,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과의 협연무대에 서왔다.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사계'는 사계절의 아름다운 자연변화를 노래한 소네트에 곡을 부친 대표적인 표제음악이다. 제 1곡 '봄'에서는 작은 새들의 지저귀음과 바람이 흔들리는 나뭇잎, 샘물이 솟아오르는 모습 등 봄의 장면이 바이올린 트릴기법으로 묘사되며 제 2곡 '여름'에서는 폭염에서 시작되어 무서운 번개와 천둥소리, 폭우가 쏟아지는 격렬한 태풍이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 앙상블로 연주된다. 제 3곡 '가을'에서는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에 걸맞는 흥겨운 분위기가, 제 4곡 '겨울'에서는 매서운 겨울바람과 난로가의 조용하고 한가로운 풍경, 얼음위의 조심스러우면서도 경쾌한 걸음걸이 등 겨울정경이 선율로 그려진다.

이밖에도 첫곡인 브리튼의 오페라 '피터 그라임즈' 중 '4개의 바다의 간주곡 작품 33a'는 1830년경 영국의 작은 어촌을 배경으로, 음악과 장면, 대사가 정교하게 결합된 3막 6장의 오페라 '피터 그라임즈'의 간주곡 중 4곡을 발췌한 곡이다. '피터 그라임즈'는 푸르른 바다의 다양한 이미지를 형상화한 곡으로, 브리튼 특유의 폭넓고 화려한 관현악적 색감으로 시원하면서도 역동적인 바다의 느낌으로 즐겨 연주되고 있다.

마지막 곡인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제 4번 바단조 작품 36은 차이코프스키 특유의 어둡고 아름다운 선율과 교묘한 구성, 절묘한 관현악이 어우러져 많은 사랑을 받는 작품이다.

■ 입장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은 정기회원카드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좌석을 미리 예약하십시오.)

■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부산시립극단 제25회 정기공연

# 십이야 (Twelfth Night)

3월 24일-26일 금요일 오후 7:30 토-일요일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부산시립극단이 3월 24일 셰익스피어의 로맨틱 코미디 '십이야(Twelfth Night)'로 2006년 첫 무대를 연다.

'십이야(The Twelfth Night)'는 셰익스피어가 1600년에 쓴 3막 희극으로 셰익스피어의 대표적인 희극으로 꼽힌다. 이탈리아의 전통 설화를 근거로 하는 이 작품은 1601년 1월 6일 이탈리아의 오시노 공작을 환영하기 위하여 엘리자베스 여왕 궁정에서 초연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십이야'는 여러 가지 점에서 낭만희극의 집대성이라는 평을 받는 작품이다. 오시노 공작은 올리비아를, 올리비아는 남장한 바이올라를, 바이올라는 그녀가 섬기는 오시노 공작을 사랑하는 술래잡기식 순환구조가 낭만 희극적 골격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한낱 외면적 이야기 전개와 재미로만 머무는 데 그치지 않고 극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인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인간의 자기기만(내면화된 속임수)과 그것을 치유해주는 사랑의 진실성을 통해 깊이와 설득력 있는 끝마무리를 이루고 있다. 이 극을 한층 더 살찌워주는 것으로서 올리비아 집안의 여러 인물이 벌이는 곁 줄거리를 빼놓을 수 없다.

부산시립극단은 그동안 리어왕, 햄릿 등 셰익스피어 작품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많은 찬사를 받아왔다. 이번 무대에서 부산시립극단은 창작극과 정통극에 기본목표를 두고 부산에서 처음으로 '십이야'에 도전, 리어왕, 햄릿에 이어 새로운 셰익스피어 레퍼토리에 도전한다.

유성주가 오시노로, 김은희가 오시노의 사랑을 받는 올리비아로 열연한다.

· 원작/W.셰익스피어      · 연출/손기룡(부산시립극단 수석연출)

### 출연

유성주(오시노), 김은희(올리비아), 염지선(바이올라), 이혁우(말볼리오), 박찬영(Sir 토비 벨치), 이돈희(페이비안), 임해련(발렌타인), 정행심(페스테), 이현주(마리아), 황창기(Sir 안드류 에이규치크), 배진만(세바스찬), 조창주(안토니오), 유재명(선장, 신부) 외



손기룡

■ 입장료 : 1층 15,000원 · 2층 1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은 정기회원 카드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좌석을 미리 예약하십시오.)

■ 문 의 : 부산시립극단(607-6136),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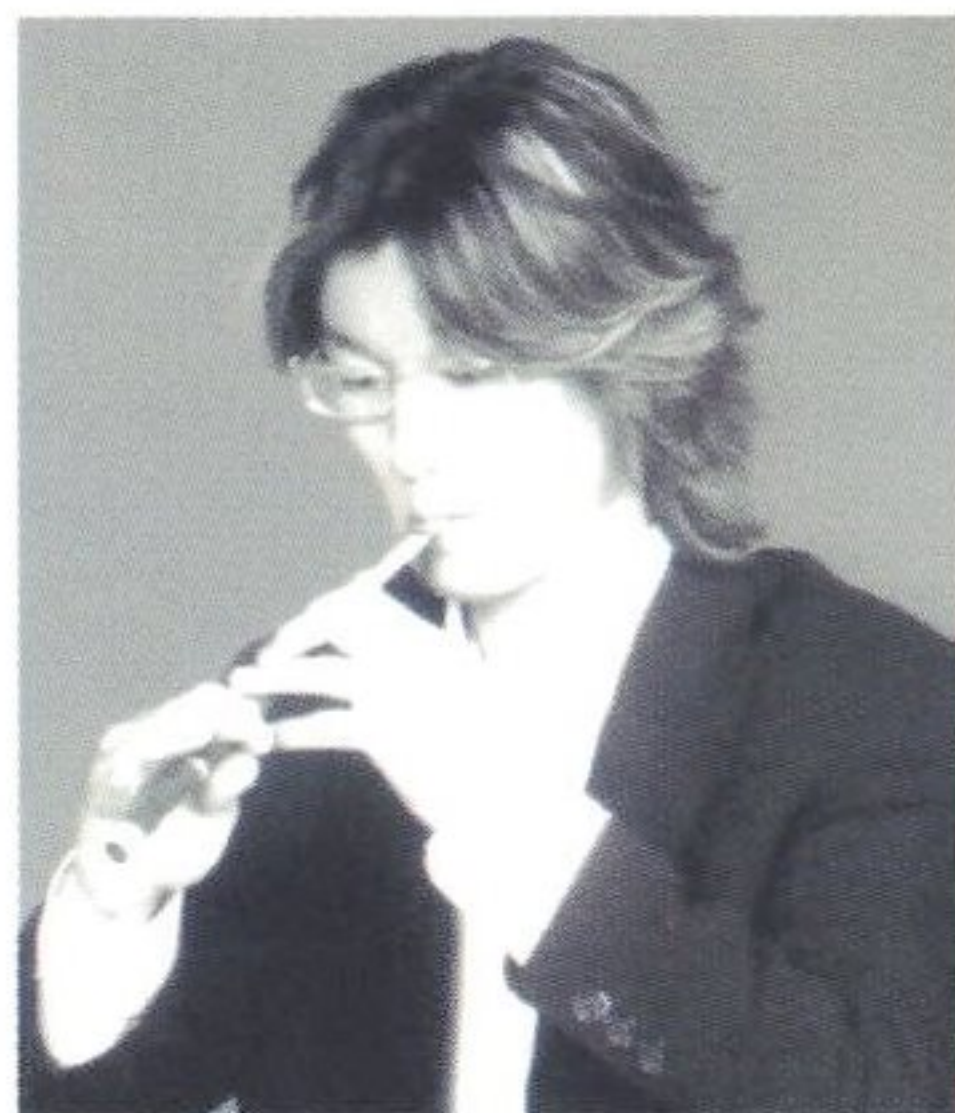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29회 정기연주회

# 春來音

3월 30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이용구



김성민



최명화

전통의 맥을 잃지 않으면서도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시도로 다양한 음악을 선사하고 있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3월 30일 싱그러운 봄을 여는 신춘음악회로 부산 국악애호가들과 만난다. 수석지휘자 박호성의 지휘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는 전통악기와 개량국악기의 조화로운 만남, 기악과 춤의 만남으로 그동안 부산에서 연주되지 않았던 부산 초연곡들로 풍성한 무대를 열어준다.

백대웅 작곡 새 봄을 여는 창작관현악 '연변목가'로 시작하는 1부는 단소 협주곡 '초소의 봄', 피리와 태평소를 위한 협주곡 '코-사무이'를 선곡, 전통악기와 개량악기가 하나 되고, 북한과 중국 연변음악의 이색적 만남을 통해 새 봄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단소 협주곡 '초소의 봄'을 위해 국립국악관현악단 악장 이용구가 부산국악애호가들과 만난다. '초소의 봄'은 북한에서 1965년에 원래 단소곡으로 작곡된 작품인데, 단소와 가야금 2중주곡으로 편곡 되었다가 1980년 다시 가야금의 연주에 맞게 개편하여 가야금 독주곡으로 더 많이 알려진 곡이다. 이번 연주는 2004년 12월에 안산시립국악단이 위촉하여 편곡된 곡으로 북한의 개량단소가 아닌 이용구가 직접 개량한 '단소九'로 직접 연주한다.

피리와 태평소를 위한 협주곡 '코-사무이'는 배철수의 음악캠프, 윤도현의 러브레터 등 방송 출연으로 대중과 친숙한 안산시립국악단 수석 김성민의 피리, 태평소 연주로 들려준다.

2부는 원일의 봄 춤이 있는 창작관현악 '춤, 바람, 난장'과 이준호의 생황협주곡 '바람의 섬(The Island of Wind)' 부산 초연무대가 이어진다.

봄 춤이 있는 창작관현악 '춤, 바람, 난장'은 2003년 국립국악원의 한국음악창작발표회에서 위촉받아 작곡된 작품으로 희망찬 봄을 맞이하여 자연스럽게 신명을 불러일으킨다. KBS 국악관현악단 부수석 최명화가 들려줄 생황협주곡 '바람의 섬(The Island of Wind)'은 지난해 KBS국악관현악단 20주년 위촉곡으로 관이 가장 많은 36관 생황의 특징과 부드럽고 맑은 생황의 소리를 아름다운 바람의 섬에 실어낸 곡이다. 최명화는 난계예술제 대학부 대상, 동아콩쿠르 일반부 대상, KBS 서울국악경연대회 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

■ 입장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은 정기회원카드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좌석을 미리 예약하십시오.)

■ 문 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18회 정기연주회

# 러시아 음악의 밤

3월 31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깊은 애수를 간직한 가운데 서정적이면서도 정열적인 선율로 음악애호가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있는 러시아 음악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러시아 음악의 밤'이 오는 3월 31일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18회 정기연주회로 펼쳐진다.

이번 무대는 러시아가 배출한 세계적인 지휘자인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지휘자 알렉산더 아니시모프가 지휘하고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 천재로 알려진 러시아 차세대 피아니스트 사샤 아니시모프가 협연한다.

협연자인 사샤 아니시모프는 민스크와 벨로루시 음악영재학교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9살의 나이로 벨로루시 국립교향악단과 첫 협연무대를 갖기도 했다. 2001년 16세의 나이로 Superieur de Paris(Premier Prix) 콘서바토리에서 1등으로 졸업 디플로마를 받은 사샤 아니시모프는 파리의 에콜 노르말 음악원에서 세르게이 마르카로프 교수를, 더블린의 아일랜드 왕립 음악원에서 존 오코너를 사사했으며, 파리 스타인웨이 국제콩쿠르에서 1등상을 수상한 바 있다. 사샤 아니시모프는 최근 베슬란 추모 및 자선공연을 비롯 뉴욕 스타인웨이홀에서의 미국 데뷔공연과 벨로루시 국립심포니, 벨 아르테 심포니오케스트라와의 협연무대 등 세계를 무대로 다양한 활동을 가져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 사샤 아니시모프는 20세기 최고의 피아노 협주곡으로, 전곡을 통해 흐르는 낭만적인 가락과 우울하면서도 섬세한 정서의 선율로 많은 사랑을 받고있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제 2번 다단조 작품 18'을 들려준다.

이밖에도 깔끔한 양식과 아름다운 멜로디, 상상력 가득한 오케스트레이션으로 음악애호가들이 즐겨듣는 '호두까기인형 모음곡 작품 71a'와 립스키-코르사코프로부터 '러시아의 모든 음악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테마'로 격찬받은 사랑의 테마와 반목의 테마가 서로 얽혀 비극적인 색채를 띄는 환상서곡 '로미오와 줄리엣', 프란체스카와 지오반니, 두 연인의 비극적 사랑을 서정적이면서도 슬픈 선율로 그려낸 교향적 환상곡 '프란체스카 디 리미니 마단조 작품 52' 등 차이코프스키의 명곡 세 곡을 연주한다.



사샤 아니시모프

■ 입장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은 정기회원카드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좌석을 미리 예약하십시오.)

■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대극장

### 영화 '왕의 남자' 원작연극 이(爾)

4일-5일 토-일요일 오후 3:00, 7:00



천만 관객을 돌파한 화제의 영화 왕의 남자 원작 연극 '이' 부산무대.

연극 '이(爾)'는 한국연극협회 올해의 연극상, 희곡상, 연기상, 2001 동아연극상 작품상, 연기상 등 연극계의 굵직한 상을 수상,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 작, 연출/김태웅

**입장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A석 30,000원

**문의** 인터스테이지(1588-8477)

### 부산스트링스챔버오케스트라 창단 10주년 기념 특별음악회

6일 월요일 오후 7:30

1996년 결성, 올해로 창단 10주년을 맞은 부산스트링스챔버오케스트라의 창단 10주년 기념음악회.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슬라브행진곡

슈트라우스/봄의 소리 왈츠,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집시남작 서곡

비제/카르멘 모음곡 등 수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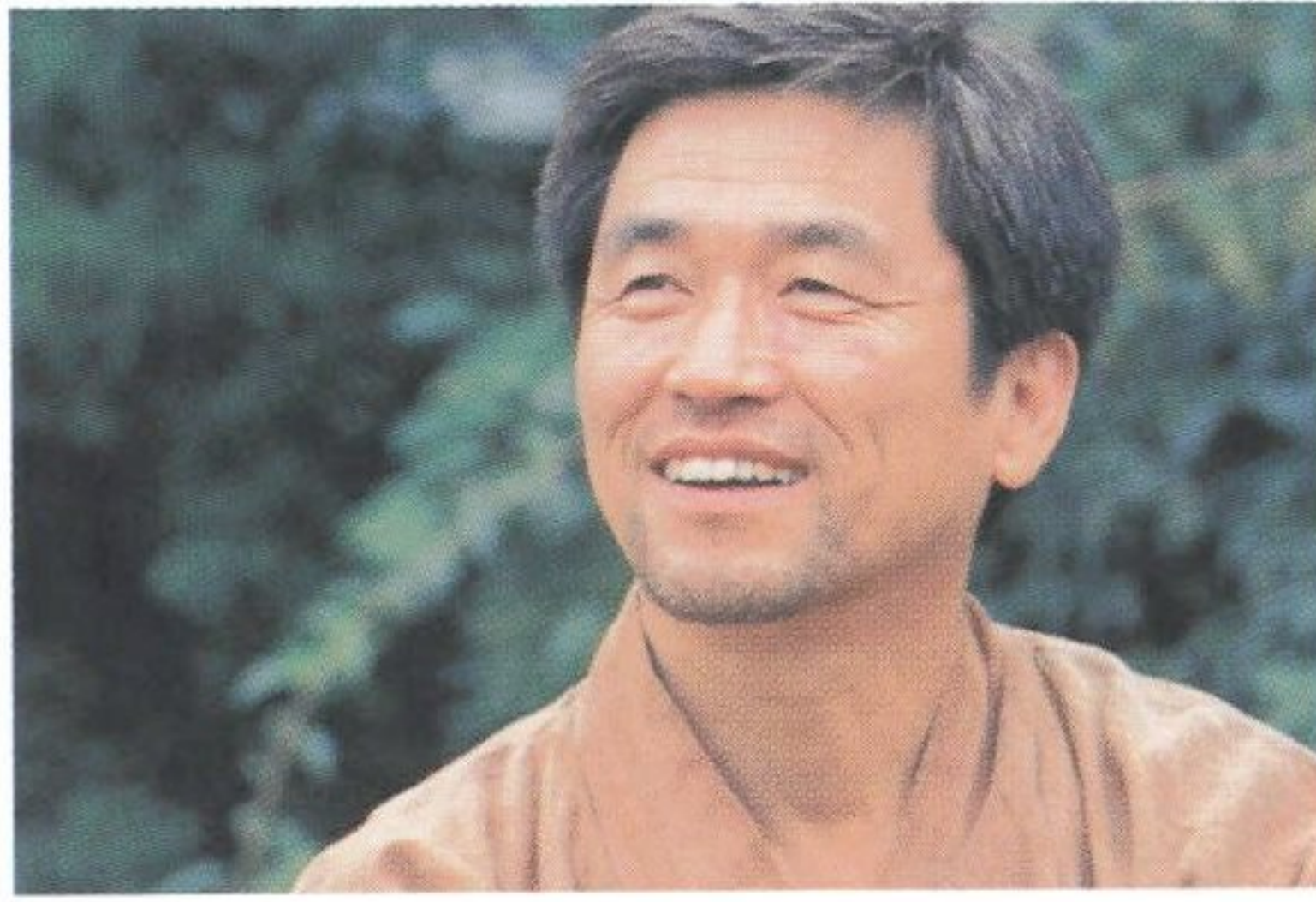
· 지휘/박종휘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부산스트링스챔버오케스트라  
(627-8088)

최고의 소리, 최고의 음악, 최고의 감동  
**희망의 소리**

7일 화요일 오후 7:30



정상급 예술인과 오케스트라가 함께 펼치는 2006년 신춘음악회 '희망의 소리'.

소박한 음악세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장사익을 비롯 이태리 IBLA국제콩쿠르 대상을 수상한 바이올리니스트 이지화, 호세카레라스 최고상을 수상한 테너 박현재, 화려한 기교의 중견성악가 바리톤 장은익, 국악소리계의 디바 박성희가 출연한다.

**프로그램**

봄의 소리 왈츠, 짜고이네르바이젠

사랑의 인사, 휘데리코의 탄식

이 마을 제일의 이발사, 청산에 살리라, 찔레꽃, 아버지, 봄비, 남은 먼곳에 등 수곡

**출연**

소리꾼 장사익, 바이올리니스트 이지화, 테너 박현재(서울대학교 교수), 바리톤 장은익(고신대 출강교수), 박성희(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 지휘/오충근(고신대학교 교수)

· 오케스트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음악감독/임병원 · 경성대학교 교수)

· 특별출연/정진욱(경남대학교 교수)

**입장료**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문의** 미래와 음악(1544-3439)

교례아 오페라단

### 베르디 걸작 테너의 오페라 가면무도회

10일-13일 금-월요일 오후 7:00



이철성    윤정윤    김화정    김지호

스웨덴 국왕 '구스타프 3세 암살사건' 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오페라화 한 베르디 오페라 '가면무도회' 부산 초연.

1859년 2월 로마 아폴로 극장에서 초연되어 대성공을 거둔 '가면무도회'는 사랑과 우정, 배신과 용서의 대서사시를 웅장한 스케일로 그려낸 베르디 최고의 걸작이다.

· 연출/김성경

· 지휘/지광윤(크라스토야르스크 국립오페라 발레극장 수석 객원지휘자)

· 부지휘, 합창지휘/이성훈

· 음악코치/이현주, 이수연, 남현숙

· 오케스트라/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특별출연/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국립교리끼 극장 무용팀 및 연기자

**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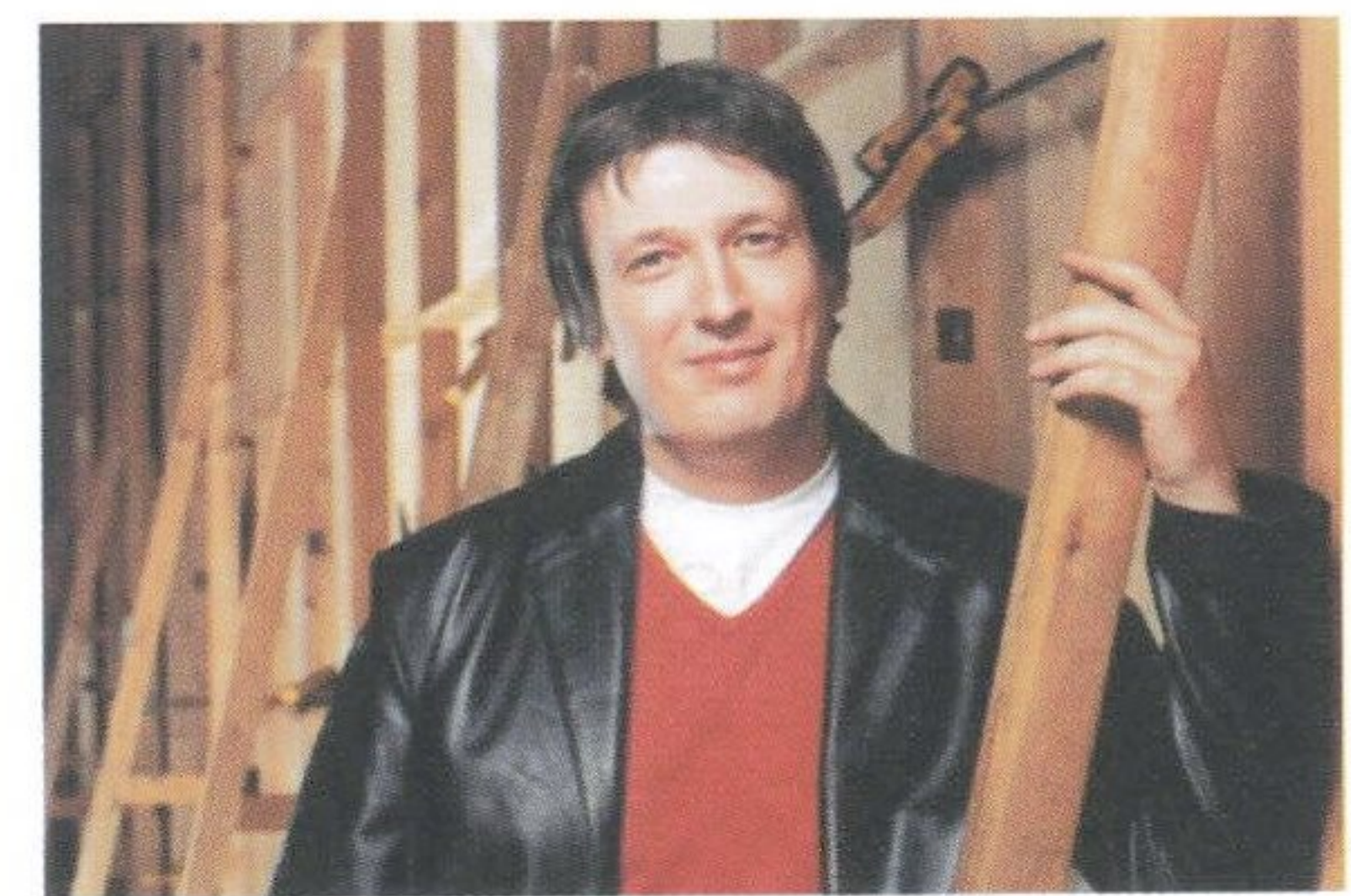
이철성, 윤정원, 김화정, 김지호(이상 테너, 리카르도), 박대용, 제상철, 김종화(이상 바리톤, 레나토), 전이순, 김란수, 우명화, 이윤정(이상 소프라노, 아멜리아) 외

**입장료** VIP석 150,000원 · R석 100,000원  
S석 70,000원 · A석 50,000원  
학생 30,000원

**문의** LMC(747-9767)

### 보리스 베레조프스키 피아노 독주회

14일 화요일 오후 7:30



1990년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1위로 우승한 이래 세계 무대를 누비면서 웅장함과 서정성을 자랑하는 러시아 피아니즘의 진정한 계승자로서 사랑받고 있는 보리스 베레조프스키 피아노 독주회.

내한 연주 때마다 정밀한 테크닉과 깊이 있는 음악성 외에도, 몸을 사리지 않는 연주로 폭발적인 사랑을 받은 보리스 베레조프스

키는 이번 부산연주회에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곡이라는 고도프스키의 쇼팽의 에튀드 편곡판을 쇼팽의 원곡과 비교 연주한다.

**프로그램**

쇼팽/연습곡 작품 10의 1번 다장조  
 고도프스키/쇼팽 에튀드에 의한 연습곡 작품 10의 1번 다장조(온음계)  
 쇼팽/연습곡 작품 10의 2번 가단조  
 고도프스키/쇼팽 에튀드에 의한 연습곡 작품 10의 2번 a단조 (도깨비불)  
 무소르그스키/전람회의 그림 등 수곡

**입장료** R석 70,000원 · S석 60,000원  
 A석 40,000원 · B석 30,000원

**문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금성고등학교 동문음악회**

15일 수요일 오후 7:30



부산음악계에서 폭 넓은 활동을 하고 있는 금성고등학교 동문음악인들이 모교 발전을 위해 마련하는 동문음악회.

**프로그램**

쥬페/경기병서곡  
 베르디/오페라 '리골렛토' 중 '여자의 마음'  
 김연준/청산에 살리라 등 수곡

**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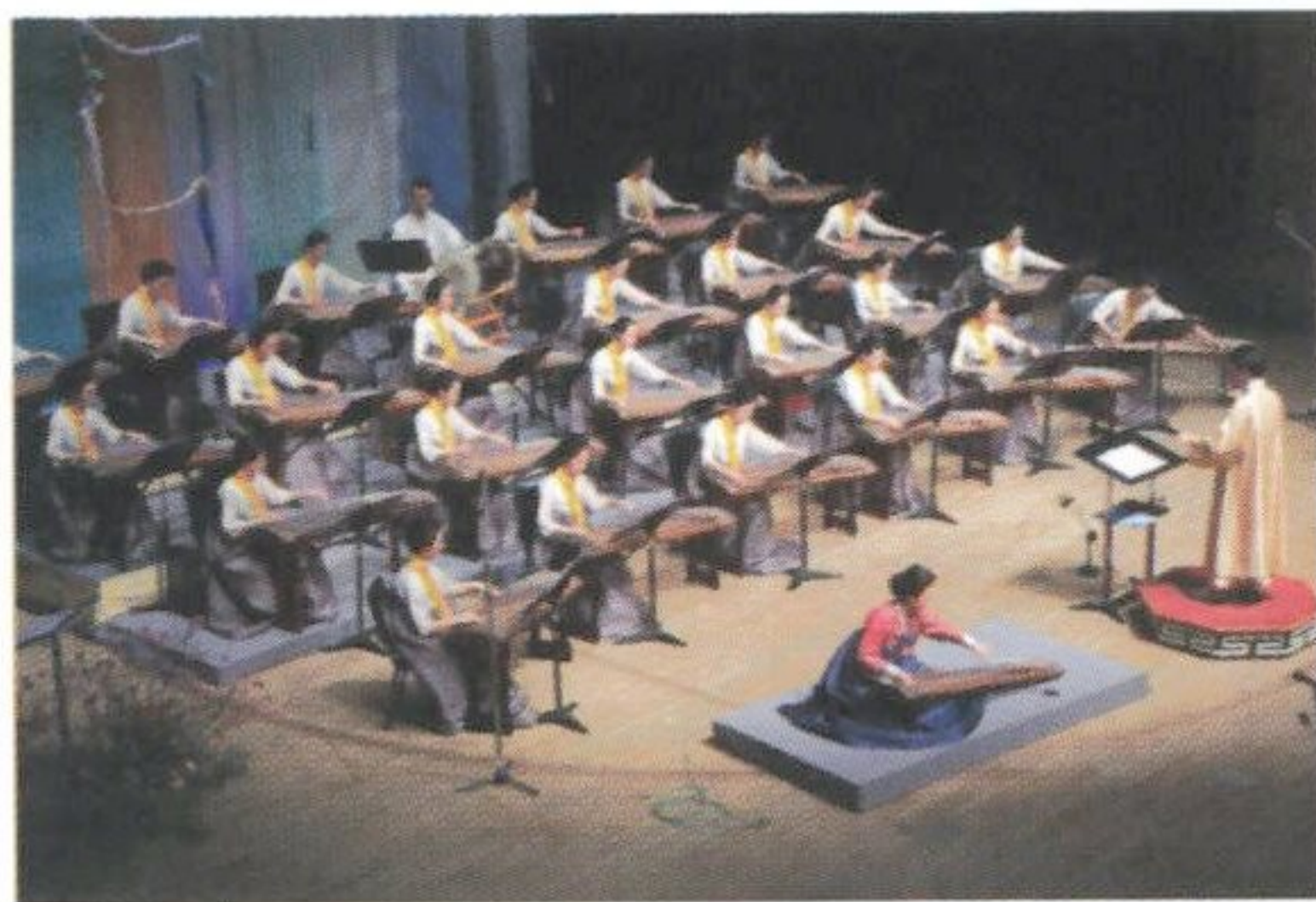
김종석, 권오중, 광성섭, 손욱  
 · 관현악/아트심포니오케스트라(지휘/강재권)

· 특별출연/소프라노 서경숙

**문의** 정치선(636-2200,  
 010-9745-2200)

**제 2회 부산가야금연주단 정기연주회**

16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대학교 김남순 교수와 그 제자들이 목적으로 창단한 부산가야금연주단의 제 2회 정기연주회.

26명의 '가야금오케스트라'를 구성, 화려하고 섬세한 가야금 선율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이성규/신천년만세  
 모차르트/아이네 클라리네 나흐트 뮤직  
 국악가요/아버지의 노래, 꽃분네야  
 박범훈/25현가야금협주곡 '새산조' 등 수곡  
 · 특별출연/이수은(지휘), 강호중(노래, 추계예대 교수), 이종대(피리, 부산대 교수), 홍옥미(해금)  
 · 객원연주/권혜정(대아쟁), 홍희철(부산예고 강사), 오상훈(효원국악연주단 단원), 김명희, 김소연

**입장료** 초대

**문의** 최미란(017-568-3766)  
 옥경화(017-556-7543)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세르게이 마르카로프' 초청연주회**

17일 금요일 오후 7:30

수석지휘자 알렉산더 아니시모프가 지휘하고 유네스코 평화아티스트 세르게이 마르카로프가 협연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세르게이 마르카로프는 파리 에콜 노르말 음악원 교수로 폴란드, 핀란드, 프랑스, 일본, 오스트리아 등지에서 매년 국제적인 마스터클래스를 개최하고 있다.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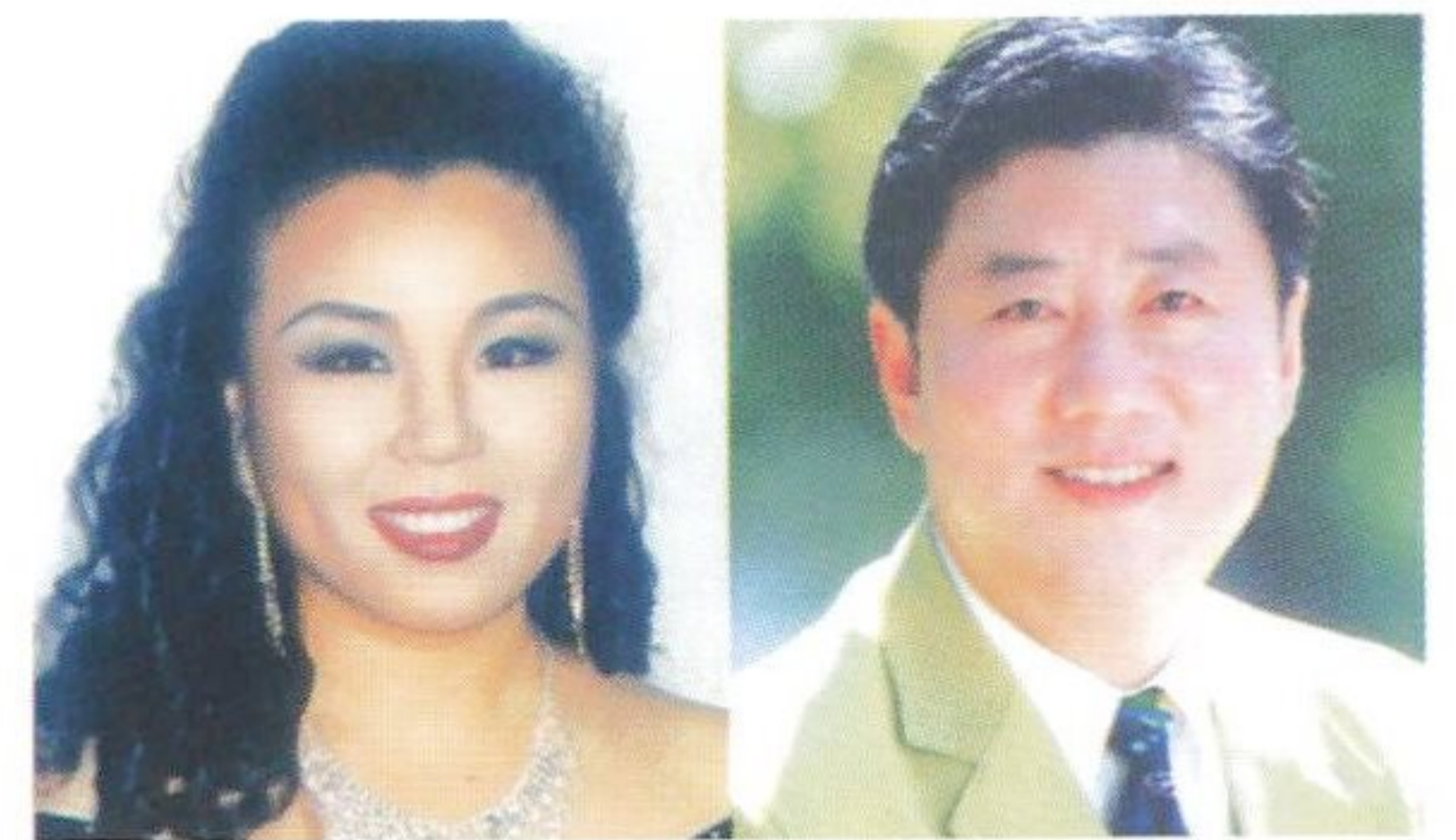
베토벤/피아노 협주곡 제5번 내림마장조 '황제' 작품 73  
 바르톡/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 지휘/알렉산더 아니시모프  
 · 협연/세르게이 마르카로프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

**3Tenor & 3Soprano Concert**

20일 월요일 오후 7:30



김유섬

장원상

부산 최고의 역량을 지닌 3명의 테너와 3명의 소프라노가 출연하는 3Tenor & 3Soprano Concert.

이번 공연은 우리 가곡을 비롯해 오페라 아리아, 대중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곡들로 다양하게 펼쳐진다.

**프로그램**

현제명/나물 캐는 처녀, 희망의 나라,  
 구노/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중 '줄리엣의 왈츠', 오페라 '파우스트' 중 '보석의 아리아' 등 수곡

**출연**

장원상, 이철성, 전병호(이상 테너), 김유섬, 박현정, 배수진(이상 소프라노)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부산문화(633-8990)

**광대들의 놀음**

21일 화요일 오후 7:30



봄과 함께 펼쳐지는 우리문화 한마당으로 춤광대, 젓광대, 연희광대가 펼치는 '광대들'

의 들놀이'.

전통음악의 선율에서부터 오늘날 누구나 어울릴 수 있는 새로운 음악까지 젓광대들의 연주, 신명나는 장단에 흥겨운 놀이판까지 연희광대들의 한바탕 놀음이 이어진다.

**프로그램**

천궁(무속을 바탕으로 한 음악구성), 놀음광대(버나와 남사당놀이 등으로 구성된 놀이판) 등

**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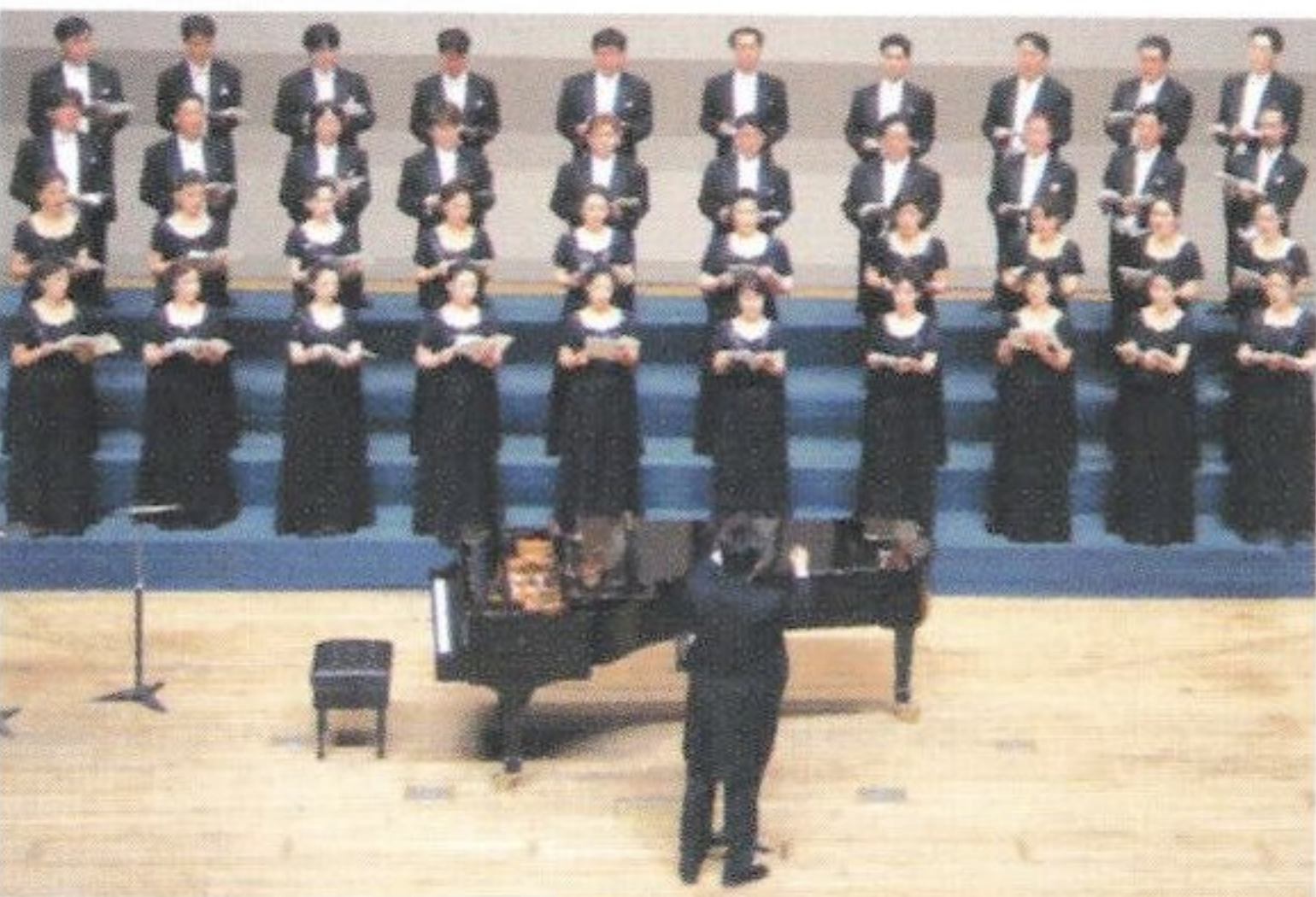
춤꾼 박경량, 연희집단 the광대, 젓광대 공감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사)부산문화(633-8990)

**부산시립합창단 제118회 정기연주회  
세상의 모든 음악 1**

23일 목요일 오후 7:30



새봄을 맞아 부산시립합창단이 '세상의 모든 음악'이라는 제목으로 아프리카, 영국 아일랜드, 러시아 등 흥미롭고 재미있는 세계 각국의 음악을 선곡, 부산 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프로그램**

샌드스트림/키리에

아프리카 합창/카키 람베(추수의 보호자, 세네갈민요), 디다이 타 다이오(선하신주, 나이지리아민요)

영국, 아일랜드 멜로디/로몬드 호수(Loch Lomond, J.Quick 편곡), 참 아름다워라(My maker's World, S.Curry 편곡) 등 수곡

· 지휘/김강규(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 협연/강동식(트럼펫), 팝스 & 퍼커스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사계(四季)**

24일 금요일 오후 7:30

싱그러운 봄의 향연을 들려줄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사계'.

이번 무대에서 협연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김동욱 악장은 맨하탄 음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귀국, 그동안 부산시립교향악단, LA 챔버 카메라타,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 무대를 가졌다.

**프로그램**

브리튼/ '피터 그라임즈' 중 '4개의 바다의 간주곡' 작품 33a

비발디/바이올린 협주곡 '사계' 작품 8  
차이코프스키/교향곡 제4번 바단조 작품 36

· 지휘/알렉산더 아니시모프

· 협연/김동욱(부산시립교향악단 악장)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 116회 정기 연주회

**창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 하는  
프렌들리 콘서트**

25일 토요일 오후 5:00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창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 마련하는 프렌들리 콘서트.

1991년 창단된 창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그동안 지역 정서에 맞는 창작곡과 교과서 음악회를 개최, 창원지역 청소년 문화를 이끌어왔다.

**프로그램**

이근택/봄시내, 나뭇잎, 개구리

이현철/시편모음 23편, 133편, 145편, 150편

러시아 민요와 팝송/검은 눈동자, 모스크바 교외의 석양, 카츄샤 등 수곡

· 지휘/배정행 · 반주/이영옥

· 지도/노금선, 김양자

· 특별출연/창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이근택), 테너 임충진

**입장료** 균일 2,000원

**문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607-6131)

솔 오페라단

국내 최정상급 성악가들과 함께 하는

**2006 신춘음악회**

26일-27일 일-월요일 오후 7:30



솔오페라단이 국내 최상급 성악가들과 함께 들려주는 2006 신춘음악회.

창원시립교향악단 지휘자 장윤성이 지휘하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의 반주로 국내 정상급성악가들이 출연, 봄의 정취에 알맞는 오페라 아리아 및 중창, 유명 뮤지컬 등을 들려준다.

**출연**

김영미, 박정원, 김경희, 박현정(이상 소프라노), 김남두, 이철성, 하석배(이상 테너), 김동규, 조현수(이상 바리톤), 김태경(베이스)

· 지휘/장윤성

· 오케스트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입장료** VIP석 100,000원 · R석 80,000원

S석 50,000원 · A석 30,000원

B석 20,000원 · 학생석 10,000원

**문의** 프리모 아트매니지먼트(622-5529)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기념 부산시립 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봄에 듣는 세레나데**

28일 화요일 오후 7:30





모차르트의 탄생 250주년을 맞아 모차르트의 음악을 재조명해보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로 모차르트 특유의 발랄함과 경쾌함을 잘 나타내고 있는 세레나데를 모아 들려준다.

**프로그램**

- 모차르트/세레나데 제 6번 라장조 '세레나타 노투르나' K.239
- 모차르트/세레나데 제 13번 사장조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무지크' K.525
- 모차르트/세레나데 제 9번 라장조 '포스트호른 세레나데' K.320

· 지휘/윤상운

**입장료** 균일 2,000원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29회 정기연주회

**春來音**

**30일 목요일 오후 7:30**

수석지휘자 박호성의 지휘로 마련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신춘음악회.

그동안 부산에서 연주되지 않았던 부산 초연곡들로 풍성한 무대를 열어준다.

**프로그램**

백대웅/새 봄을 여는 창작관현악 '연변목가' (부산초연)

공연송/단소협주곡 '초소의 봄' (부산초연)

오혁/피리와 태평소를 위한 협주곡 '코사무이' (부산초연) 등 수곡

· 지휘/박호성

· 협연/이용구(단소, 국립국악관현악단 악장, 중앙대 겸임교수), 김성민(피리·태평소, 안산시립국악단 수석), 최명화(생황, KBS국악관현악단 부수석)

· 춤/부산시립무용단 단원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문의** 부산시립예술단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18회 정기연주회

**러시아 음악의 밤**

**31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지휘자 아니시모프가 조국 러시아를 대표하는 차이코프스키와 라흐마니노프의 곡을 모아 들려주는 '러시아 음악의 밤'.

파리의 스타인웨이 국제콩쿠르 1등상을 수상한 사샤 아니시모프가 협연자로 부산음악 애호가들과 만난다.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호두까기인형 모음곡 작품 71a

라흐마니노프/피아노 협주곡 제2번 다단조 작품 18

차이코프스키/교향적환상곡 '프란체스카 다 리미니' 마단조 작품 32 등

· 지휘/알렉산더 아니시모프

· 협연/사샤 아니시모프(피아노)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

**중 크 장**

**E.M.B 피아노트리오 창단연주회**

**2일 화요일 오후 7:30**

유럽에서 학업을 마친 바이올리니스트 김성은, 첼리스트 이재성, 피아니스트 정순화가 의욕으로 결성한 E.M.B.(European Musician Busan)의 창단연주회.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 트리오 작품 제 1번

피아졸라/피아노 트리오 '사계' 중 봄, 여름

멘델스존/피아노 트리오 작품 49 제 1번

**입장료** 초대

**문의** 이재성(011-9559-0415)

**청소년 협연의 밤**

**3일 금요일 오후 7:30**

청소년 유망주들이 윤상운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연주한다.

**출연**

강호준(피아노, 부산예중 3년), 김재휘(비올라, 서울 오륜중 2학년), 김현정(플룻, 부산 예고 3년), 이예림(피아노, 부산예중 3년), 전소희(피아노, 부산예중 2년), 이미원(바이올린, 동아대 1년)

**입장료** 초대

**문의** 선기획(758-6410)



**통합 마케팅 시대의 뉴 브레인! 포어드**

[주]포어드 |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국제회의장 2층  
TEL: 051) 627-2563(대) FAX: 051) 627-2560

광고기획, TV/RADIO 광고제작 및 대행, 신문/전단/카다록 인쇄광고 제작, 기업CIP/BIP, 홈페이지 제작, 온라인 광고 마케팅 기획

## 바리톤 민정식 독창회

4일 토요일 오후 6:30



아마추어 성악동호회 멜로매니아 회장 바리톤 민정식 독창회.

민정식은 멜로매니아 정기연주회 외에도 오페라 '마술피리', 가곡과 성가의 밤, 심장 병어린이 돕기 자선음악회 등에 출연했다.

### 프로그램

홍난파/사공의 노래

박태준/산길

쿠르티스/너는 왜 울지 않고 등 수곡

· 우정출연/테너 김상곤(이화여대 교수), 멜로매니아, 유희연(바이올린)

· 피아노/곽윤희

**입장료** 초대

**문의** 민정식(301-9701)

나의 고백

## 테너 문대진 찬양독창회

5일 일요일 오후 7:00



동의대학교와 독일 뒤셀도르프국립음대를 졸업하고 그동안 5회의 독창회를 가져온 테너 문대진이 신앙 고백을 담은 찬양독창회.

### 프로그램

놀라운 은혜,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세상 흔들리고 등 수곡

· 피아노/박미은

**입장료** 초대

**문의** 문대진(011-9526-8929)

## 유영욱 피아노 독주회

6일 월요일 오후 7:30

연세대학교와 독일 로스톡국립음악대학을 졸업한 유영욱은 로스톡국립음악대학과 북독일 라디오 방송국 연주, 2004 통영 국제음악제 '한국의 작곡가들', MBC목요음악회 등의 무대에서 음악애호가들과 만났다.

### 프로그램

스카를라티/Sonate E-Dur K.162

프로코피에프/순간의 환상 작품 22

리스트/장송곡 등 수곡

**입장료** 초대

**문의** 유영욱(010-3198-1035)

## 크로노스 앙상블 소년소녀가장돕기 자선음악회

7일 화요일 오후 7:30



2002년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을 중심으로 창단된 크로노스 앙상블의 정기연주회.

###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 오보에, 클라리넷, 호른 파곳을 위한 5중주 작품 16

비발디/사계 전곡

### 연주

류재환, 장정호, 정우영, 이반 네델체프, 이장호, 조양희, 최은정, 이광식, 이윤영, 한아름, 양혜원, 신민정, 김은아, 김가영 외

· 협연/바이올리니스트 신상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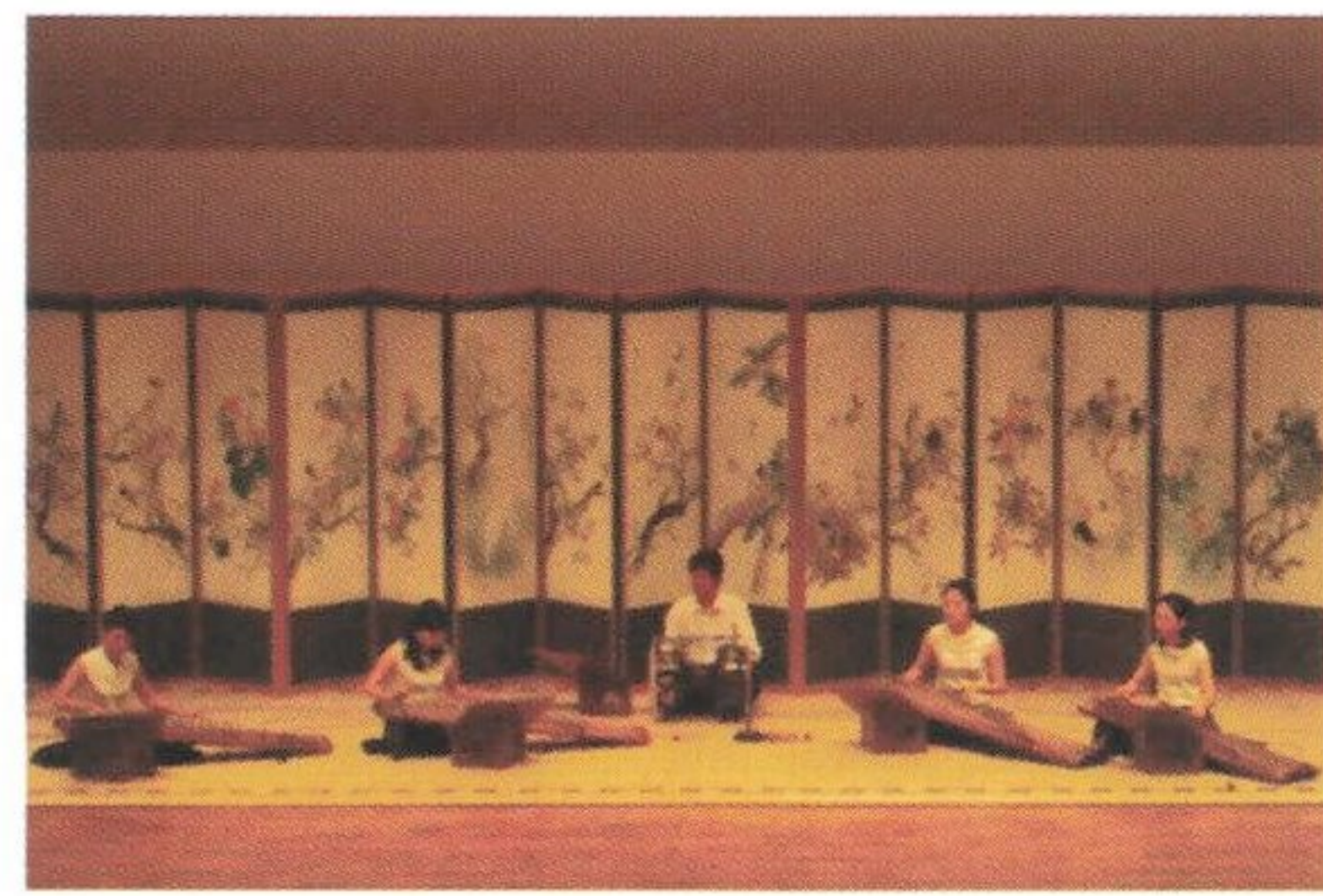
· 피아노/김진희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이장호(011-830-4770)

## 효산가야금연주단 제 2회 정기연주회

9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 8호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 보존회 회원들로 구성된 효산가야금연주단이 들려주는 제 2회 정기연주회.

### 프로그램

최지혜/두개의 민요를 주제로 한 '어울림'(위축곡)

김계옥/아랑의 꿈

박범훈/고고천변(부산초연)

백규진/가야금 6중주 '赤松'(위축곡)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김지영(011-9234-9638)

빈 국립음대 교수

## 볼프강 다비드 내한공연

12일 일요일 오후 5:00



빈 국립음대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볼프강 다비드 부산연주회.

볼프강 다비드는 워싱턴 포스트지로부터 '고품위 음악 조율', '그의 음악은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폭넓은 감정을 가졌다' 라는 평을 받았다.

### 프로그램

그리그/소나타 다단조 작품 45

베토벤/소나타 바장조 작품 24 '봄'

비에냐프스키/파우스트 환타지 작품 20 등 수곡

· 피아노/조현선(경성대학교 교수)

**입장료** R석 77,000원 · S석 55,000원

A석 33,000원

**문의** (주)TTC(525-2590)

## 한명희, 권혜령 피아노 듀오연주회

13일 월요일 오후 7:30



부산대학교 교수로 후진양성에 힘쓰고 있는 피아니스트 한명희, 권혜령 교수의 피아노 듀오연주회.

이화여자대학교 동문이기도 한 한명희, 권혜령 교수는 그동안 자신만의 음악세계를 넓혀오며 꾸준한 음악적 교류를 가져왔다.

### 프로그램

슈베르트/판타지 D.940 바단조

모차르트/소나타 K.448

비제/어린이 놀이 작품 22

라벨/스페인 광시곡

**입장료** 균일 20,000원

**문의** 예은예술기획(632-6904)

그랜드오페라단 초청

## 소프라노 장은영 귀국 독창회

16일 목요일 오후 7:30

신라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칼스루에 국립음대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귀국한 소프라노 장은영 독창회.

### 프로그램



헨델/사랑스러운 그대 눈동자  
슈만/아름다움을 좋아하니?, 폭풍과 빗속에서 그가 왔네, 고요한 연꽃

이수인/그리움

나운영/달밤 등 수곡

· 찬조출연/테너 전병호, 클라리네티스트 홍성택

· 피아노/이승운

**입장료** 초대

**문의** 그랜드오페라단(809-8445)

클래식음악 전문 연주자들의 모임  
I SOLISTI & 부산오페라연구소 창립  
특별공연 2006 오페라 갈라 콘서트

## 유럽 오페라 무대를 감동시킨 한국성악가들

18일 토요일 오후 7:30

세계 우수 성악 콩쿠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각국 오페라단의 주역가수로 활동하면서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호평을 받은 한국 성악가들이 들려주는 오페라 갈라 콘서트.

이탈리아 아트리스국제콩쿠르에 우승한 테너 정현수를 비롯 독일 하노버오페라극장 주역가수를 역임한 테너 전병호, 몽세라 카바예 국제콩쿠르에 입상한 이재욱, 프랑코 코렐리국제콩쿠르 특별상, 스위스를 감동케

한 오페라 '나비부인'의 주역 소프라노 이세이 등이 출연한다.

### 출연

테너 정현수, 테너 전병호, 테너 이재욱, 소프라노 이세이, 소프라노 김행제, 소프라노 김수진, 바리톤 김종화, 바리톤 김재섭  
· 피아노/임효진, 이수연

**입장료** VIP석 70,000원 · R석 50,000원  
S석 30,000원 · A석 20,000원

**문의** I SOLISTI(010-3380-7191)

## SDA플룻앙상블 전국순회연주회

19일 일요일 오후 7:00



오스트리아 린즈 부르크너 음악원 최고 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플루티스트 김은경과 삼육대학교 제자들로 구성된 SDA 플룻앙상블 전국 순회연주회.

### 프로그램

모차르트/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뮤직  
모차르트/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서곡  
라이하/Quatuor 등 수곡

**입장료** 초대

**문의** 김진복(010-3131-2913)

since 1955



MUN WOO DANG BOOK STORE  
www.mwdangbook.com

남포동  
자갈치 중앙아치탑 앞

각종 공연 예매처  
Tel: 245-3843

## 문우당서점의 특별한 혜택!

문우당서점 회원카드로 문우당과 CGV(영화)에서 사용!  
도서구입시 5%적립 CGV 10%적립 및 특정요일 할인

가마골소극장 할인! 문우당 영수증제시로 수요일은 문우당의 날로 50%할인 화·목·금요일 20%할인(일부대관공연 제외)

문우당 창립 51주년 기념 1년간 책구매시마다 사은품 증정  
부산교통수첩(버스노선 외), 세계명언집(수첩형), 세계지도  
캘린더 기타 사은품

통도환타지아, 경주월드 자유이용권 할인매장

책과 지도의 백화점  
전국최고의 종합지도와 지구본 대형매장(대형코팅 전문)

책 읽는 사람이  
아름답다!

충별 : 만남과 휴식공간  
(커피 · 코코아 각 100원)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 독일가곡연구회 제 29회 정기연주회

20일 월요일 오후 7:30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여 독일 가곡연구회에서 우리 귀에 익은 모차르트의 가곡을 비롯하여 이태리어 혹은 불어로 된 가곡들과 잘 알려지지 않은 곡들을 함께 들려준다.

**프로그램**

힐티/꿈에 보는 모습

야코비/클로에에게

바이셔/침묵

슈미트/이별의 노래

폰테/두근거리는 임의 가슴 등 수곡

**출연**

최훈녀, 정서영, 박민경, 김현주(소프라노)  
정옥심(메조 소프라노), 문대진, 우원석(이상 테너), 이민환, 허종영(이상 바리톤),

· 피아노/김남숙, 곽윤희, 손정화, 공소현

**입장료** 일반 10,000원 학생 5,000원

**문의** 김현식(011-566-4172)

## 부산시립극단 제 25회 정기공연 십이야(Twelfth Night)

24일-26일 금요일 오후 7:30  
토-일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극단이 셰익스피어의 낭만 정통 코미디극 '십이야(Twelfth Night)'로 2006년 새로운 레퍼토리에 도전한다.

· 원작/W.셰익스피어

· 연출/손기룡(부산시립극단 수석연출)

**출연**

유성주, 김은희, 염지선, 이혁우, 박찬영,  
이돈희, 임해련, 정행심, 이현주, 황창기,  
배진만, 조창주, 유재명 외

**입장료** 1층 15,000원 · 2층 10,000원

**문의** 부산시립예술단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극단(607-6136)

## 부산카머심포니오케스트라 제 14회 정기연주회

27일 월요일 오후 7:30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한 가정주부, 교사, 학원경영자들과 음대 대학원생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부산카머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멘델스존/신포니아 10번

차이코프스키/세레나데

헨델/라르고 등 수곡

· 지휘/안유경

· 특별출연/테너 이해원(부산가톨릭대음악  
교직원 부원장), 정이진(카머심  
포니오케스트라 단원)

**입장료** 균일 5,000원

**문의** 정성희(011-579-3019)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 제 29회 독우회 정기연주회-Klavier Abend-

28일 화요일 오후 7:30

독일 국립음대를 졸업한 부산지역 피아니스트들의 모임인 독우회가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을 맞아 김문주, 박윤정, 임효신, 변수현이 모차르트 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모차르트/10개의 변주곡, 소나타 K.  
311, 8개의 변주곡, 소나타 K.  
333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예은예술기획(632-6904)

## 임가진 바이올린 독주회

30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주회를 통해 부산 음악 애호가들과 친숙한 바이올리니스트 임가진 독주회.

서울예고 재학 중 도미하여 샌프란시스코

콘서바토리, 줄리아드 음대, 맨하탄 음대에서 음악수업을 한 임가진은 오디션을 통해 미국의 노바비스타 심포니, 쥘피터 심포니 등과 협연 무대를 가진 바 있다.

임가진은 최근 서울시교향악단 부수석으로 자리를 옮겨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프로그램**

베토벤/바이올린 소나타 제 6번 가장조 작  
품 30-1

비니아프스키/화려한 폴로네이즈 작품 21  
라장조

브람스/스케르췌 다단조 등 수곡

· 피아노/이혜진

**입장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문의** 아트뱅크코리아(761-3598,  
011-597-6808)

## 소극장

인형극단 까치 팡팡동화나라  
**장화신은 고양이**

24일 금요일 오전 10:20, 11:30

1987년 창단된 이후 다양한 작품을 선보여온 극단 까치의 팡팡동화나라 3월 무대로 레크레이션과 아동극 '장화신은 고양이'로 어린이들에게 웃음을 선사한다.

**입장료** 일반 10,000원 · 어린이 7,000원

**문의** 인형극단 까치(633-2114)

## 피리부는 사람들 제 9회 정기연주회

26일 일요일 오후 3:00

플룻 음악을 통해 서로 교류하고 사회봉사에 참여하기 위해 1997년 결성된 아마추어 플룻동호회 피리부는 사람들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크라이슬러/전주곡과 알레그로

헨델/소나타 제 4번

나카시마 미카/눈의 꽃

멘델스존/봄노래 등 수곡

· 찬조출연/김나연(을숙도교향악단 단원)

**입장료** 초대

**문의** 피리부는 사람들(010-3131-2913)

- 음악
- 무용
- 연극
- 영화
- 콘서트
- 행사
- 전시

● 주요문화공간

- 가람아트홀(626-6664)
- 가마골소극장(245-0042)
- 가톨릭센터(462-1870)
- 경성대학교 콘서트홀(620-4561)
- 국도아트홀(247-4242)
- 금정문화회관(519-4081)
- 글로벌아트홀(505-5995)
- 놀이아트홀(631-0660)
- 동래문화회관(550-4481)
- 동보서적 문화홀(803-8000)
- 동서대학교 소향아트홀(320-1209)
- 동아대학교 석당홀(240-2651)
- 동의대학교 석당아트홀(890-1081)
- 민족굿터 신명천지(515-7314)
- 부산민주공원(462-1016)
- 부산사회체육센터(744-1181)
- 부산시민회관(645-4951)
- 부산전시컨벤션센터(740-7300)
- 소극장 너른(622-3572)
- 실천무대 소극장(245-5919)
- 엑터스소극장(611-6616)
- 열린소극장(555-5025)
- 을숙도문화회관(220-5321~4)
- 추리문학관(743-0480)
- 프랑스문화원(465-0306)
- 40계단문화관(600-4041)
- KBS 부산홀(620-7100)
- MBC홀(760-1000)
- SH공간소극장(611-8518)

(※ 가나다순)

음악

노영심 피아노 콘서트  
**뉴 에이지 피아노**

5일 일요일 오후 4:00  
시민회관 대극장



소박하면서도 시적인 연주로 사랑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노영심이 마련하는 피아노 콘서트.

이번 무대에서는 따뜻한 봄의 감성을 노래한 뉴에이지 솔로곡과 피아노와 드럼, 베이스, 기타가 함께 어우러지는 감미로운 선율을 들려준다.

· 출연/노영심(피아노), 오종대(드럼), 김정배(기타), 김창현(콘트라베이스), 유진하(보컬)

**입장료** R석 55,000원 · S석 44,000원  
A석 33,000원 · B석 22,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전화예매시 10% 할인)

**문의** 인터파크(1544-1555)  
티켓링크(1588-7890)

김우진&오윤주 듀오연주회  
**러시아 첼로 소나타의 밤**

6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김우진

오윤주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짜르테움 국립음대 동문이자 코리아나 챔버뮤직소사이어티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첼리스트 김우진과

피아니스트 오윤주가 마련하는 듀오무대.

서울대학교와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를 졸업한 김우진은 현재 KBS 교향악단 수석, 코리아나 솔로리스트 앙상블 단원으로, 독일 뷔르츠부르크 국립음대를 졸업한 오윤주는 현재 인제대학교 교수로 있다.

**프로그램**

프로코피에프/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다장조 작품 119  
라흐마니노프/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사단조 작품 19 등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예술기획 프로인트(521-5729)

**노모스 플루트앙상블 창단연주회**

7일 화요일 오후 7:3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인 플루티스트 박찬엽의 제자들로 결성된 노모스 플루트앙상블 창단 연주회.

**프로그램**

베버/오페라 '오이리안테' 서곡  
콜/트리오 작품 31  
에반스/플루트 피에스타 등 수곡  
· 출연/박찬엽, 김인호, 정병태, 김성민

**입장료** 무료

**문의** 김인호(017-554-7777)

**중국 국립 심포니오케스트라 내한공연**

7일 화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대극장

'타임스'로부터 '생명력 넘치는 소리를 가진 원숙한 그룹'이라는 평가를 받은 중국 국립 심포니오케스트라 부산공연.

이번 무대에서는 감성과 논리를 겸비한 피아니스트 김대진과 최연소 서울대학교 교수로 임명되어 화제를 모은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의 협연으로,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과 쇼스타코비치 탄생 100주년을 맞아 모차르트와 쇼스타코비치의 곡을 연주한다.

· 지휘/린 신차오

**입장료** VIP 100,000원 · R석 80,000원  
S석 60,000원 · A석 4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아트인부산(442-6500)

##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 ■ 8일 소프라노 정태미 독창회

현재 동서대학교 교수로 있는 소프라노 정태미 독창회.

**프로그램**

브람스/집시의 노래

드보르작/집시의 노래 등 수곡

- 특별출연/바리톤 하병욱
- 피아노/최윤희

### ■ 15일 유망 신예연주자들의 밤

차세대 유망주들이 펼치는 신예 연주자들의 밤.

- 출연/윤승하(브니엘예고 3년), 김제임(부산예고 3년), 손소정(부산예고 2년), 이승우(브니엘예고 3년), 박소희(부산예고 2년), 장희영(부산예고 2년)

### ■ 22일 부산우드윈드앙상블 '목관5중주와 타악기, 피아노의 만남'



지난해 5월 첫 창단연주회 이후 다양한 장르의 연주를 선보여온 부산우드윈드앙상블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어게이/5개의 쉬운 춤곡

파랑/6중주곡 다단조 작품 40 등

- 출연/최낙주(플루트), 박지연(오보에), 원준연(클라리넷), 이대현(바순), 최영희(호른)

- 협연/윤두현(클라리넷), 김성희(피아노)

### ■ 29일 박정현 피아노 독주회

중앙대학교와 독일 라이프찌히 국립음대, 바이마르 국립음대를 졸업한 피아니스트 박정현 독주회.

**프로그램**

쇼팽/즉흥환상곡, 야상곡 작품 9 제 2번

슈만/어린이의 정경 중 '꿈' 등 수곡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금정문화회관(519-5651~2)

## 오페라 비밀결혼

9일(목)-16일(목)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완성도 높은 음악과 실감나는 연기로 정통 이태리 오페라 부파를 선보일 오페라단 가야와 에코폴리스 오페라단의 합동무대 오페라 '비밀결혼'.

몰래 결혼한 한 쌍의 연인을 둘러싼 좌충우돌 해프닝을 유쾌하게 그린 치마로자의 오페라 '비밀결혼'은 연극적인 대사가 많아 극의 이해가 쉬운 오페라 부파(18세기 대중적인 오페라)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 지휘/안젤로 잉글레제 · 연출/유희문
- 출연/이재란, 김미정, 김민정, 김나영, 김한나, 황혜진, 임혜정, 장은미, 이하정, 김나영, 서주연, 곽성섭, 조성흠, 김철수, 황성학 외

**입장료** VIP 70,000원 · S석 50,000원  
A석 3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오페라단 가야(636-3139)

## 제 6회 신춘음악회

10일 금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소극장

부산지역 5개 대학 음악대학원을 졸업하는 신인 유망주들의 발표무대를 위해 음악협회

부산지회에서 매년 마련하는 신춘음악회.

- 출연/김주곤(테너, 고신대), 최판수(바리톤, 고신대), 한유주(플루트, 동아대), 정연화(소프라노, 동아대), 권유림(피아노, 신라대), 토야마 나오키(플루트, 부산대), 김병기(피아노, 경성대)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음악협회(634-1295)

2006 하이리빙 전국 순회

## 신춘음악회

18일 토요일 오후 3:00, 7:30  
시민회관 대극장

어렵게만 느껴지던 클래식 음악을 보다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익숙한 클래식과 가곡, 드라마 OST, 팝 등 다양한 연주곡으로 새 봄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신춘음악회.

**입장료** 초대

**문의** (주)감이엔티(02-535-8624)1

## 곽승웅 클래식기타 독주회

18일 토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현재 우리가정의원 병원장으로 있는 클래식기타리스트 곽승웅 독주회.

지난 1993년 전국기타콩쿠르에서 입상한 곽승웅은 그동안 4차례 독주회를 비롯 부산시립교향악단과의 협연, 배영식 기타트리오 창단연주회, 리코더와 기타를 위한 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프로그램**

바흐/프렐류드

아구아도/화려한 론도

헨델/트리오 소나타 사장조 등 수곡

· 특별출연/변종인(리코더), 전진선(거문고)

**입장료** 초대

**문의** 박승웅(757-7552)

## 모차르트 페스티벌 Mozart Project in Busan - Chamber Music

18일(토), 21일(화), 25일(토) 오후  
8:00 글로빌아트홀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을 맞아 부산 최고의 연주자들이 들려주는 실내악의 향연.

부산시립교향악단, 서울시교향악단 악장을 역임하고 현재 인제대학교 교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신상준을 비롯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을 역임한 첼리스트 유대연,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으로 있는 비올리스트 김가영 등 실력있는 음악인들이 모차르트의 실내악 프로그램으로 세차례 연주회를 갖는다.

### ■ 18일(토)

피아노 트리오 K.548 다장조, 피아노 4중주 K.478 사단조, 현악 4중주 K.465 다장조 'Dissonance'

### ■ 21일(화)

피아노 트리오 K.502 내림나장조, 피아노 4중주 K.493 내림나장조, 현악 4중주 K.458 내림나장조 'The Hunt'

### ■ 25일(토)

피아노와 관악기를 위한 5중주 K.452, 클라리넷과 현을 위한 5중주 K.581 가장조

· 출연/신상준, 엄세희(바이올린), 유대연(첼로), 김가영(비올라), 정성흡(피아노), 이영칠(혼), 서상백(오보에), 이정환(클라리넷), 윤태준(바순)

· 협연/계희정(클라리넷)

**입장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문의** 글로빌아트홀(505-5995)

## 엘파 재즈&팝 싱어즈 부산공연

19일 일요일 오후 5:00  
KBS 부산홀

세계합창올림픽 재즈&팝 부문 3회 연속 그랑프리 수상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엘파 재즈&팝 싱어즈 부산공연.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뮤지컬 콘서트' 라는 부제로 마련된 이번 무대에서는 레미제라블, 캣츠, 오페라의 유령, 미스 사이공 등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뮤지컬 명곡과 우리가요 등을 들려준다.

**입장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A석 3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아트인부산(442-6500)

## 바이올리니스트 황지원의 테마콘서트 I Dance & Melody

20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서울대학교와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대를 졸업하고 현재 콰르텟 뮤즈 단원으로 활동중인 바이올리니스트 황지원의 테마콘서트.

### 프로그램

모차르트/바이올린 소나타 K. 378

스트라빈스키/이탈리안 모음곡

차이코프스키/멜로디 등 수곡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예술기획(0505-700-9798)

## 교례아 오페라단 버섯피자

21일(화)-24일(금) 오후 7:00,  
9: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19세기 이태리를 배경으로 사랑과 배신, 질투와 증오에 얽힌 두 쌍의 남녀 사이에 일어난 비극적 사건을 코메디로 풀어낸 희극오페라 '버섯피자'.

· 작곡/세이무어 바랍

· 총연출/김성경 · 연출/양지웅

· 연주/교례아 오케스트라(지휘/오창록)

· 출연/김양자, 송윤경, 박은미, 장은영, 박소년, 이지영, 성미진, 박소연, 김현식, 김정오, 김성현, 장진규, 하병욱, 안영중, 김성복

**입장료** R석 50,000원 · S석30,000원

A석 20,000원 · B석10,000원

**문의** 문화기획 LMC(747-9767)

노경원 피아노 독주회

##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

23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서울대학교와 독일 베를린 국립예술대학, 드레스덴 국립음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현재 인제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

아니스트 노경원 독주회.

바흐가 그의 아내를 위해 편집한 클라비어 곡집 중 '아리아'로 이름붙여 30개의 변주의 주제로 작곡한 '골드베르크 변주곡 작품 988'을 들려준다.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예술기획 프로인트(521-5729)

## 김수현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25일 토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연세대학교와 미국 이스트만 음대를 졸업한 바이올리니스트 김수현 귀국 독주회.

김수현은 전국 음악콩쿠르 대

상, 한미음악콩쿠르 3위, 한국브람스협회 콩쿠르 3위에 입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모차르트/바이올린 소나타 K. 378  
 브람스/바이올린 소나타 제 1번 작품 78  
 루토슬라브스키/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수비토(Subito) 등 수곡

· 피아노/강민경

**입장료** 초대

**문의** 김수현(011-9793-2984)

**배진의 귀국 작곡발표회**

26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부산대학교를 졸업하고 도미, 하트포드 음대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한 작곡가 배진의 귀국 작곡 발표회.

배진은 현재 MiOT(우리시대음악) 회원으로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해오고 있다.

**프로그램**

오보에와 피아노를 위한 'Winter Scene', 플룻 솔로를 위한 '사군자', 바순과 마림바, 오보에를 위한 트리오 등 수곡

**입장료** 초대

**문의** 예술기획(0505-700-9798)

**배미정 귀국 피아노 독주회**

27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동아대학교와 독일 뷔페탈 국립음대(석사), 라이프찌히 국립음대(박사)를 졸업한 피아니스트 배미정 귀국 독주회.

배미정은 독일 라이프찌히 실내악콩쿠르 듀오부문 1위에 입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베토벤/소나타 다장조 작품 53

쇼팽/발라드 작품 23

드뷔시/프렐류드 등 수곡

**입장료** 초대

**문의** 예술기획(0505-700-9798)

장애인을 돕기 위한

**제 1회 음악사랑회 정기 연주회**

28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극장

2005년 7월 음악을 좋아하는 아마추어 연주자 30여명으로 결성된 음악사랑회의 첫 번째 정기연주회.

· 출연/서관호, 이옥진(시조낭송), 홍성택, 권종대(클라리넷), 최명호(플룻), 김성보(테너), 한성권, 민정식(바리톤), 강현철, 이상준(가요)

**입장료** 일반 10,000원 학생 5,000원

**문의** 김성보(011-559-4919)

글로벌콘서바토리 교수음악회

**2006 봄의 향연**

30일 목요일 오후 8:00  
 글로벌아트홀

3월 개원하는 글로벌콘서바토리 교수들이 새 봄을 맞아 들려주는新春음악회.

**프로그램**

신영순/주기도

푸치니/오페라 '라보엠' 중 '돈데리에따'

라흐마니노프/프렐류드 작품 32 등 수곡

· 출연/백선아(소프라노), 정옥심(알토), 강학윤(테너), 배희영, 이성주(피아노), 고충진(클래식기타), 박종관(오보에)

· 특별출연/동의트리오(이동섬, 백재진, 박병훈)

**입장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제 3회 나모 정기음악회

**아마추어 솔리스트들의 봄맞이 가곡의 밤**

30일 목요일 오후 6:45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음악을 통한 따뜻한 세상만들기를 추구하는 '나눔을 배우는 사람들의 모임(나모)' 세 번째 정기공연으로, 부산지역 합창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마추어 성악가들의 솔로무대로 마련된다.

· 우정출연/해운대구 여성합창단(지휘/김정환)

**입장료** 초대

**문의** 신용숙(010-7744-4317)

**시끄러운 음악회**

3월 31일-4월 1일 금요일 오후 2:00, 4:00,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시민회관 대극장



지루하던 기존의 클래식 음악회와 달리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어린이를 위한 클래식 콘서트 '시끄러운 음악회'.

**프로그램**

관현악 연주곡/라데츠키 행진곡, 페르시안 마켓, 윌리엄 텔 등

애니메이션 삽입곡, 동요 메들리 등 수곡

· 구성, 연출/변경철

· 음악감독 및 지휘/손경균

**입장료** R석 25,000원 · S석 2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원스테이지(1588-0881)

**연극**

**미스터리 추리극 쥐뿔**

2월 10일(금)-3월 12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6:00(월요일 공연없음) SH공간소극장

폭설로 고립된 여관에 일어난 살인사건을 치밀한 구성으로 그려낸 아가사 크리스티의



추리소설을 소설가 자신이 직접 각색한 미스 테리 추리극.

· 작/아가사 크리스티 · 연출/최재민

**입장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문의** SH공간소극장(611-8518)

## 뮤지컬 결혼

3월 15일(수)-4월 30일(일) 오후 7:30, 주말 오후 6:00(월요일 공연없음) SH공간소극장



빈털터리 남자가 결혼을 하기 위해 모든 물건을 빌려 여자를 초대하지만 제한된 짧은 시간내에 그 빌린 물건들을 돌려줘야

하면서 벌어지는 헤프닝을 통해 결혼의 궁극적 방정식을 풀어가는 작품.

· 작/이강백 · 연출/김만중

**입장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문의** SH공간소극장(611-8518)

가마골소극장 개관 20주년 기념공연 시리즈 I

## 바보각시

3월 17일(금)-4월 9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가마골소극장



1993년 초연 당시 파격적인 연극 언어와 시적 구성으로,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현대인의 모습을 통해 사랑의 본질을 표현한 수작으로 평가 받았던 '바보각시'는 춤과 노래, 인형과 사람, 가면과 기타반주가 어우러지는 메타드라마 형식의 연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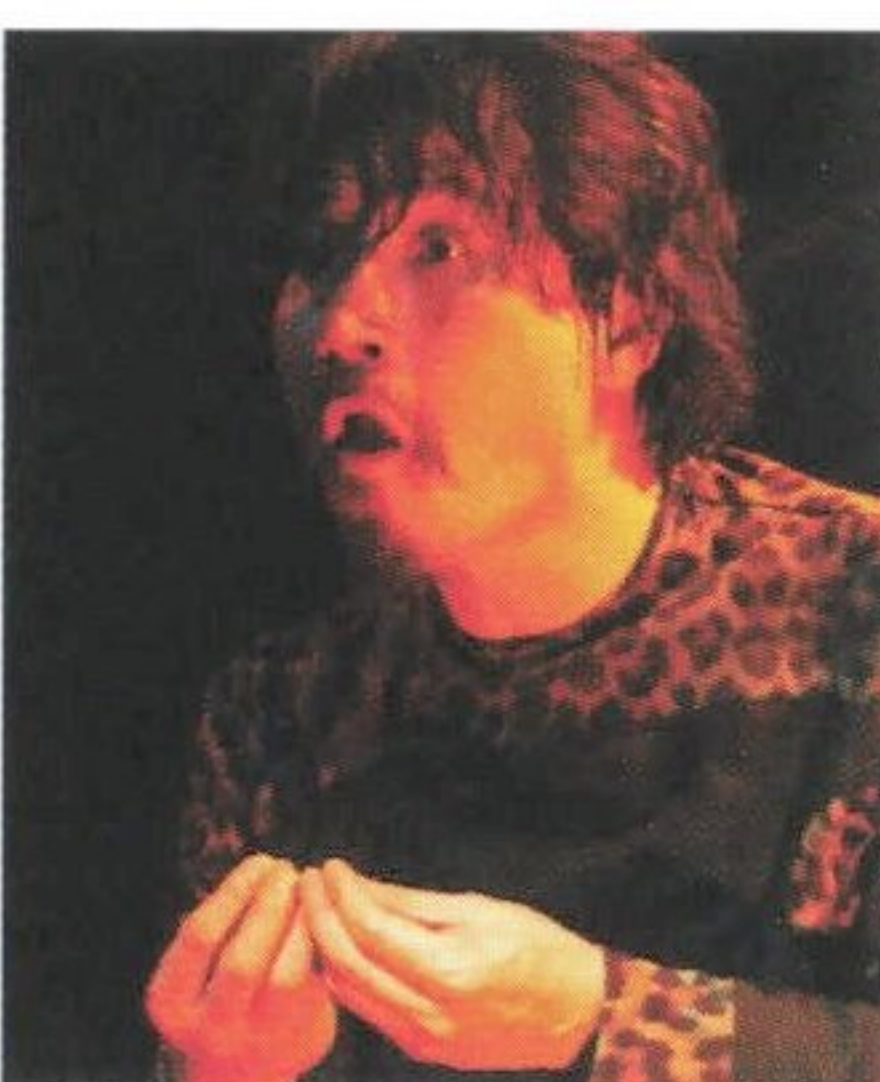
· 작, 연출/이윤택(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 연습감독, 인형제작/정동숙  
· 출연/이윤주, 문원령, 김소희, 이승현, 박병규, 김송일, 오성택, 길현숙 외

**입장료** 일반 20,000원 · 학생 1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가마골소극장(245-0042)

## 권철 모노드라마 호랑이 아줌마

3월 21일(화)-5월 21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6:00  
놀이소극장



지난 한해동안 많은 무대에 올려져 호평을 받았던 권철의 모노드라마.

이탈리아 극작가 다리오 포가 중국 여행길에서

만난 장터연극을 이탈리아 서민층이 즐기던 즉흥희극 코메디아 델라르테 형식으로 옮긴 작품으로, 극의 배경과 내용을 우리의 근현대사로 옮겨 새롭게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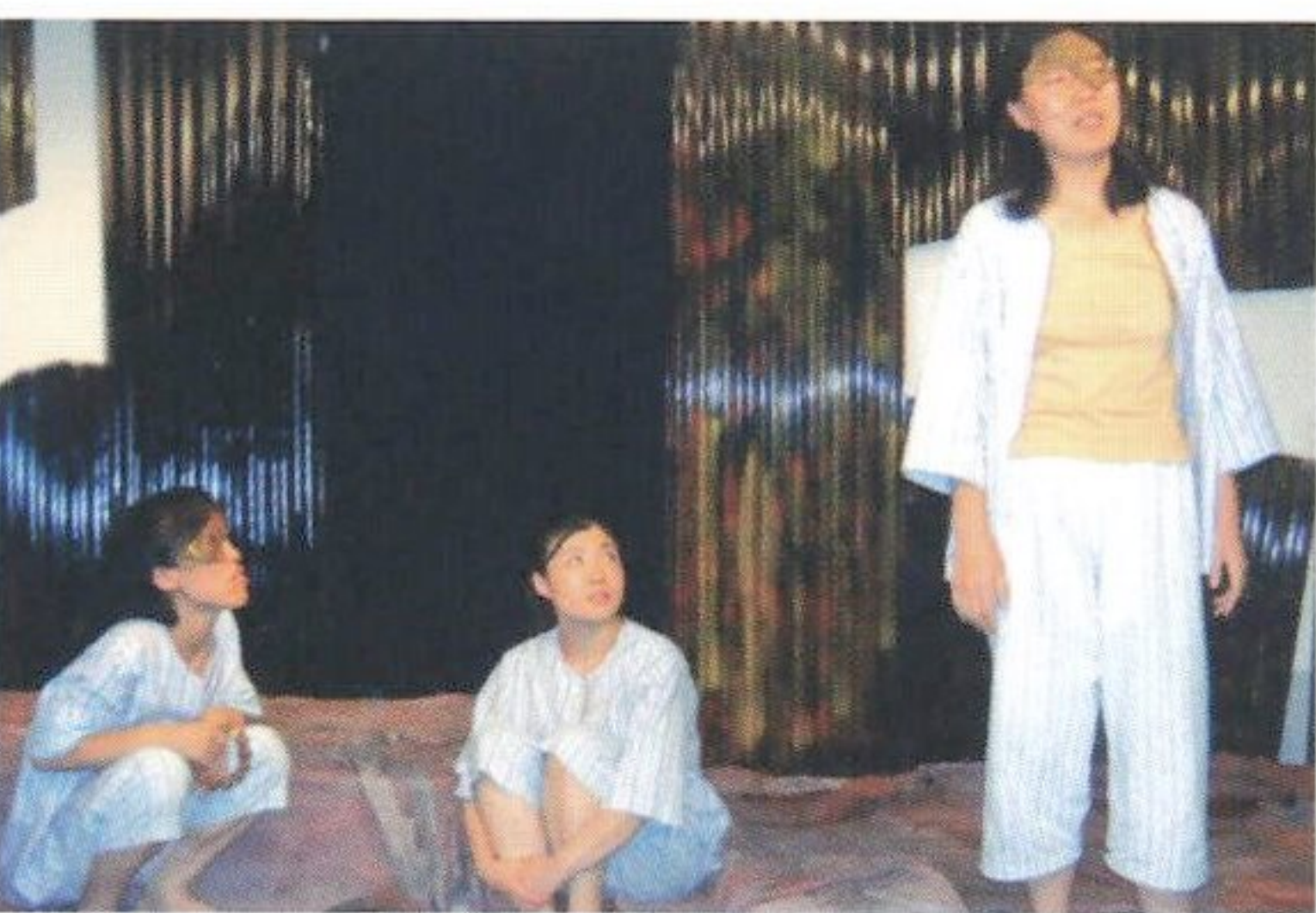
**입장료** 일반 20,000원 · 중고생 10,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권철(646-0326)

놀이소극장(631-0660)

## 연희극 히로시마 메시지

25일 토요일 오후 4:00, 7:00  
시민회관 소극장



관객이 만들어가는 문예센터 설립을 위한 극단 새벽의 기획공연으로, 한국인 피폭자 최영주의 삶을 통해 한 개인의 삶이 역사와 어떻게 닿아있는지를 연희극 특유의 노래와

춤, 연기로 펼친다.

· 원작/홍가이(원제:히바쿠샤)  
· 재구성, 연출/이성민 · 작곡/조익래  
· 출연/변현주, 이현식, 임태성, 황정애, 권민중, 유창민 외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소극장 실천무대(245-5919)

## 그린벤치

29일-30일 수-목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소극장

'2005 올해의 예술상' 수상작을 전국 주요 도시에서 공연하는 '올해의 예술축제'에 선정된 연극 '그린벤치'.

2005 서울연극제 우수상, 연출상, 연기상, 신인연기상, 무대예술상 등 5개 부문을 수상한 '그린벤치'는 도박에 빠진 아버지, 바람난 어머니 등 자폐적인 가족을 일상적으로 그려내 가족 붕괴의 섬뜩한 현실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 작/유미리 · 연출/이성열

· 출연/예수정, 이지하, 정만식, 김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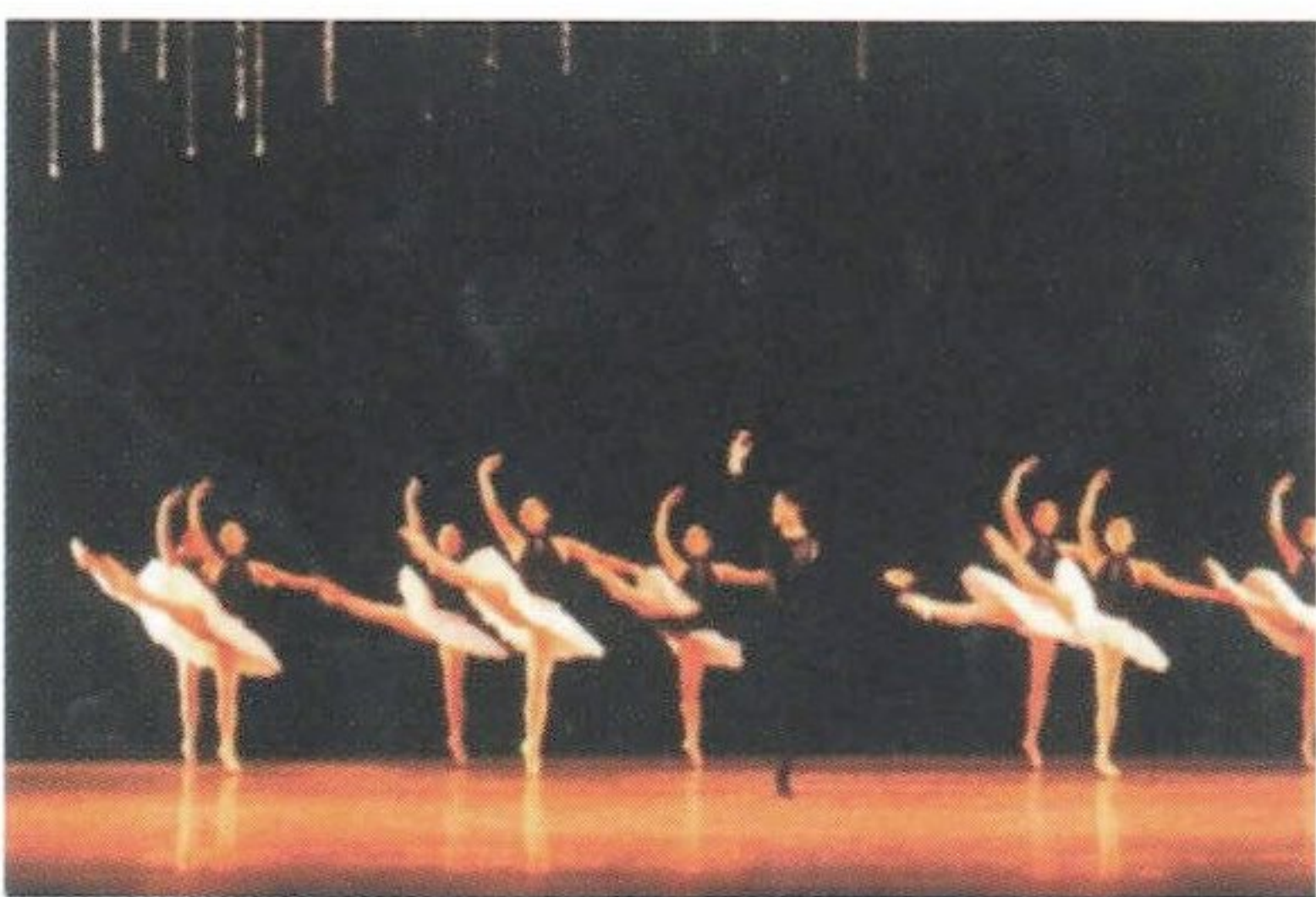
**입장료** 초대

**문의** 시민회관(630-5200)

## 무 용

### 메트로발레단 제 4회 정기공연

18일 토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국립발레단 단원을 역임한 김희옥을 단장으로, 지난 2003년 창단공연을 가진 메트로발레단은 매년 두 번의 정기공연을 통해 클래식 발레와 창작발레를 선보여왔다.

**작품**

These Days(안무/박정윤)  
아폴로(안무/조지 발란신, 재안무/서유미)  
유니온 잭(안무/조지 발란신, 재안무/김희  
옥) 등

**입장료** 일반 15,000원 · 학생 10,000원

**문의** 메트로발레단(515-8181)

2006 현대무용단 주-□ 정기공연  
**The Smbol of Dream**

24일 **금요일** 오후 8:0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1988년 결성된 후 새롭고 다양한 시도로  
관객과 만나온 현대무용단 주-□은 이번 무  
대에서 '꿈'과 '이상'이란 주제로 다양한 춤  
의 언어를 재구성한 작품을 선보인다.

**작품**

꿈 II(안무/이지언, 출연/이정임, 강소정, 이  
경미, 송혜주)  
선택(안무/곽선영, 출연/조영미, 김종현 외)  
선물(안무/조영미, 출연/이정임, 강소정, 변  
지원, 서은옥, 이경미 외)  
· 예술감독/한은주(경성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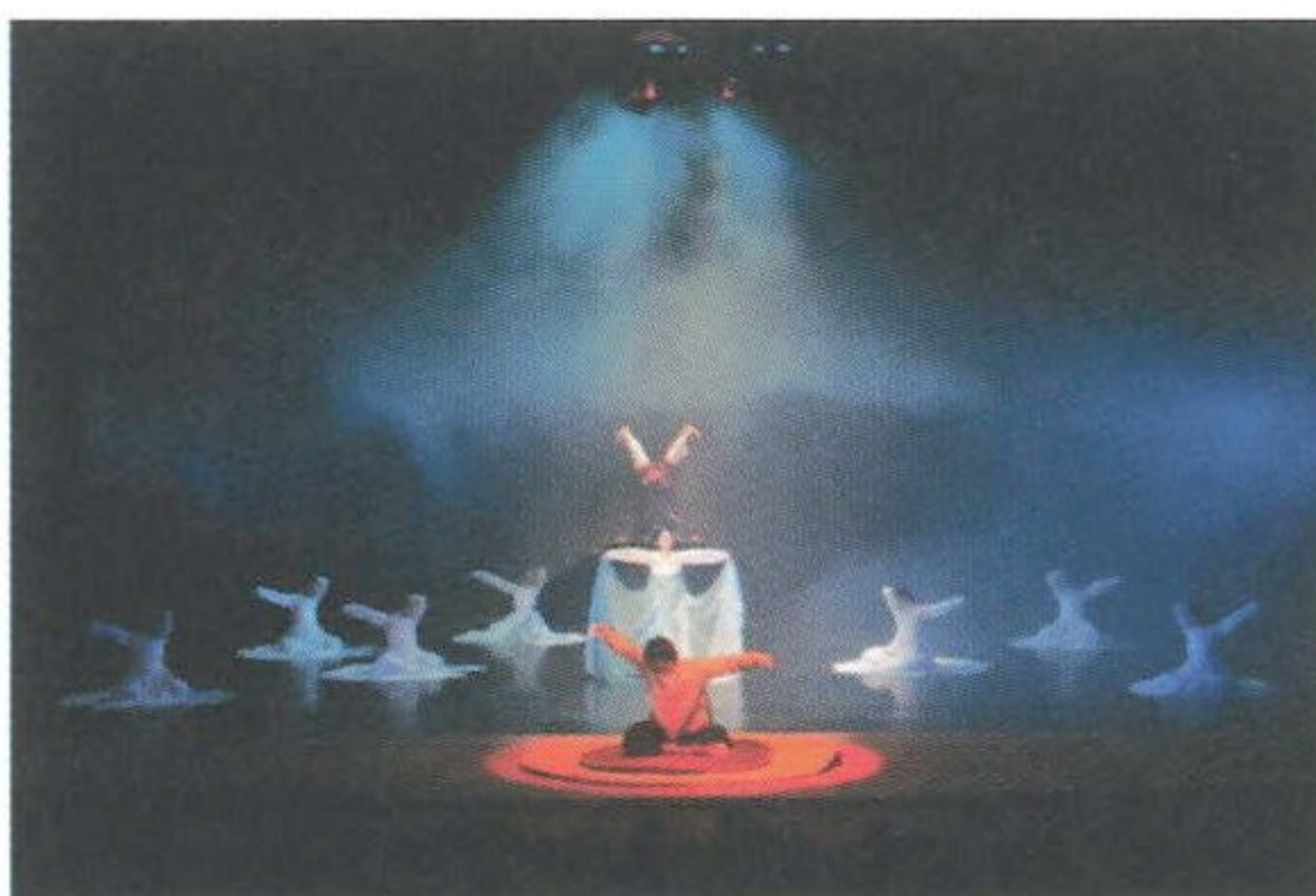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7,000원

**문의** 조영미(010-7997-6386)

蓮亭 CHM 기획시리즈

**춤맥 이어가기**

29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극장



부산대학교 이윤자 교수가 이끄는 연정(蓮  
亭) CHM 연구원들이 마련하는 연작시리즈  
'춤맥 이어가기' 솔로춤판.

지난 2001년 결성된 연정 CHM은 이윤  
자 교수의 아호인 '연정'과 '춤 화두 만남  
(Chum Hwadoo Meeting)'을 뜻하는  
영문 첫글자를 딴 이름으로, 꾸준한 이론의

정립을 통해 우리춤의 새로운 맥을 이어나가  
고 있다.

**프로그램**

1부 전통무/태평무, 살풀이, 승무  
2부 전통춤의 재해석  
· 출연/김미자, 이봉진, 이규운

**입장료** 균일 1만원

**문의** 부산대학교(510-2949)

**영 화**

시네마테크 부산  
**예술영화 일반상영**

2월 17일(금)-3월 23일(목)  
시네마테크 부산



1972년 미국 전역을 놀라게 했던 하드코  
어 포르노영화 '목구멍 깊숙이'의 모든 것을  
파헤친 다큐멘터리 '인사이드 딥 스포트'와  
2005년 베를린국제영화제 베를리너짜이퉁  
을 수상한 신재인 감독의 '신성일의 행방불  
명', 2005년 선댄스영화제 심사위원 특별  
상, 칸느영화제 황금카메라상 수상작 미란다  
줄라이 감독의 '미 앤 유 앤 에브리원',  
2005년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다  
르덴 형제의 '더 차일드', 전도유명한 패션  
사진작가에게 어느날 찾아온 죽음을 소재로  
한 프랑소와 오종 감독의 '타임 투 리브' 등  
이 교차상영된다.

**입장료** 균일 4,000원

**문의** 시네마테크 부산(742-5377)

**수요씨네클럽-존 카사베  
츠 '글로리아'**

22일 **수요일**  
시네마테크 부산(시간미정)

매월 셋째 수요일에 영화감독, 배우, 평론

가들의 추천작을 함께 관람한 후 관객과의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는 시네마테크 부산의  
수요씨네클럽. 3월에는 '달콤한 인생'의 김  
지운 감독이 추천하는 존 카사베츠 감독의  
'글로리아'가 상영된다.

**입장료** 균일 7,000원

**문의** 시네마테크 부산(742-5377)

**시네마테크 부산 월드 시네마III**

3월 23일(금)-4월 16일(일)  
시네마테크 부산(시간 미정)

지난 2005년부터 세계 영화사의 위대한  
영화들을 모아 상영해온 시네마테크 부산의 특  
별기획전 '월드 시네마' 세번째 상영.

루치노 비스콘티의 '베니스에서의 죽  
음'을 비롯 알랭 레네 '지난해 마리앵바  
드에서', 허우 샤오시엔 '쿵푸에서 온  
소년' 등 21편의 작품이 상영된다.

**입장료** 균일 4,000원(강연이 있는 상영은  
7,000원)

**문의** 시네마테크 부산(742-5377)

**아 동 극**

**어린이 전래동화극  
혹부리 영감**

2월 28일(화)-3월 12일(일) **평일**  
오후 4:00, **주말** 오후 1:00,  
3:00(3/6일~3/10일 공연없음)  
SH공간소극장

도깨비를 속여 혹은 떼 착한 혹부리 영감  
과 욕심을 부리다 혹은 하나 더 붙인 심술통  
영감을 통해 권선징악을 그린 전래동화 '혹  
부리 영감'을 극화한 작품.

**입장료** 균일 12,000원

**문의** 어린이연극학교(621-8518)

**가족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4일-5일 **토-일요일** 오후 12:00,  
2:00, 4:00 **시민회관 소극장**

회오리바람에 휩쓸려 오즈의 나라에 가게  
된 소녀 도로시가 펼치는 모험의 세계를 통

해 지혜와 용기, 우정을 그린 가족뮤지컬.  
· 각색, 연출/고광수  
· 출연/강경덕, 박현일, 정선철, 권용범 외  
**입장료** 균일 10,000원(예매 7,000원)  
**문의** 극단 동행(02-984-0251)

### 상설극장 팡팡 동화나라 **장화신은 고양이**

17일 **금요일** 오전 10:20, 11: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인형극단 까치에서 매월 셋째주 금요일 동래문화회관에서 마련하는 상설무대로, 주인을 돕는 영리한 고양이의 활약을 그린 명작 동화 '장화신은 고양이'를 극화한 가족뮤지컬을 선보인다.

**입장료** 일반 10,000원 · 어린이 7,000원  
**문의** 인형극단 까치(633-2114)

### 어린이뮤지컬 **개구리 왕눈이**

18일-19일 **토-일요일** 오후  
12:00, 2:00, 4:00  
시민회관 소극장

가재마왕에게 붙잡힌 부모를 구출해내는 개구리 왕눈이와 친구들의 참된 용기를 통해 가족간의 사랑과 친구들과의 우정을 그린 어린이 뮤지컬.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제일기획(050-2134-2580)

### 일곱 마리 아기염소와 늑대

24일(금)-26일(일) **금요일** 오전  
10:10, 11:20, **토-일요일** 오후  
12:00, 2:00, 4:00을숙도문화회관  
3월 31일(금)-4월 2일(일) **금요일**  
오전 10:10, 11:20, **토-일요일**  
오후 12:00, 2:00, 4: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연극놀이를 통하여 객석과 관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뮤지컬 형식의 인형극.

**입장료** 균일 12,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3,000원 할인, 매표소에서 카드제시)  
**문의** 공연기획 DUBU  
(02-2654-6854)

### 2006년 초대형 라이브 가족뮤지컬 **하늘을 나는 피터팬**

25일-26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시민회관 대극장

하늘을 훨훨 나는 피터팬과 요정 킥벨이 이끄는 신나는 꿈과 상상의 세계가 펼쳐지는 가족뮤지컬.

· 연출/한상곤  
**입장료** 1층 25,000원 · 2층 20,000원  
**문의** 서울국민뮤지컬컴퍼니  
(516-0081~2)

### 콘서트

### 장윤정 부산 첫 콘서트- 콩깍지

4일 **토요일** 오후 4:00, 8:00  
KBS 부산홀

**입장료** R석 60,000원 · S석 4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아마데우스(1588-9088)

### 소외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평등 평화 **2006 아름다운 콘서트**

11일-12일 **토-일요일** 오후 5:00  
시민회관 소극장



값비싼 입장료로 문화향유의 기회를 빼앗긴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한 2006 아름다운 콘서트.

대표적인 민중가요 집단인 희망의 노래 '꽃다지'와 꽃다지 출신의 가수 서기상 밴드가 출연, 노동자들과 민중의 삶을 노래한다.  
**입장료** 균일 12,000원(예매시 10,000원)  
**문의** 부산민예총 노동문화위원회  
(635-5370)

### 행사

### 제 47회 시울림 시낭송회

1일 **수요일** 오후 7:0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 초대시인/차한수, 배기환, 김정순, 안효희, 이선형, 전홍준, 김양지  
· 사회/한창옥 · 음악연출/김옥균

**입장료** 무료  
**문의** 이해웅(500-7214)

### 전시

### 바비 스토리 부산전

2월 8일(목)-4월 26일(수)  
부산전시컨벤션센터 3층 다목적홀

· 관람시간/오전 11:00~오후 7:00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8,000원  
**문의** EMS CmbH(740-3800)

### 근대를 달리는 철도展

2월 14일(화)-4월 30일(일)

부산우체국 앞 거리의 전차, 동래온천장 왕복기차, 경부선 개통식 등 총 31점의 사진이 전시되는 부산근대역사관 기획전.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근대역사관(253-3845~6)

### 'Avion(비행기)' 그룹전

3월 3일(금)-3월 31일(금)

· 참여작가/이원주, 김경호, 박영선, 티나 김, 안정영, 이원주  
**문의** 부산프랑스문화원(465-0306)

### 사진모임 화이트 전기전

3월 6일(월)-3월 11일(토)  
부산광역시청 제 1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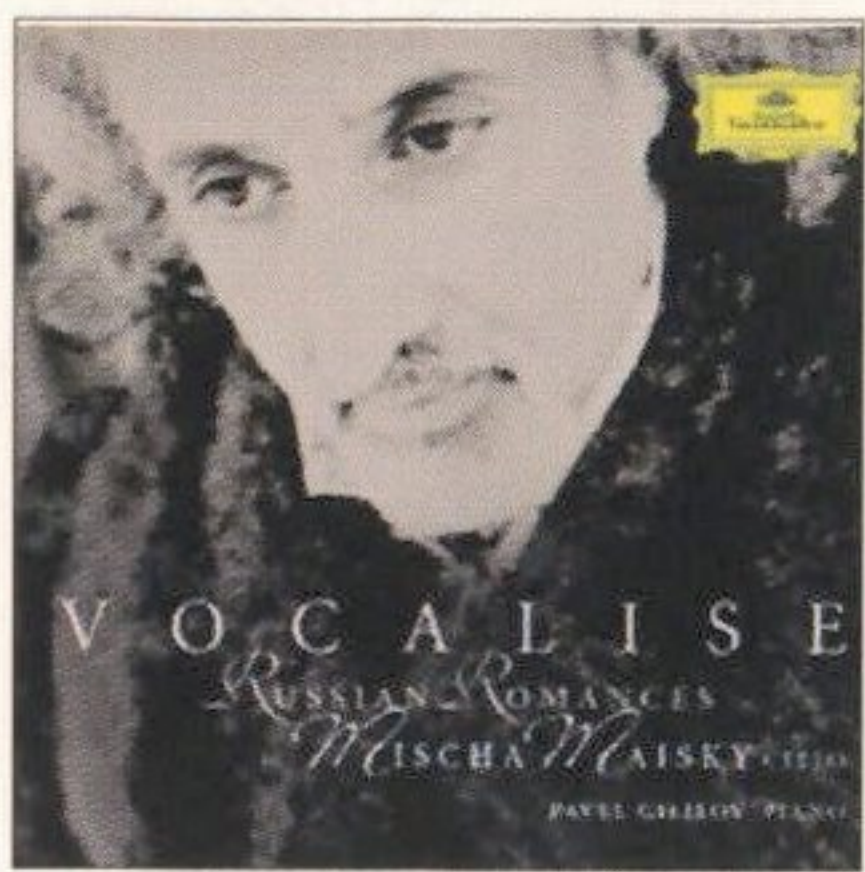
**문의** 사진모임 화이트(866-3352)

### 소향회 닥종이 인형전

3월 21일(화)-3월 29일(수)  
시민회관 1층 전시실

**문의** 문미순(016-569-9182)

## [미샤 마이스키와 '러시안 로망스' Vocalise]



이 앨범은 러시아 가곡 전통에 대한 미샤 마이스키의 개인적인 헌정으로 마이스키는 여기서 한 개인으로서 그리고 예술가로서 얘기하고 있다. 이 리사이틀을 위한 소재를 선택하면서 그는 다양한 스타일보다는 감정의 깊이에 주안점을 뒀다.

“모든 노래가 어쩔든 낭만적이고 우울합니다. 어떤 청자는 이 곡들이 대표적인 것도 아니고, 다양하지도 않다고 말할 겁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나 예술가로서나 뭔가를 좋아할 때 다양성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나는 한 음식점이 좋으면 계속 그곳에서 먹습니다. 그리고 32년 동안 똑같은 첼로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지속적인 관계를 깊이 신뢰합니다. 일단 한 음악이 좋으면 싫증나지 않고 계속 연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향과 태도가 이 '러시안 로망스'의 선곡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 ■ 수록곡

글린카/종달새, 그대와 함께 있어 얼마나 좋은지, 아름답던 한 때를 추억한다  
차이코프스키/자장가, 그리움을 아는 사람만이, 열정적인 밤, 밤, 이른봄이었네, 나는 슬프다  
라흐마니노프/내게 노래하지 마오, 아름다운 아가씨, 이 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칼리제 등 수곡

## [Mozart Piano Trio K.502, 542, 548]



2006년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과 안네-조피 무터의 데뷔 3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에디션으로 모차르트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의 천재성에 대한 깊은 존경을 이번 앨범에 담았다.

무터의 모차르트 시리즈 3부작 중에 두 번째로 모차르트의 피아노 트리오 5곡 중에 애착을 가지는 3곡을 직접 선곡하여 수록한 이번 앨범은 모차르트 실내악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앨범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05년 5월 독일 바덴바덴 라이브 녹음으로, 피아니스트 앙드레 프레빈, 첼리스트 다니엘 뮐러-슈오투가 함께 연주했다.

## [보케리니 판당고, 신포니아 마드리드 거리의 밤의 음악 (야상곡)]



보케리니는 2대의 첼로를 사용하는 형식을 좋아하고 5중주곡의 선구적인 역할로 이탈리아의 로코코 양식과 빈 고전주의 대가들 사이에서 중요한 작곡가이다. 모차르트처럼 천성이 우울하고 극적이기도 했던 그는 색채에 대한 배려와 각 악기에 대한 교묘한 처리 <콜 레노주법>을 구사했으며, 때로는 비발디의 가장 두드러진 몇가지 특징의 후계자로서 분위기에 뛰어난 감성을 지니고 있어 이 두 대작곡가들의 양면성이 음악으로 표현되면서 실내악의 기초와 대중화를 일으켰다.

여기에 실린 곡들은 보케리니의 대표적인 작품들로 무곡을 비롯하여 신포니아 그리고, 그의 실내악 중 최고의 작품인 5중주곡 '마드리드 거리의 밤의 음악'이 실려있다. 곡 전체가 애절함과 음의 풍만감 그리고 즐거움으로 가득차 있으며, 또한, 유머적인 위트도 간간히 발산되곤 한다. 이처럼 지휘자 사발은 모차르트와 비발디의 양면성을 지닌 보케리니의 특성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또렷히 들리는 판당고 무곡의 캐스터네츠 리듬이 열정적으로 다가와 라 폴리아를 듣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며, 콜 레노주법이 잘 드러나는 '마드리드 거리의 밤의 음악' 작품은 비록 짧은 곡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이상으로 음악사적 자료로 가치가 있는 곡이다.

■ 연주/호세 데 우다에타(캐스터네츠), 로프 리슬레반트(기타), 만프레드 크래머(바이올린), 브루노 콕셋(첼로), 르 콩세르 드 나시옹(지휘/조르디 사발)

■ 글/비바체클래식 제공

## [이(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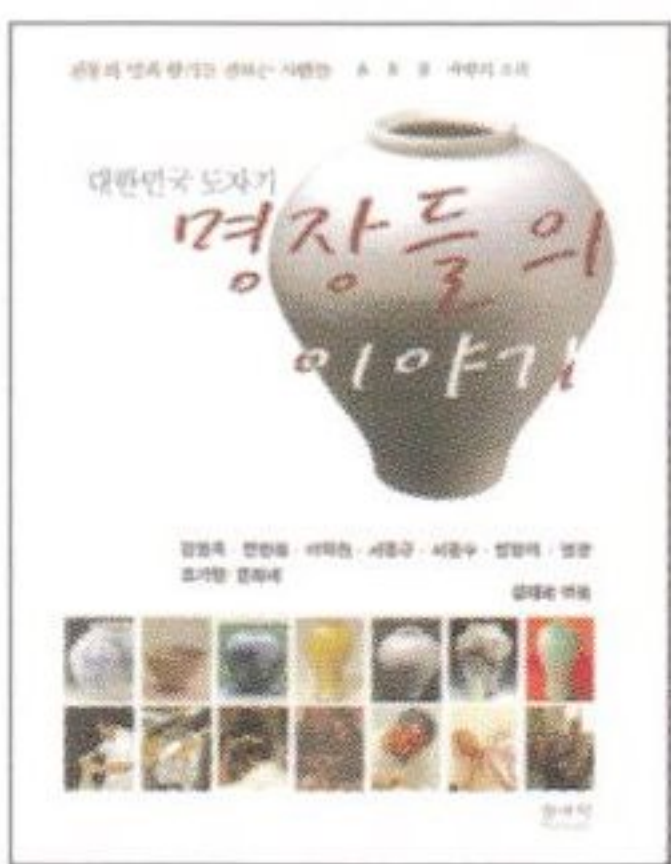
김태웅 지음 | 평민사 | 164p | 7,000원



영화 <왕의 남자>가 2006년 신년벽두를 뜨겁게 달구었다. 대중문화예술장르인 영화에서 대박을 터뜨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영화가 되었다. 그와 함께 영화의 원작인 희곡에도 관심이 쏠리긴 했으나, 잠깐이었다. 일반대중이 희곡읽기의 맛을 느낀다는 것은 쉽지 않겠으나, 영화의 매력에 빠져든 사람이라면 희곡집을 통해 새로운 감동을 맛보길 권한다. 영화 <왕의 남자>의 원작은 김태웅 씨의 희곡 '이(爾)'를 원작으로 한다. 김태웅 씨는 '연우무대 20주년 신예작가발굴 시리즈'에서 <파리들의 곡예> 작·연출로 연극계에 입문, 1999년 동아신춘문예에 희곡 <달빛유희>로 등단하였다. 2000년 연우무대에서 작·연출했던 '이(爾)'는 그해 동아연극상 작품상, 연극협회선정 베스트5 작품상·희곡상, 평론가협회선정 베스트3 작품상, 서울공연예술제 희곡상을 수상하며 연극관객들의 사랑을 받았다. 우리가 스크린에서 만나는 뛰어난 실력의 배우들이 연극무대에서 실력을 쌓은 이가 많듯이, 재미있는 영화 뒤에는 탄탄한 원작이 있었음을 알고, 그 원작에도 따뜻한 관심을 가져보자.

## [대한민국 도자기 명장들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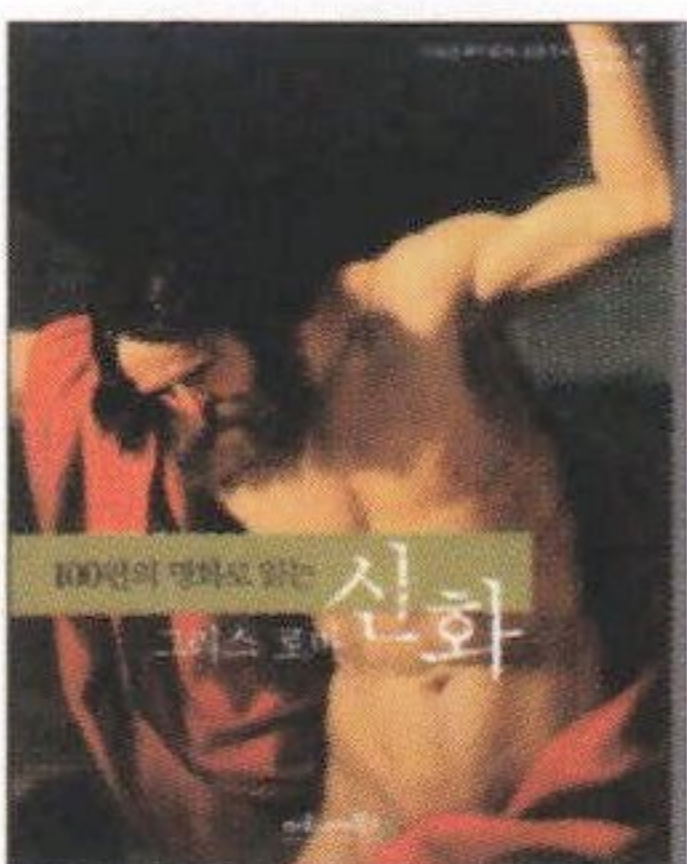
김재광 엮음 | 솔과학 | 384p | 25,000원



평생 우리 민족의 전통의 숨결을 아로새겨온 도자기 명장들의 이야기를 엮은 책. 고려시대 상감청자, 조선시대 백자와 막사발, 우리가 도자기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유리창 저편에 진열해 놓고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선조들의 숨씨와 혼을 현재에도 되살리고 있는 명장들의 작업실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의 작업과 예술정신을 기록한 책이다. 1985년 우리나라 최초 도예명장 김정옥과 천한봉, 이학천, 서동규, 서광수, 임항택 등 6인의 명장, 청자의 재현·도자사 연구에 몰두한 인간문화재 조기정의 작품과 삶을 다루었다. 각 명장의 작품과 작업에 관한 글 뒤에는 명장의 가족 혹은 문인이 명장의 삶을 지켜보면서 쓴 이야기가 있어 감동을 더해준다. 좋은 흙과 좋은 물, 며칠동안 같은 온도를 유지하도록 정성으로 활활 일어나는 불, 그리고 자연의 숨결이 함께 만들어낸다는 도자기. 우리 민족의 도자기는 임진왜란을 야기시키는 한 원인이 되었을 만큼 예부터 세계적으로 그 아름다움의 명성이 드높았다. 아주 오래 전부터 동아시아를 매혹시켰던 한류, '도자기'를 오늘날 재현시키고자 평생을 바쳐온 대한민국 도자기 명장들의 삶과 작품세계를 만나보자.

## [100편의 명화로 읽는 그리스 로마 신화]

마르크 뤼마롤리, 프랑수아 르브레트 지음 · 정재곤 옮김 | 마로니에북스 | 238p | 13,000원



몇 년 동안 어린이들 사이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만화 <그리스 로마 신화>. 시리즈로 계속 발간되는 이 만화가 언제쯤 완간될지 어린이 독자들도 답답하겠지만, 다음권이 나올 때마다 책을 사 날라야 하는 부모님들도 성가시긴 마찬가지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만화로 이 책을 읽는 어린이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성장한 후에 꼭 원전을 읽어보라고 권한다. '그리스 로마 신화'가 인류문화사상 오래된 중요한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인류의 문명이 동양문명과 서양문명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서양문명의 토대가 된 것이 그리스 로마문명인 것을 생각해볼 때 그리스 로마 신화가 얼마나 중요한 키워드인지 짐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만큼 그리스 로마신화는 원전 외에도 수많은 형식의 텍스트로 확장되어 전 세계의 독자들에게 읽히고 있다. 이 책은 신화의 장면들을 주요 소재로 한 명화 100편을 선정, 명화들에 충분한 의미를 부여하고, 매 장면에 담긴 신화 이야기를 들려준다. 명화를 감상하면서 책을 읽는 동안 유럽문명의 진수에 담긴 힘과 아름다움을 만들어 온 그리스 로마신화 속으로 여행하는 감동을 안겨주는 책이다.

■ 글/박현주 · 동보서적 <책소식> 편집장

# Recommended Performance in March

## China National Symphony Orchestra's Visiting Korea Concert

7th(Tue), 7:30 pm Busan Citizen's Hall Main Theater



It is praised as 'powerful sound of vitality of ripen group' by 'Times' and it is the one of the best Orchestra in the world. They will meet the Busan classical pans.

• Con/Li Xincuo

Ticket:VIP 100,000Won • R 80,000Won • 60,000Won

A 40,000Won

More Information:442-6500

## The 2nd Subscription of Corea Opera 'Un ballo in maschera' (a masterpiece of Verdi)

10th(Fri) -13th(Mon) 7:00 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It is the first performance of 'Un ballo in maschera', which is based of the historical event, 'assessment of the King of Sweden, Gustave III'. Also it is famous for opera of Tenor.

Ticket:VIP 150,000Won • R 100,000Won • S 70,000Won

A 50,000Won • Student 30,000Won

More Information:949-6582, 016-9302-5271, 011-9522-2323

## Boris Berezovsky Piano Recital in Busan

14th(thu) 7:30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He is shown to active performances in worldwide stage, since he had received the first winner of Mezhdunarodnii Konkurs imeni P. I. Chaikovskogo in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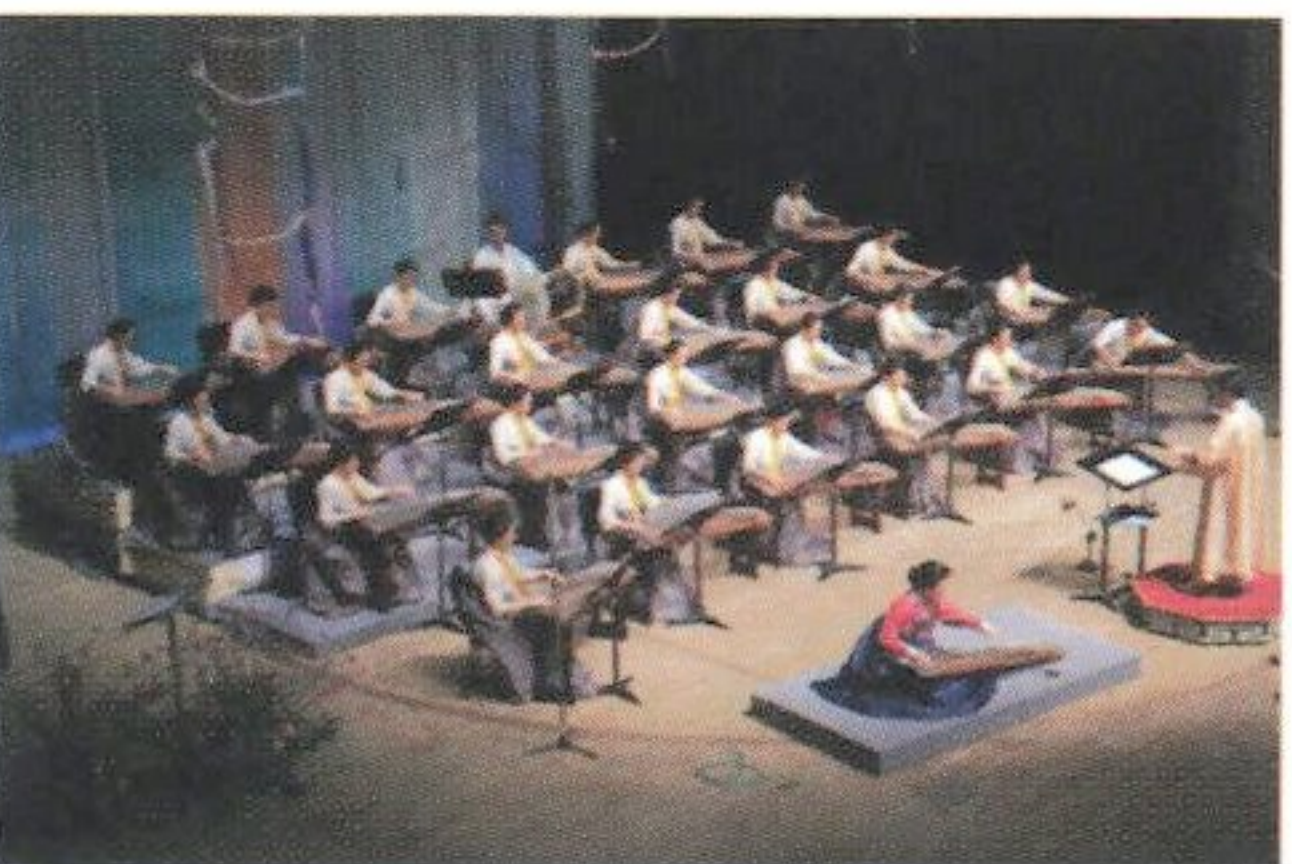
Ticket:R 70,000Won • S 60,000Won • A 40,000Won

B 30,000Won

More Information:747-1536

## The 2nd Busan Kayakum Performance Group Subscription Concert

16th(Thu) 7:30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Kim Namsoon, the professor of Busan National University, and her followers made enthusiastically Busan Kayakum performance group. They have played various Kayakum music.

Ticket:free

More Information:017-568-3766, 017-556-7543

##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Special Concert Worldwide pianist 'Serguei Markarov' invited

17th(Fri) 7:30 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The Principal conductor, Alexander Anissimov and UNESCO Peace Artist Serguei Markarov will have meaningful meeting.

Program

Beethoven/Piano Concerto No.5 in Eb Major 'Kaiser' op.73

Bartok/Concerto for Orchestra

Ticket:R 10,000Won • S 7,000Won • A 5,000Won

More Information:607-6101

## Elfa's Jazz&Pop Singers Busan Concert

19th(Sun), 5:00 pm KBS Busan Hall

Their talent has recognized as a winner of Grand prix in World Choir Games in series of three times. They are preparing various jazz and pop songs for Busan citizens.

Ticket:R 50,000Won • S 40,000Won • A 30,000Won

More Information:442-6500

## Special Concert of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Four Seasons'

24th(Fri), 7:30 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Kim Dong Uck, the concertmaster of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will co-played with his team. They will present you the representative work of Vivaldi, 'Four Seasons'.

Program

Britten/Four Sea Interludes from 'Peter Grimes' op.33a

Tchaikovsky/Symphony No.4 op.36

Ticket:R 10,000Won • S 7,000Won • A 5,000Won

More Information:607-6101

##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the 418th Subscription Concert 'A Night at Russian Music'

31st(Fri) 7:30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Alexander Anissimov will present Russian music to us, missing his mother country.

Program

Tchaikovsky/Nutcracker Suite op.71a

Rachmaninov/Piano Concerto No.2 in c minor op.18

Tchaikovsky/Fantasy Overture 'Romeo and Juliet' etc.

• Conduct/Alexander Anissimov • Piano/Sasha Anissimov

Ticket:R10,000Won • S 7,000Won • A 5,000Won

More Information:607-6101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맞춤형 문화공연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부산문화회관에서는 다양한 시민들의 문화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맞춤형 문화공연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2월 9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설문조사는 부산문화회관에서 관객들을 특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첫 기획으로 '주부들이 선호하는 문화공연'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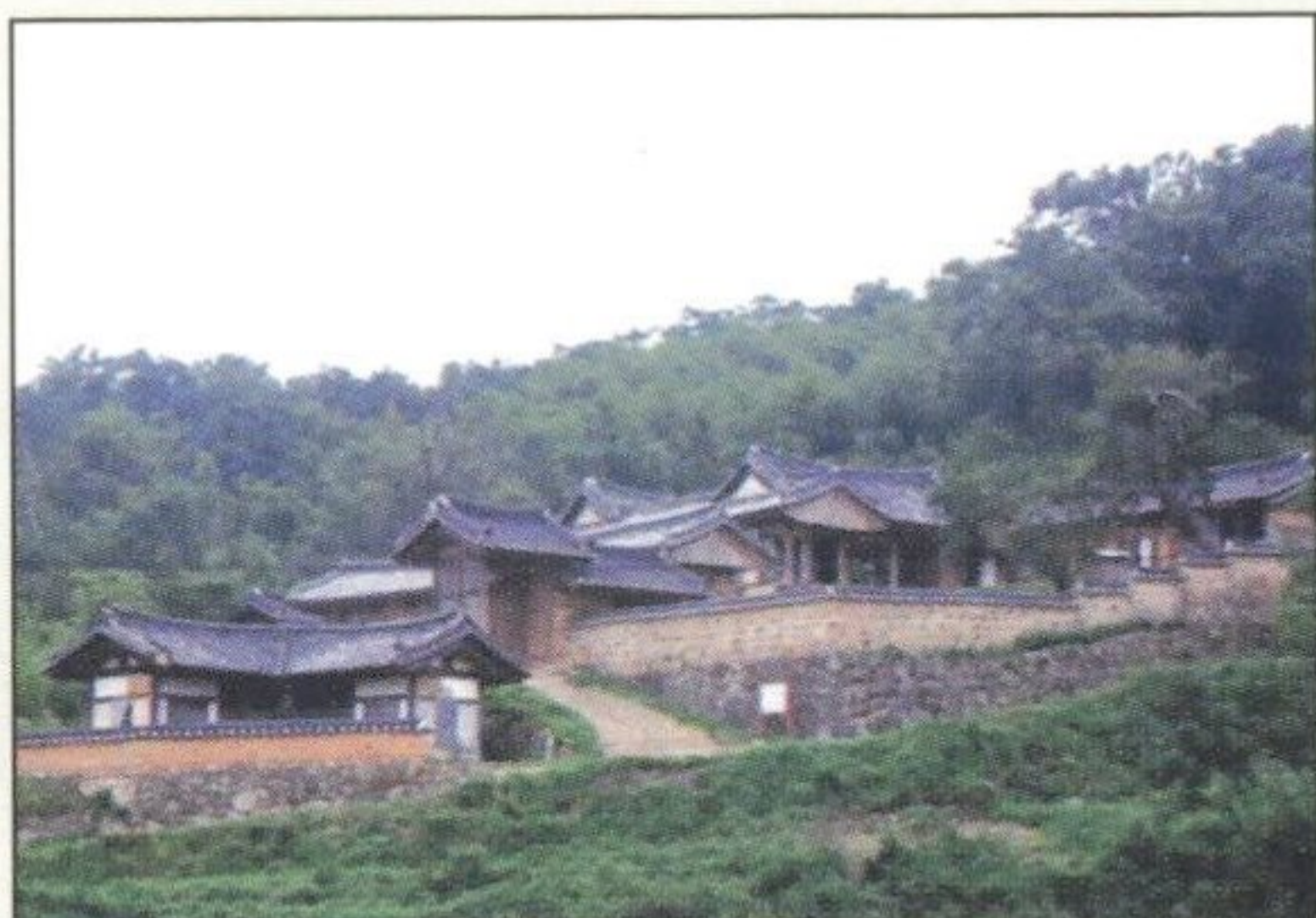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은 앞으로 '주부들이 선호하는 문화공연'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문화 향유 계층에 대한 공연 선호도를 조사, 공연기획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가 힘든 분은 예술에의 초대에 있는 설문엽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의: 부산문화회관(607-6047)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3월 당첨자

▶ 3월 10일(금)  
경주 수학여행 다시가기



### ■ 신규가입 당첨자 명단 (1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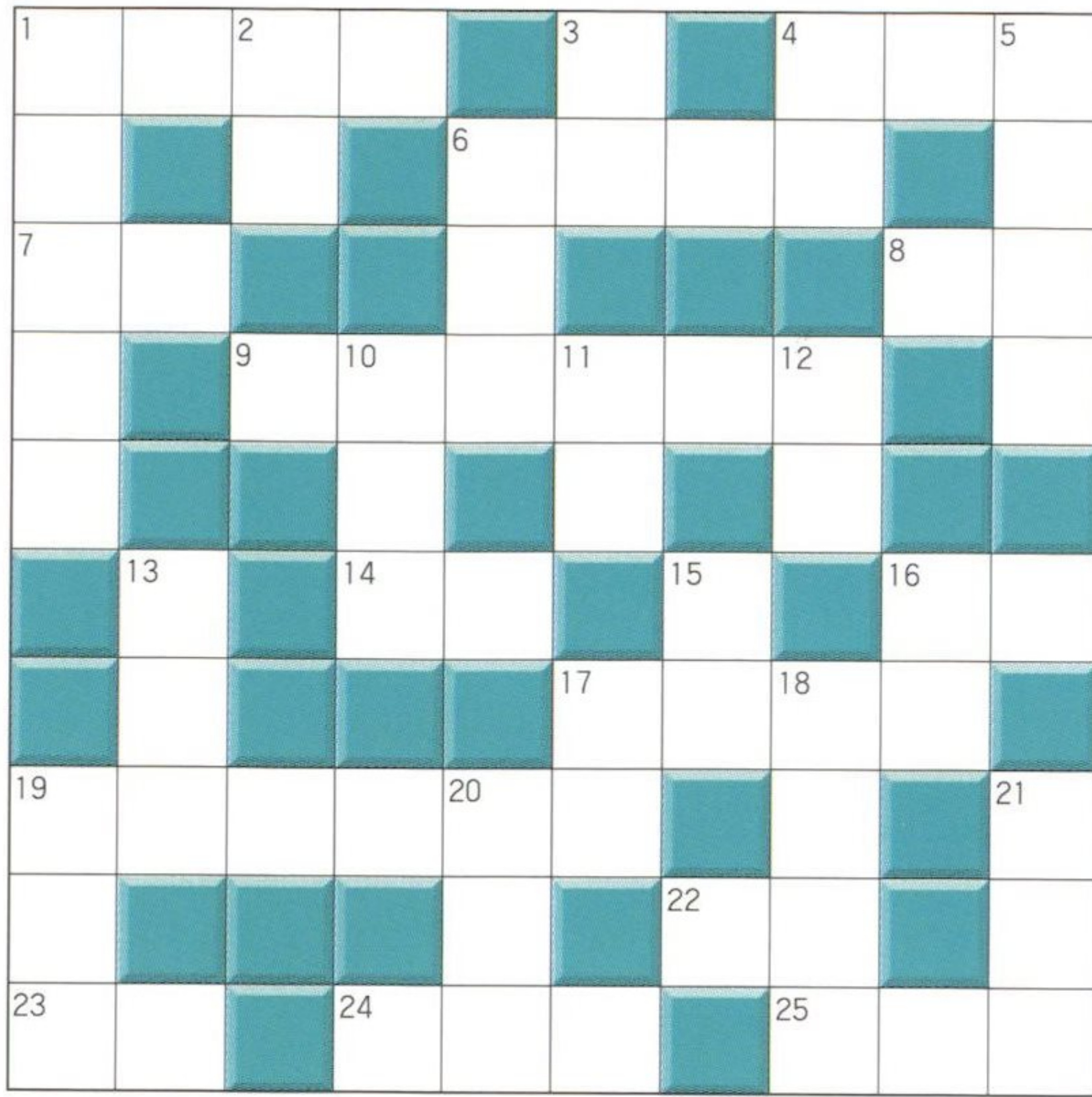
양총모	동래구 사직2동
박언정	중구 영주2동
이윤경	서구 서대신동3가
도정미	영도구 봉래동4가
이은희	사상구 학장동
윤하정	수영구 망미1동
정성윤	동래구 온천1동
김은출	해운대구 좌동
김경희	금정구 장전2동
이상훈	사하구 하단2동

### ■ 기존가입 당첨자(엽서) 명단(10명)

유분조	해운대구 반여2동
성외순	남구 대연1동
배동준	동래구 온천동
윤성인	사하구 괴정1동
김명순	사하구 괴정동
이호숙	사상구 모라2동
문숙자	사하구 신평2동
김유택	사상구 학장동
김애라	해운대구 좌동
허은진	사상구 엄궁동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가로문제

- 연극 '이(爾)'를 원작으로 한 이준익 감독, 감우성, 정진영, 이준기 주연의 영화.
- 승무, 고풍의상 등 고전적 풍물을 소재로, 우아하고 섬세하게 민족정서를 노래한 시풍으로 유명한 시인. 박두진, 박목월과 함께 청록파로 불림.
- 입에 물고 부는 소형의 리드악기. 클래식, 모던재즈 등의 음악 외에도 영화, 연극의 반주음악에도 널리 쓰인다.
- 백두산 산정에 있는 자연호수.
- 두 음(音) 사이의 높낮이의 차.
- 필리핀의 전 대통령인 막사이사이의 품격과 공적을 추모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적인 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장준하, 김활란, 이태영, 오웅진신부, 법륜스님 등이 수상한 바 있다.
- 밤 12시.
- 쿠바에서 발달한 타악기로, 커다란 나무줄기를 도려내어 통모양으로 만들어 한쪽에 가죽을 붙여 손이나 막대기로 두드려 소리

- 낸다.
- 올해로 탄생 250주년을 맞은 천재음악가.
  - 조각가 로댕의 연인이자 19세기 최고의 여류 조각가.
  - 시 '오감도', 소설 '날개' 등을 발표한 시인 겸 소설가.
  - 남의 마음이나 일의 낱새를 알아챌 수 있는 힘. ○○를 채다.
  - '크다'는 뜻의 말로, 정식 명칭은 러시아 국립아카데미극장. 세계적 수준의 오페라단과 발레단, 부속학교 등이 있다.
  - 신문, 잡지 등에서 필요한 부분을 오려내는 일.

세로문제

- 신라시대의 승려 혜초가 고대 인도를 돌아본 후 적은 여행기로, 당시 인도 및 서역 각국의 종교와 풍속, 문화 등에 관한 기록이 실려있다.
- 노르웨이의 탐험가 아문센이 최초로 도달에 성공한 남위 90° 지점.
- 시간의 비밀을 찾아 떠나는 꿈과 환상의 세계를 그린 독일작가 미하엘 엔데의 동화소설.
- 형제, 자매의 아들.
- 조선 세종 25년(1443년)에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자들의 도움을 얻어 처음 만든 우리나라 글자.
- 미국의 50번째 주. 주도는 호놀룰루
-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 비발디의 대표적인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4계절의 분위기와 색채를 즐겁고도 섬세하게 표현해낸 표제음악의 걸작.
- 금속, 도자기, 목재 등의 표면에 무늬를 파고 그 속에 금, 은 등을 넣어 채우는 기술 또는 그 작품. ○○청자
- 세계적인 지휘자 카라얀으로부터 '신이 내린 목소리'라는 극찬을 받은 소프라노.
- 바람의 힘을 이용하여 동력을 얻는 기계장치.
- 인생의 한 단면을 짧고 재치있게 표현한 단편소설.
- 그림이나 조각을 제작할 때 표현의 대상으로 삼는 인물.
- 14세기 말에서 16세기 초에 걸쳐 이탈리아에서 일어나 전 유럽에 퍼진 예술과 학문상의 혁신운동. 문예부흥.
- 글을 전혀 모르는 사람.
- 새 영화를 일반에게 상영하기 앞서 대도시의 특정한 극장에서 하는 특별상영.
- 영화 등에서 어떤 화면 위에 다른 화면이 겹치면서 먼저 화면이 사라지게 하는 기법.

지난호 정답

우물안개구리	연꽃
수소	이무기
나니아연대기	이
박권금대원군	중력
경각사	이심전심
자명고	청리마
하마평	임미스
림윤이상	모나코
바자회	수덕사

■ 큰집 식사권

- 김양수(강서구 송정동)
- 김춘심(사상구 주례 3동)
- 정다을(금정구 장전1동)
- 모영철(수영구 광안4동)
- 양정희(사상구 모라2동)

■ 돈방불패 식사권

- 강주찬(해운대구 반송 3동)
- 김새로미(수영구 수영동)
- 최명욱(연제구 연산5동)
- 성정우(연제구 연산5동)
- 박재우(수영구 망미1동)

■ 가마골소극장 초대권

- 이명주(부산진구 연제동)
- 이영일(남구 대연3동)
- 김성례(부산진구 양정2동)
- 이재선(연제구 거제 3동)
- 김명희(수영구 망미1동)

■ 동보서적 도서교환권

- 윤정미(연제구 연산5동)
- 박은주(부산진구 부전1동)
- 박성진(남구 용호1동)
- 김재엽(금정구 장전1동)
- 이수한(양산시 물금읍)

그리움이 있는곳에 늘 고향이 있습니다

## 큰 집

예약. 051-245-3320  
업무. 051-255-4547

- ◆ 예약시 담당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 ◆ 더욱 성심껏 모시겠습니다.

산마루 고풍

- 짬갈비
- 삼계탕, 돌솥비빔밥
- 30초 완성 참숯판구이 삼겹

UN로타리 문화회관 영빈관 앞 예약문의 : 611-4040

날마다 연극축제가 열리는 곳  
부산에는 가마골소극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연극의 산실

## 가마골소극장

(051) 245-0042 www.kamagol.co.kr

부산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동보서적 1층 안내에서  
각종 공연 티켓을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 동보서적

• 도서안내 : 803-8000 • 단체납품 : 804-6391  
• www.dongbobooks.com

■ 보내실 곳/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3월 15일까지 보내주시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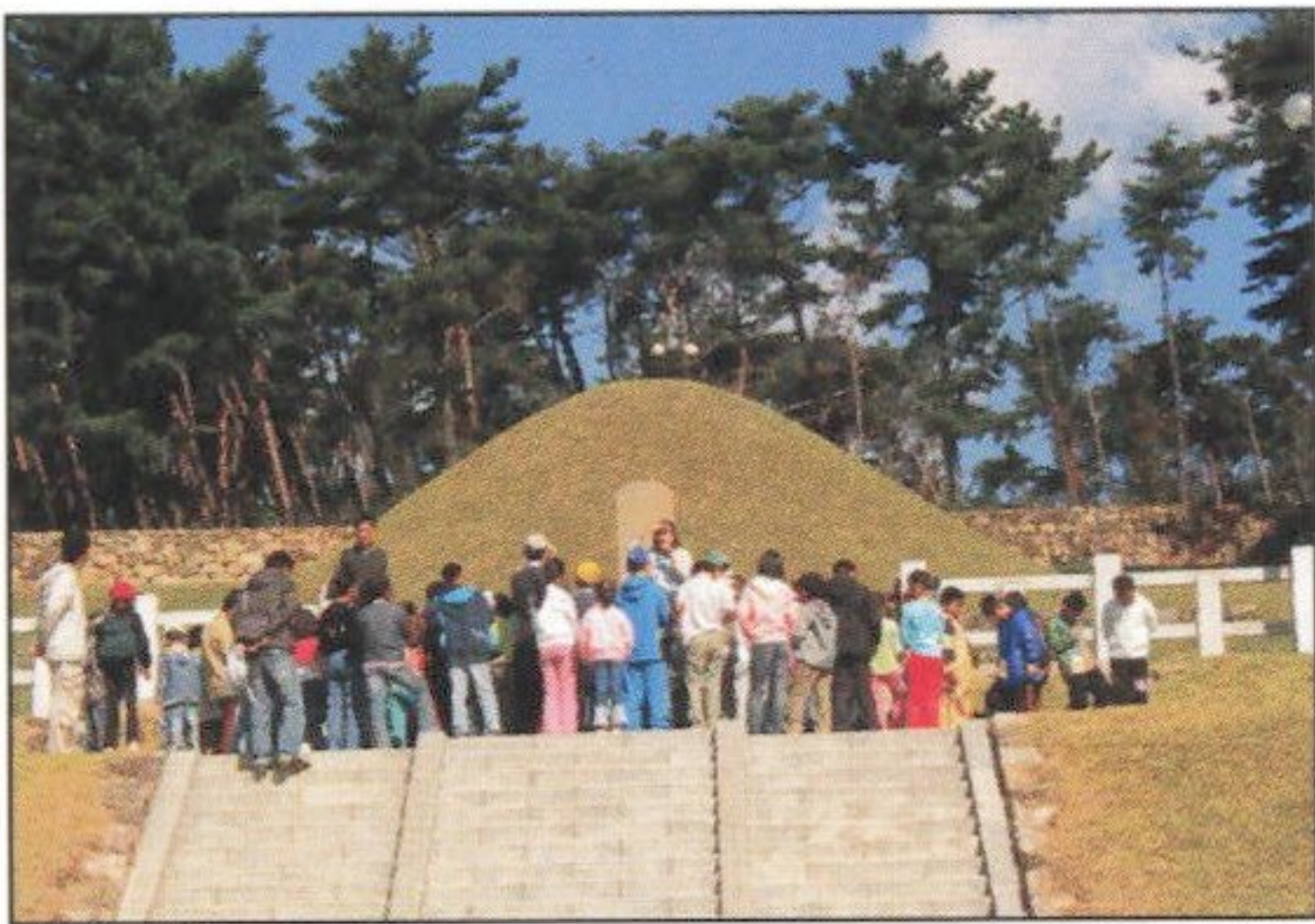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 테마여행

일탈을 꿈꾸는 여러분에게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지금 응모하십시오.



### ▶ 4월 7일(금) 가야문화체험 및 딸기 따기

찬란한 가야문화를 살펴보고 4월의 수확물인 딸기 따기 체험을 할 수 있는 여행.

0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09:30 김해박물관 도착

12:00 중식

14:00 딸기 따기 농촌 체험

15:00 김해 출발



### ▶ 5월 12일(금) 낙동강 하구언 생태체험

부산의 젖줄인 낙동강 하구언의 생태체험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느껴보는 테마여행.

0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09:30 다대포 도착-낙동강 삼각주 관광

10:30 낙동강 하구 이동

11:00 진우도-갯벌 생태 관찰

12:00 중식-생태 설명 및 환경 정화

15:00 진우도 출발



### ▶ 6월 9일(금) 천연염색 및 우포늪 생태체험

국내 최대의 자연늪지인 우포늪 생태 및 천연염색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테마여행.

0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10:00 창녕 우포늪 생태학습원 도착-천연염색 체험

12:00 중식

13:00 우포늪 생태 관찰 및 설명

15:00 창녕 출발

■ 응모방법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

〈예술에의 초대〉에 있는 응모엽서를 작성하여 3월 15일까지 보내주십시오. 10명을 추첨,

1인 2명에게 여행 상품권을 드립니다.

■ 발표 : 3월 25일 〈예술에의 초대〉 지면을 통해 4월 여행 당첨자 발표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051-607-6070), (주)과란여행(051-631-7740)

고품격리조트 허니문의 名家

# 파란여행 HONEYMOON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께 드리는 혜택

- ① 1쌍 30만원 할인
- ② 여권(단수), 여행용가방, 여행자보험 서비스
- ③ 롯데면세점, 파라다이스면세점 할인쿠폰
- ④ 환전우대서비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쿠폰은 8월 25일까지 유효합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쿠폰은 6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 우 편 엽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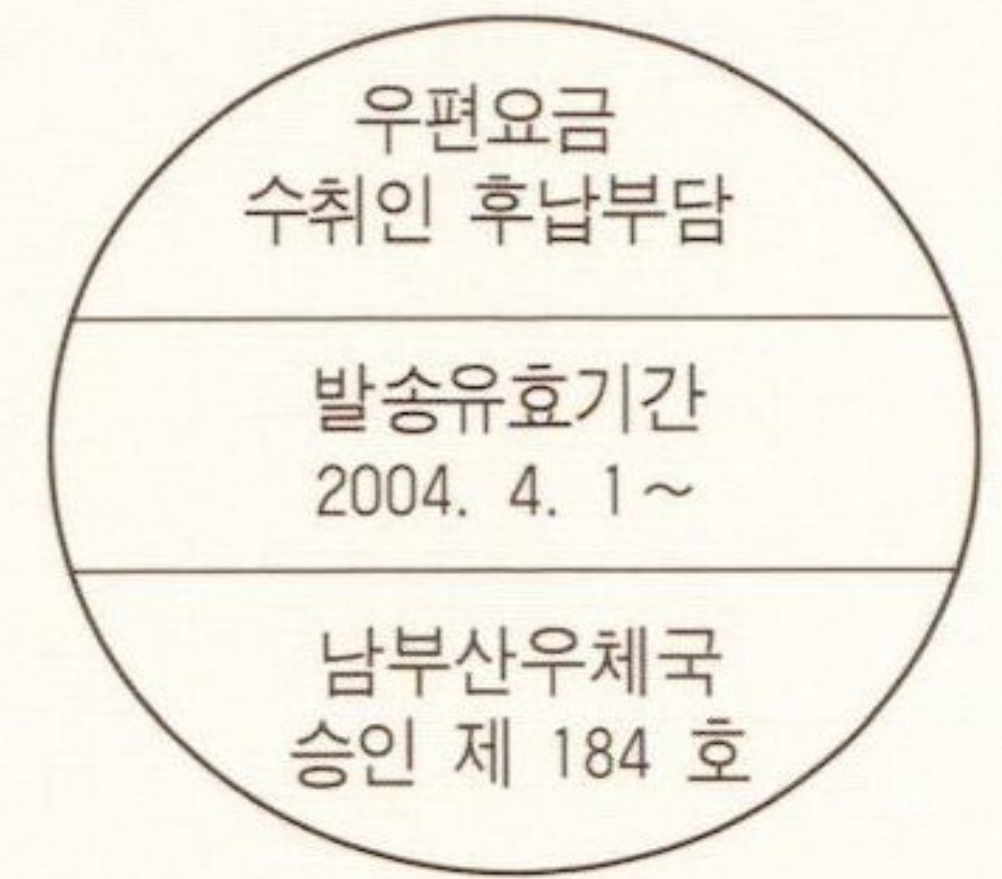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설문조사 담당자 앞

-

##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


상생개는  
별난 물건 박물관

# 10% 할인권

(1매 4인 사용가능)

대상: 할인쿠폰 소지자 또는 예술단 정기회원카드 제시자  
기간: 6월 30일까지

해운대 스펀지 3층 TEL: 051-740-4858



Since 1981 - 에스프레소 커피전문점 · 퓨전레스토랑

# philharmony

식사 · Wine · Beer · 차를 함께 즐기는  
편안한 문화 사랑방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식사 2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 628-2592

평소 부산문화회관을 아끼고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산문화회관은 다양한 시민들의 문화욕구에 부응하고자 관객들을 특화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주부들이 선호하는 문화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들의 귀중한 의견을 들려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귀하의 연령대는?  
20대( ) / 30대( ) / 40대( ) / 50대( ) / 60대이상( )
2. 귀하는 얼마나 자주 부산시립예술단 공연(대관공연 포함)을 관람하십니까?  
① 월 1회이하 ② 월 1회 ③ 월 2회 ④ 월 3회 ⑤ 기타( )
3. 귀하가 관람하시고 싶은 장르는?  
① 정통 클래식 ② 팝페라 ③ 국악가요 ④ 기타( )
4. 귀하께서 관람하고 싶은 공연명은? [예. 장사익공연, 국립발레단 초청공연 등]
5. 시립예술단에서 귀하가 선호하는 공연을 할 경우 귀하의 관람 의향은?  
① 반드시 관람하겠다 ② 가능한 관람하겠다 ③ 사정에 따라 결정하겠다.
6. 시립예술단에서 귀하가 선호하는 공연을 한다면 희망하는 시기는?  
① 봄 ② 여름 ③ 가을 ④ 겨울 ⑤ 방학기간
7. 평소 부산문화회관 및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을 기재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회원가입신청서

신규     재가입

가입구분	성명	휴대폰			
	자택	☎			
	직장	☎			
	e-mail				
회원구분	VP 회원	1년제	10회 100,000원		
	일반회원	1년제	5회 25,000원	10회 45,000원	
	장애인 · 경로우대 · 국가유공자 사랑회원(50% 할인)	1년제	5회 12,500원	10회 25,000원	
	청소년 푸른회원(20% 할인)	1년제	5회 20,000원		
가입동기	단원 권유	직원 권유	예술에의 초대 광고	공연관람후 자발	기타
관심단체	교향	국악	합창	무용	극단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교향악단
관심분야	고전/현대음악	오페라	전통무용	발레	재즈    자녀들을 위한 공연    기타
공연관람횟수	한달	회	년간	회	
가입권유	소속		성명		

년    월    일    신청인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  
니다. 이 쿠폰은 5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 우 편 엽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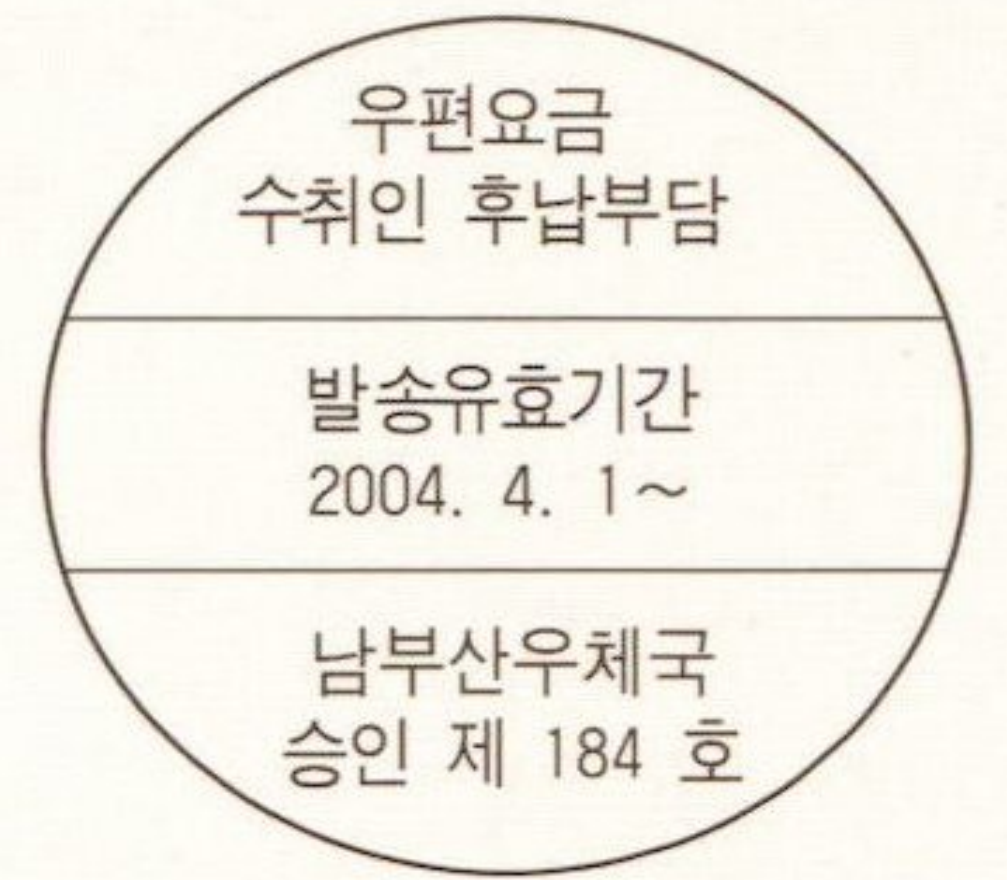
###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의초대** 담당자 앞

-

## 우 편 엽 서

###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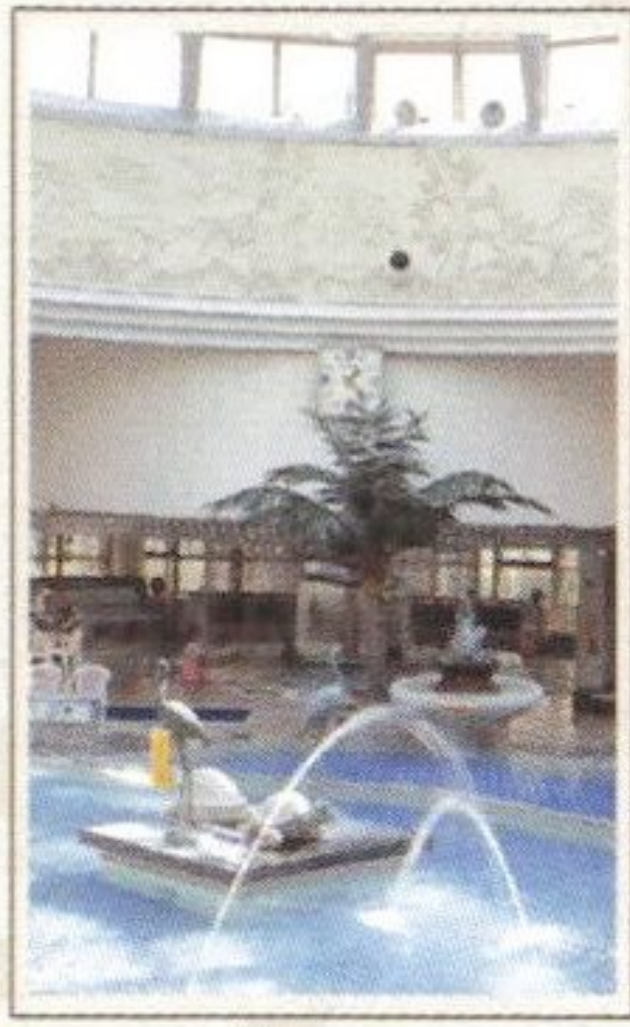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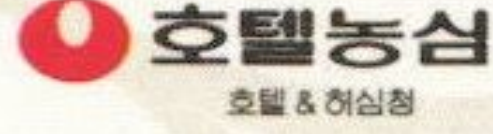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의초대** 담당자 앞

-

# 온천의 명소 허심청 2,000원 할인

- 본 쿠폰을 가져오시면 1매에 2인까지 할인됩니다.
- 대인 정상요금에 적용되며 중복할인 되지 않습니다.
- 유효기간 : 2006년 5월 31일 까지
- 문의전화 : 051.550.2200~2



가마골소극장 20주년기념공연 1  
21세기에 당도한 살보시여인

# 바보각시 10% off



기간 2006. 3. 17(금) - 4. 9(일)  
평일 7:30 토 4:30, 7:30 일 3시, 6시  
장소 가마골소극장  
문의전화 및 예매 051)245-0042  
www.kamagol.co.kr

※ 쿠폰 소지 회원에 한해 전화예매시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본 쿠폰은 공연당일 현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미리 예매하신 분은 할인적용 안됩니다.  
※ 현장구매 및 전화예매 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4월 테마여행을 응모합니다.

- 회원명
- 회원번호  
(※ 마이비카드는 마이비숫자 10자리를 적어주십시오.)
- 연락처     · 자택   · 휴대폰
- e-mail
- 동행자 인적 사항
  - 이름
  - 주소
  - 연락처

※ 가보고 싶은 여행지나 참여하고 싶은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십시오.

※ 응모엽서는 3월 15일까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로 보내 주십시오.

### 퍼즐 정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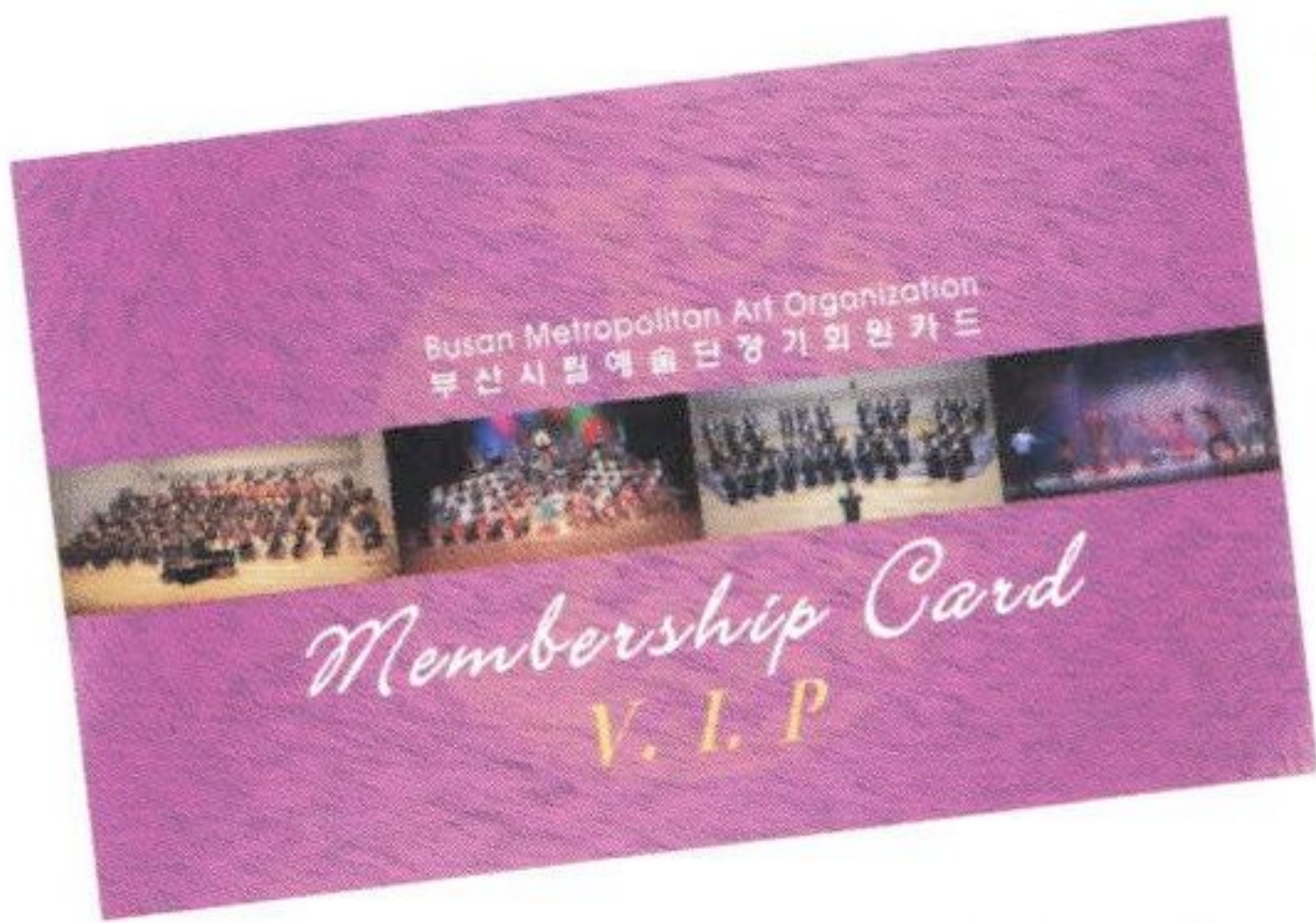
1. 이번호에서 유익하거나 재미있었던 기사는.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기사는.

3.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은.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가입안내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가입하시면



-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권을 구입하는 번거로움 없이 전화로 공연 예약이 가능합니다.
- 부산시내 전 공연장의 정보와 문화예술계의 동향 등을 담은 '예술에의 초대' 월간지를 매달 무료로 발송해 드리며, 부산시립예술단에서 마련하는 모든 무료 공연에 최우선으로 초대합니다.
- 부산시내 각 공연장에서 열리는 외부 단체의 공연 입장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주최측과 협의된 공연에 한함).
- 부산문화회관과 시립예술단 특별기획공연 입장료를 20~50% 할인해 드립니다.
- 50명 이상 단체 가입시는 가입 총액의 10%가 할인되어 관람료가 더욱 저렴합니다.
- 청소년 푸른회원은 20%, 장애인(1~3급)·경로우대·국가유공자 사랑회원은 가입회비가 50% 할인되어 더욱 저렴합니다.

## 예약문화 정착을 위하여 공연 관람 하루전까지 예약을 해주십시오

- 예약이 빠르면 좌석이 앞섭니다.
- 공연 예약후 사전에 취소 연락없이 공연관람을 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예약한 인원 전체를 관람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 인기있는 공연으로 예상되는 시립예술단 공연에 대하여는 관람 인원을 공연회당 회원본인과 동반자 1인을 포함 2명으로 제한합니다.

## 정기회원가입회비

VIP 회원 1년제 10회 관람 100,000원

일반회원 1년제 5회 관람 25,000원 10회 관람 45,000원

(청소년 푸른회원 20% 할인, 장애인·경로, 국가유공자 사랑회원 50% 할인)

### ■ 가입비 납입 은행계좌번호

부산은행 036-01-034846-1(예금주 : 부산문화회관)

### ■ 가입 및 공연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ulture.busan.kr](http://www.bsculture.busan.kr))에서도 가입 할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세계 정상 연주인(단체) 초청 기획공연 I

# 이 무지치 (I MUSICI) 내한 공연

“시가라 하면 쿠바의 코히마 시가가 최고이며,  
적포도주라 하면 샤토 라피테 로셀드를 최고로 꼽을 수 있겠다.  
그러나 비발디 사계의 연주라 하면 뭐니뭐니해도  
이 무지치가 연주하는 사계가 최고라고 할 수 있다”

- The Palm Beach Post -

## □ 프로그램

비발디/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가장조 '올림' RV552

비발디/바이올린 협주곡 Op.8-5 RV253

'화성과 창익의 시도' 중 '바다의 폭풍우'

비발디/바이올린 협주곡집 Op.8-1, 2, 3, 4

'화성과 창익의 시도' 중 '사계'

※ 곡목과 공연순서는 연주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06년 4월 26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 부산문화회관

■문의 / 부산문화회관(607-6047, [www.bsCulture.busan.kr](http://www.bsCulture.busan.kr))